

THE SUTRA IN 42 SECTIONS

with commentary of Master YongHua

영화 선사의 사십이장경 강설



Translated from Chinese by:

The 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

BTTS의 영문 번역본 참조

Explained by:

Master YongHua

영화 선사 강설

한국어 번역 (2022~2023년)

번역: 상욱 스님

교정 및 편집: 현안 스님

[영화 선사의 대승 수행 도량]

한국

Jeweled Mountain Temple 한국 대승 수행 도량 보산사 寶山寺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377 (우) 28172

1st Floor, TaeSungTopYeonRo 377, Gangnae-myeon, HungDuck-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Postal code 28172), South Korea

Jeweled Conch Seon Center 보라선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20 그린프라자 2층과 5층 (우) 13595

T: 031-714-5171 / E: jcseoncenter@gmail.com

2th fl. 20, Baekhyeon-ro 101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South Korea (Postal code 13595)

미국

Wei Mountain Temple 위산사 滙山寺

7732 Emerson Pl, Rosemead, CA 91770, USA

Tel: (626) 766 - 1009

Lu Mountain Temple 노산사 廬山寺

7509 Mooney Drive, Rosemead, CA 91770, USA

Tel: (626) 280-8801

Gold Forest Chan Meditation Center 금림선사 金林禪寺

796 Delmas Ave, San Jose, CA 95125, USA

Dharma Treasury Temple 법장사 法藏寺

3201 Ulloa St, San Francisco, CA 94116, USA

이메일 info@chanpureland.org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의 유래]

중국에 불교가 전파된 경로는 후한(後漢)의 효명제(孝明帝) 시대라고 한다. 효명제는 어느 날 밤 꿈에 온통 금색 빛의 사람이 나타나 정頂수리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서 빛이 방광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왕은 사연을 물은즉 한 신하가 “서방에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처라 하고 그 형상이 장대長大하다”고 하였다.

이에 황제는 10여명의 사신使臣을 파견하였다. 그 사신들이 인도로 가는 도중 서역에서 백말에 불상과 경전을 싣고 오던 가섭마등(迦葉眠)과 축법난(竺法蘭)을 만나 돌아왔다.

황제는 기뻐하며 낙양문 밖에 백마사(白馬寺)를 짓고 이곳에 두 사람을 살게 하며 경전을 번역하게 하였는데, 그 경전이『42章經』이다. 따라서 백마사(白馬寺)는 중국 최초의 사원(寺院)이며, 『42章經』은 중국 최초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42장경』은 많은 불교수행자들에게 시대를 흘러오면서 독송하는 경전으로 불조삼경 佛祖三經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네이버 검색

Second edition, ISBN 978-0-9835279-2-3

© Copyright: Bodhi Light International, Inc.

www.BLI2PL.org

목차

- 序分 서분. 깨달음을 성취한 여래
- 제 1장. 出家證果(출가증과) 깨달음의 네 가지 길
- 제 2장. 達理崇道(달리숭도) 차별 없는 참된 이치
- 제 3장. 割愛知足(할애지족) 깨달음을 이루는 법
- 제 4장. 止惡行善(지악선행) 열반을 성취하는 선한 행
- 제 5장. 悔過滅罪(회과멸죄) 허물을 고쳐 착한 길로
- 제 6장. 忍惡無瞋(인오무진) 악을 견디어 성냄을 없앤다
- 제 7장. 謗佛招禍(방불초화) 참고 견디는 법을 밝히다
- 제 8장. 害賢自損(해현자손) 허물은 반드시 자신을 멸한다
- 제 9장. 立志體道(입지체도) 깨달고자 하는 뜻을 굳게 지키라
- 제10장. 助施得福(조시득복) 영원한 햇불의 공덕
- 제11장. 舉田較勝(거전교승) 가장 수승한 공양의 공덕
- 제12장. 舉難勤修(거난근수) 스무가지 어려움을 들어 닦기를 권한다
- 제13장. 會道知命(회도지명) 지극한 도를 아는 방법
- 제14장. 眞修合道(진수합도) 진실한 것과 가장 큰 것
- 제15장. 忍智力明(인지력명) 힘센 것과 가장 밝은 것
- 제16장. 斷欲見道(단욕견도) 애욕을 버리고 참된 도를 보라
- 제17장. 滅暗存明(멸암존명) 무명이 사라지는 법
- 제18장. 無相會眞(무상회진)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며 닦는가
- 제19장. 觀中得道(관중득도) 자세히 관[觀]하라
- 제20장. 身本無我(신본무아) 환[幻]과 같은 나
- 제21장. 好名無益(호명무익) 구할 것이 못되는 명예
- 제22장. 財色招苦(재색초고) 칼 끝에 묻은 꿀
- 제23장. 妻子甚獄(처자심옥) 범부와 아라한의 차이
- 제24장. 戀色障道(연색장도) 중생의 가장 큰 병
- 제25장. 欲火燒身(욕화소신) 자신을 태울 애욕
- 제26장. 降魔化他(항마화타) 부처님이 애욕을 제도하시다
- 제27장. 逆情順性(역정순성) 바다로 흘러가는 나무처럼
- 제28장. 意馬莫縱(의마막종) 색과 만나지 말라

- 제29장. 正念觀女(정념관여) 어머니처럼 딸처럼 바라보라
제30장. 欲火速斷(욕화속단) 모든 애욕을 멀리 하라
제31장. 心寂欲除(심적욕제) 마음이 고요하면 욕심도 사라진다
제32장. 離愛忘憂(이애망우) 애욕을 떠나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제33장. 精進破魔(정진파마) 굳세게 용감하게 나아가라
제34장. 適中證理(적중증리) 거문고 줄 고르기
제35장. 去染卽淨(거염즉정) 마음의 때를 씻어라
제36장. 舉難再勸(거난재근) 아홉 가지 어려운 일
제37장. 持戒得果(지계득과) 나의 계율을 항상 기억하라
제38장. 無常迅速(무사이속) 한 호흡 사이
제39장. 依教無差(의교무차) 모든 경전을 믿고 따르라
제40장. 修行在心(수행재심) 마음 닦기만 행하라
제41장. 直心出塵(직심출진) 오로지 곧은 마음으로 나아가라
제42장. 一切如幻(일체여환) 부처님의 눈

Table of Contents

SUTRA PREFACE :

SECTION 1: LEAVING HOME AND BECOMING AN ARHAT

SECTION 2: ELIMINATING DESIRE AND ENDING SEEKING

SECTION 3: SEVERING LOVE AND RENOUNCING GREED

SECTION 4: CLARIFYING GOOD AND EVIL

SECTION 5: REDUCING THE SEVERITY OF OFFENSES

SECTION 6: TOLERATING EVIL-DOERS AND AVOIDING HATRED

SECTION 7: EVIL RETURNS TO THE DOER

SECTION 8: ABUSING OTHERS DEFILE ONESELF

SECTION 9: BY RETURNING TO THE SOURCE, YOU FIND THE WAY

SECTION 10: JOYFUL GIVING BRINGS BLESSINGS

SECTION 11: THE INCREASE IN MERIT GAINED BY BESTOWING FOOD

SECTION 12: A LIST OF DIFFICULTIES AND AN EXHORTATION TO CULTIVATE

SECTION 13: QUESTIONS ABOUT THE WAY AND PAST LIVES

SECTION 14: ASKING ABOUT GOODNESS AND GREATNESS

SECTION 15: ASKING ABOUT STRENGTH AND BRILLIANCE

SECTION 16: CASTING ASIDE LOVE AND ATTAINING THE WAY

SECTION 17: WHEN LIGHT ARRIVES, DARKNESS DEPARTS

SECTION 18: THOUGHTS AND SO FORTH ARE BASICALLY EMPTY

SECTION 19: CONTEMPLATING BOTH THE FALSE AND THE TRUE

SECTION 20: REALIZE THAT THE SELF IS TRULY EMPTY

SECTION 21: FAME DESTROYS LIFE'S ROOTS

SECTION 22: WEALTH AND SEX CAUSE SUFFERING

SECTION 23: A FAMILY IS WORSE THAN A PRISON

SECTION 24: SEXUAL DESIRE OBSTRUCTS THE WAY

SECTION 25: THE FIRE OF DESIRE BURNS

SECTION 26: HEAVENLY DEMONS TEMPTING THE BUDDHA

SECTION 27: ONE ATTAINS THE WAY AFTER LETTING GO OF ATTACHMENTS

SECTION 28: DON'T INDULGE THE WILD MIND

SECTION 29: PROPER CONTEMPLATION COUNTERACTS SEXUAL DESIRE

SECTION 30: STAY AWAY FROM THE FIRE OF DESIRE

SECTION 31: WHEN THE MIND IS STILL, DESIRE IS DISPELLED

SECTION 32: EMPTYING OUT THE SELF QUELLS FEAR

SECTION 33: WISDOM AND CLARITY DEFEAT THE DEMON

SECTION 34: BY STAYING IN THE MIDDLE, ONE ATTAINS THE WAY

SECTION 35: WHEN ONE IS PURIFIED OF DEFILEMENTS, THE BRILLIANCE REMAINS

SECTION 36: THE SEQUENCE THAT LEADS TO SUCCESS

SECTION 37: STAYING MINDFUL OF MORAL PRECEPTS BRINGS US CLOSE TO THE WAY

SECTION 38: BIRTH LEADS TO DEATH

SECTION 39: THE BUDDHA'S INSTRUCTIONS ARE NOT BIASED

SECTION 40: THE WAY IS PRACTICED IN THE MIND

SECTION 41: A STRAIGHT MIND GETS RID OF DESIRE

SECTION 42: UNDERSTAND THAT THE WORLD IS ILLUSORY

SUTRA PREFACE:

경의 서분 序分

We will start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Sutra Through the use of the Tian Tai 5-fold profound meanings五重玄義 :

천태 오중현의를 통해 이 경전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Explain) Title 釋名: Person and Dharma classification.

석명釋名: 사람과 법의 분류

2. (Discern) Substance 辨體: True Mark (both True Emptiness & Wonderful Existence; the Middle Way).

변체辨體: 진상眞相 (진공眞空과 묘유妙有 : 중도)

3. (Clarify) Doctrine 明宗: Emptiness as substance (Dharma Door of emptiness), brightness as nature.

명종明宗: 체體는 공空이고 성性是 명明임.

4. (Describing) Function 論用: Observe Precepts, Sever Desires.

논용論用: 계율을 지키고 욕망을 잘라냄.

5. (Ranking) Teaching 判教: Vaipulya period.

판교判教: 방등(비불략毘佛略, vaipulya) 시대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title of the sutra.

이 경전의 제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The complete title of sutra is: The Buddha Speaks of the Sutra in 42 Sections 佛說四十二章經.

이 경전의 원제는 “불설사십이장경 佛說四十二章經” 즉 “부처님께서 사십이장경을 설하다”입니다.

Buddha: is Sanskrit for “the Enlightened One.” There is nothing that he does not understand.

부처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Enlightenment” can be of three kinds:

“깨달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Self: enlighten oneself, as opposed to ordinary people who are not enlightened.

자각自覺: 깨닫지 못한 보통 사람과 달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 Others: enlighten others, as opposed to the Two Vehicle practitioners (who can only enlighten themselves).

타각他覺: 자기 자신만 깨달을 수 있는 이승(二乘) 수행자와 달리 다른 이들을 깨닫게 합니다.

3. Perfect: he's perfected enlightenment, as opposed the Bodhisattvas (who have not yet perfected their enlightenment).

원각圓覺: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과 달리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Buddha’ is one of the ten titles of the Buddhas. For this sutra, it refers to Shakyamuni Buddha, the teaching host of our Saha World.

‘부처’는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우리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컫습니다.

The Buddha was born in India, in the country of Kapilavastu 迦毗羅衛國. When the crown prince was born, there was a bright light shining from the West that shone on the entire world. The Chinese emperor Zhao 昭王 consulted with his adviser 太史蘇由 about this manifestation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The adviser used the Yi Jing and informed the emperor that he drew the hexagram for a “dragon flying in the sky 龍飛在天,” meaning that a great sage was born into the world. The emperor ordered it to be recorded by engraving onto stones.

부처님은 인도의 가비라위국(Kapilavastu 迦毗羅衛國)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을 때 서쪽에서 밝은 빛이 온 세계를 비쳤습니다. 중국 황제 소왕昭王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의 태사太史 소유蘇由에게 물었습니다. 태사는 역경易經으로 육각형을 그려 “용이 날아 하늘에 있는 형국龍飛在天”이라고 황제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위대한 성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황제는 이를 돌에 새겨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The Buddha was born into an Indian royal family. His father was the Pure Rice King (淨飯; Sanskrit: Suddhodana, Chinese: 輸頭陀那). His mother was Lady Maya (摩耶夫人). Seven days after his birth, Lady Maya passed away. Her own sister, Mahaprajapati (摩訶波蘭波提), who was also married to the

King, reared him like her own son until he became an adult.

부처님은 인도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반왕淨飯(산스크리트어로 수도다나輸頭陀那)이었고 어머니는 마야부인摩耶夫人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마야부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과 결혼한 그의 이모 마하프라자파티摩訶波蘭波提는 왕자가 어른이 될 때까지 친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When the prince was born, he was very handsome. The king father was very pleased and invited physiognomy experts to take a look. They declared that if the prince decided to enjoy the worldly pleasures, he would become a Wheel Turning King; whereas if he were to leave home and learn the Way, he would attain the Unsurpassed Wisdom. Greatly pleased, the king father thus named him as Siddhartha (悉達多), which is Sanskrit for accomplishing all principles (一切義成就).

왕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했고, 관상가를 초청하여 왕자의 관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왕자가 세속의 즐거움을 즐긴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지만 도道を 배우기 위해서 출가하면, 무상無上의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싯다르타悉達多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모든 이치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The best Brahman teachers were invited to tutor the crown prince. Within a few years, he became well versed in all studies, warfare, and martial arts.

최고의 브라만 스승들이 초청되어 이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몇 년 안에 그는 모든 학문, 전쟁, 무술 등에 정통하였습니다.

Since the king was worried that the crown prince might choose to leave the home life, he made sure to surround the prince with the loveliest maids at his many luxurious palaces. And at the age of 17, the prince was married to his cousin, a princess of a neighboring country whose name was Yasodhara (耶輸陀羅).

왕은 세자가 출가할까 염려되어 호화스러운 왕궁에서 아름다운 시녀들에 둘러싸이게 했습니다. 세자가 17세가 되었을 때 사촌인 이웃 나라의 공주 야소다라耶輸陀羅와 결혼했습니다.

Although he lived in total peace and leisure, the crown prince felt uneasy.

세자는 완전한 평화와 즐거움 속에 살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Once, the crown prince tagged along with his father to go on a field trip. He

saw farmers with barren shoulders toiling away under the hot sun, their bodies drenched with sweat. The oxen that were plowing the fields were constantly whipped by the farmers. As the soil was tilled, bugs were scrambling about, trying to escape becoming food for the birds, swallows and ducks that quickly flew overhead. As he witnessed this, the crown prince felt deep pity and compassion.

한번은 세자가 아버지인 왕을 따라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어깨가 메마른 농부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땀에 흠뻑 젖은 채 힘들게 일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밭을 가는 소에게 농부들은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흙이 갈리자 벌레들은 날아다니는 새, 제비, 오리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이를 목격한 세자는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Later, he went out on his own with his charioteer. He witnessed the suffering of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Each time, he became very distressed and quickly lost interest in enjoying himself and returned to the palace.

후에, 그는 마부와 함께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생노병사의 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매우 괴로워하며 즐거운 것에 이내 흥미를 잃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Since he no longer could find joy in his daily life, he made up his mind to leave the home life in order to find a way to end suffering.

그는 더 이상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끝내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He therefore stole away in the night and abandoned his royal position to become a sramana (left-home person). The father sent five people to pursue the prince to convince him to return. But they could not talk him out of his decision, so they themselves also left the home life to cultivate with him. They could not muster the courage to face the king without securing the prince's return.

그래서 그는 사문(출가자)이 되기 위해서 밤에 몰래 빠져나왔고,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자를 돌아오게끔 설득하기 위해서 다섯 명의 신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부처님의 결정을 바꾸게 할 수 없었고, 그들 스스로도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기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자를 돌아오게 하지 못한 채 왕을 마주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The prince went to two well-renowned Brahmins and bowed to them as teachers. He quickly surpassed them and yet realized that he still did not put an end to suffering.

왕자는 아주 잘 알려진 두 명의 브라만을 찾아가서, 스승으로 모시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두 스승을 금세 뛰어넘었지만, 여전히 괴로움을 끝내지 못했음을 알았습니다. His last resort was to undertake ascetic practices which were believed to be the ultimate way to attain liberation. He and his five attendants went to Snow Mountain where he stayed for six years. He ate one grain of sesame seed and one grain of wheat per day (一麻、一麥). He became just skin and bones. His five companions could not handle the hardship and deserted him.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믿는 금욕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와 다섯 명의 수행원은 설산에서 6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루에 참깨 1톨과 밀 1톨(一麻、一麥)만을 먹었습니다. 그의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그의 다섯 명의 도반은 이런 고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Realizing that ascetic practices were not the solution, the prince abandoned them. He then went to Magadha (摩竭陀國), chose a bodhi tree, used grass to fashion a mat to sit on, crossed his legs in full lotus and made this vow: If I don't accomplish the Way, I will not leave my seat even if my body breaks down (若不成道, 寧可碎身, 決不離座).

왕자는 금욕 수행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고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마갈타국摩竭陀國에 가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풀을 깔개로 삼아서 결가부좌하였습니다. 그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성도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若不成道, 寧可碎身, 決不離座).

On the 8th day of the twelfth lunar month, he saw a bright star and became enlightened. He realized that all living beings are endowed with the Buddha nature and can become Buddhas too. It's only because of attachments that they become confused and cannot realize their potential.

음력 12월 8일, 그는 밝은 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타고났으며,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생은 단지 집착 때문에 미혹하고, 잠재성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After the Buddha realized the unsurpassed right and proper enlightenment, he was requested to teach living beings how to end suffering and attain bliss.

He thus spent the remaining 50 years of his life to propagate the BuddhaDharma.

부처님은 무상정각無上正覺을 깨달은 후, 중생들이 고통을 끝내고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중생을 가르쳐 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0년의 여생동안 불법을 퍼뜨렸습니다.

Speak: with his own mouth. The Dharma was first transmitted by mouth and written down later.

설(說): 부처님의 입으로 직접 설합니다. 법은 먼저 입으로 전해졌고, 후에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Speak” also has two connotations: a) from Samadhi, thus others also share in bliss b) his purpose is to teach and transform living beings.

“설하다”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합니다. 1) 선정에서 설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안락을 나눕니다. 2) 그의 목적은 중생 교화입니다.

“Speak” is replete with: 4 eloquences and 8 sounds.

“설하다”는 사해팔성(4解8聲)을 구축합니다. (네 가지 재변과 여덟 가지 소리가 충만합니다)

8 Sounds: also known as eight kinds of pure sounds, eight kinds of Brahman sounds. The Buddha’s voice is very clear and refined; replete with eight virtues which are:

8聲: 8가지 청정한 소리, 8가지 브라만의 소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매우 분명하고 섬세합니다. 8덕을 구축합니다.

1) Extremely good-sounding (極好): of all living beings (humans, gods, bodhisattvas etc.), He is very pleasant to listen to, and people don’t get tired of hearing.

소리가 매우 좋음(극호極好). 인간, 신, 보살 등 일체 중생 가운데 소리가 매우 듣기 좋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듣기에 매우 좋고, 지겹지 않습니다.

2) Soft: (柔軟) his voice can subdue all living beings; generates joy in listeners (Buddha’s kindness) and makes them let go of their inflexibility and intransigence.

부드러움(유연柔軟): 그의 목소리는 모든 중생을 조복하고, 듣는 이를 즐겁게 합니다. (부처님의 자애) 경직과 비타협성을 내려놓게 합니다.

3) Suitable (和適): for each type of living being, time, and place are proper,

reflecting the Middle Way, facilitating the listener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알맞음(화적和適): 중생, 시간,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설합니다. 중도를 반영하고, 듣는 이가 이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Venerated & wise (尊慧): inspires respect (Buddha's virtues higher than the mountains) and imparts wisdom (Buddha's wisdom brightens up every place).

존경스럽고 현명함(존혜尊慧): 그의 설법은 공경심을 고취(부처님의 덕은 산보다 높습니다.)하고, 지혜를 나눕니다.(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곳을 밝힙니다.)

5) Not female (不女): awe-inspiring (can subdue the heavenly demons and externalists); masculine; listeners feel like taking refuge with and following.

나약하지 않음 (불녀不女):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천마와 외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남성적이고(용감하고), 듣는 이들이 귀의하고 따르게 합니다.

6) Not wrong (不謬): from beginning to end; it is very clear, and well enunciated; He speaks the truth and enables listeners to obtain the proper views.

틀리지 않음(불오不謬):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고, 듣는 이가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7) Profound & pervasive (深遠): in meaning. It can reach all places; not too loud when close, just right when heard from afar, enabling living beings to grasp profound principles.

뜻이 심오하고 원대함 (심원深遠):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고, 가까이 있을 때 너무 시끄럽지 않고, 멀리서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중생이 심오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8) Unending (不竭): in meaning and time; aiding the listeners to get enlightened, because his great vast vows are also unending in nature.

뜻과 시간이 끝이 없음(불갈不竭): 듣는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의 크고 방대한 서원은 본질적으로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When the Buddha speaks Dharma, it is for the express purpose of crossing over living beings when their good roots mature. He is also known as the Great Physician, dispensing medicine to cure (specific) diseases 應病與藥.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의 선근이 성숙할 때 그들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냅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로도 알려져 있고,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나눠줍니다. (應病與藥)

5 teaching periods: (19 years old: left-home, 29 years old: enlightened, 80 years old: entered Nirvana)

가르침의 다섯 시대 (오시교, 五時教): (부처님은 19세에 출가하여 29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열반에 들었습니다.)

1. Avatamsaka period: 21 days (Perfect teaching)

화엄시(華嚴時): 21일(원교)

2. Agama period: 12 years (Store teaching)

아함시(阿含時): 12년(장교)

3. Vaipulya period: 8 years (Connective teaching)

방등시 (方等時): 8년(통교)

4. Vajra period: 22 years (Separate teaching)

금강시(반야시般若時): 22년(별교)

5. Dharma Flower - Nirvana period: 8 years (Perfect teaching).

법화시(法華時) - 열반시: 8년(원교)

3 Accordances:

세 가지 상응

1. With words

문자에 따릅니다.

2. With the principles

교리에 따릅니다

3. With the meaning/intention

뜻/의도에 따릅니다

Sections: Aggregate meaning; Buddha's teachings anthology; clarify principles for disciples (among his existentialist disciples, there were 42 of them with various misunderstandings and doubt).

장章: 총체적 의미: 부처님 가르침의 문집. 제자들을 위해 이치를 명료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외도 제자들 중에는 여러 잘못된 이해와 의심을 가진 4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Sutra: From Sanskrit 修多羅; general name for Buddha's discourses. It was not translated because it carries several meanings:

경經: 산스크리트어의 용어로 수다라修多羅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지칭합니다. 수트라 즉 경전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서 번역하지 않습니다.

1) String together (結鬘): the principles in a most adorned fashion like a string of pearls; pearls symbolizing the principles.

마치 진주를 엮어 놓은 것 같이 가장 장엄한 방식으로 이치를 함께 연결합니다. (결만 結鬘). 여기서 진주는 이치(교리)를 상징합니다.

2) Produce (出生): Give rise to all kinds of good dharmas.

모든 종류의 선법을 낳습니다(출생 出生)

3) Gather in/attract (攝): Those ready to be taught and transformed.

교화될 준비가 된 자들을 모으고 끌어당깁니다(섭攝).

4) Constant (常): The principles contained are unchanging through time and space.

경에 담긴 이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상常)

5) Method (法): Of practice that helps us ascend.

우리를 상승시키는 수행의 방법입니다.(법法)

6) Bubbly spring (湧泉): Within the sutra there are limitless Dharma flavors, like a bubbly spring.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경전 안에는 법의 향이 무한합니다.(용천湧泉)

7) Carpenter's plumb line/marketing line (繩墨): To help make things straight and round; enabling us to differentiate between proper and deviant,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cause and effect and thus not commit offenses.

대상을 곧고 둥글게 만드는 목수의 먹줄, 표시줄입니다. (승묵繩墨). 바르고 샷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과의 이치를 이해해서 죄업을 짓지 않게 합니다.

8) Path (徑): From common mortal to sagehood and finally to Buddhahood.

평범한 인간에서 성자로 그리고 결국 불과까지 이르는 길입니다.(경徑).

9) Clarify (顯示): The enunciated principles, teaching us how to sever afflictions and certify to Bodhi.

명확한 원칙은 번뇌를 자르고 "보리(깨달음)"를 증득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현시(顯示 나타내 보임)

10) Door (門): Through which we can reach Buddhahood.

문을 통해 불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문(門))

11) Proper (正): Proper and bright, proper and not deviant, not one-sided or crooked.

바르고 밝습니다. 바르고 삳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있거나 굽지 않습니다.(정正)

Co-translated by Kashyapa-matanga and Gobharana of the Later Han Dynasty. 후한기의 가섭-마탕가와 고타라나가 함께 번역하였습니다.

First to be transmitted to China: During the Later Han Dynasty, the emperor sent 18 people to India, requested two venerable monks to come back, in 67 A.D. Many sutras were brought back on a white horse to LuòYáng 洛陽. The emperor built White Horse Monastery to do the translation. These two venerable Dharma Masters were from Central India and co-translated this sutra into Chinese.

처음으로 중국에 전해지다: 후한 말기(67 A.D.) 황제는 18인을 인도로 보내 두 스님에게 중국에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많은 경전을 백마에 싣고 요한洛陽으로 왔습니다. 황제는 이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백마사를 세웠습니다. 이 두 스님은 인도 중부에서 왔으며, 이 경전(사십이장경)을 한문으로 함께 번역하였습니다. Shakyamuni Buddha's appearance in our world was recorded in the Chinese historical records.

우리 세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은 중국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the Eastern Han (also known as Later Han Dynasty), during the third year of the Yong Ping reign period (“永平 Always Peaceful,” A.D. 62), Emperor Ming (明 帝) dreamt that a golden man with a halo above his head flew into the imperial palace. He consulted with his advisors.

동한(후한기), 영평永平기 3년(A.D. 62)에, 명황제明帝가 머리 위에 후광이 있는 금빛 남자가 황궁으로 날아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황제는 사신들과 이를 상의하였습니다. His astrologer (太史), Fu Yi (傅毅) told him that it was probably the Buddha, a holy sage in India. Furthermore, a scholar (博士) named Wang Zun (王尊) also told the Emperor of a book written in the Zhou (周) Dynasty called *Records of Strange Events* (異記).

그의 태사太史인 부의傅毅는 황제에게 아마도 인도에 계신 성스런 성자인 부처님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게다가 박사博士인 왕존王尊도 황제에게 주周시대에 쓰여진 책

“이기異記 즉 이상한 일들에 대한 기록異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t states that the Buddha was born in the Zhou Dynasty during the 26th year of the reign of King Zhao (昭王, approximately 1024 B.C.). At that time, the creeks and rivers overflowed their banks, the Earth quaked and a five-colored auspicious light pierced the heavens. A courtier then consulted(占卦) the Yi Jing (易經, the *Book of Changes*) and got the hexagram qian(乾卦九五), nine in fifth place: flying dragon in the heavens (飛龍在天). He therefore ascertained that a sage was born in India and transmitted a teaching that would come to China a thousand years later.

이 책에서 부처님은 주시대 조왕昭王 26년(약 1024 B.C.)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개울과 강이 범람하고, 땅이 흔들리고, 오색의 상서로운 빛이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한 신하가 역경易經()으로 점괘占卦를 보니, 건괘구오 乾卦九五였고, 하늘에는 용이 날았았습니다(비룡재천飛龍在天). 그래서 그는 한 현자가 인도에서 태어났고, 천년이 지난 후 중국으로 가르침이 전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King Zhao ordered the details of the event to be carved in stone and recorded. 소왕은 이 일의 자세한 내용을 돌에 새겨서 기록하라고 명했습니다.

Later in the Zhou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Mu (穆王, 1001-946 B.C.), a massive earthquake shook the Earth and heaven. A white rainbow with twelve rays could be seen extending across the sun, during the daytime. That corresponded to the time that Shakyamuni Buddha was about to enter Nirvana. This event was also confirmed by an astrologer of the time.

주시대 후기 목왕시대(穆王1001-946 B.C.)에 거대한 지진이 지상과과 천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낮에 태양을 가로질러 12개 광선의 하얀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려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일은 당시 점성가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A thousand years later, Emperor Ming of the Han Dynasty dreamt of the Buddha and sent three courtiers along with their assistants to India to seek the Buddhadharma. Three years later, they all came back with the two venerable elders from India. They used a white horse to carry their sutras. That’s when the Emperor built the White Horse Monastery.

천년 후 한나라 시대의 명제는 부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불법을 구하기 위해 3명의

신하와 수행원들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3년 후 인도에서 2명의 원로 스님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백마에 불경을 싣고 왔습니다. 그때 황제는 백마사를 세웠습니다.

Four years later, the Taoists of the Five Mountains (五嶽山) grew jealous of the thriving of Buddhism. They convinced the Emperor to hold a contest that consisted of putting the Taoist and Buddhist sutras into a pile and setting them on fire. Whichever books burned would belong to the false religion.

4년 후 오악산五嶽山 도교인들은 불교의 왕성한 성장에 대해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설득하여 도교와 불교 경전을 쌓아 놓고 불을 붙이는 시합을 열었습니다. 어떤 책이든 불에 타면 가짜 종교입니다.

The Taoists thus gathered in great numbers at the East gate of the White Horse Monastery. They came and showed off their spiritual powers. Some came riding the clouds and fog. Others sailed through the heavens and hid in the Earth. Some appeared and vanished into thin air at will. Just in case, they also prayed to their Lord, Ven. Lao Zi for assistance.

많은 도교인들이 백마사원의 동문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몇몇은 구름과 안개를 타고 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늘을 지나 땅으로 숨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뜻에 따라서 허공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성자인 노자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기도했습니다.

The Buddhists gathered at the West gate.

불교인들은 서문에 모였습니다.

When the fire was lit, the Taoist sutras burned into ashes whereas the Buddhist sutras did not. Instead they emitted a five-colored light that brilliantly shone over the world.

불이 붙었을 때, 도교 경전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지만, 불교 경전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교 경전은 오색의 빛을 내며,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Furthermore, the Taoists lost all of their spiritual powers. Those who came and showed off their spiritual penetrations no longer could. At that time, the two venerable Indian monks ascended into the sky and revealed the 18 spiritual transformations of the Arhats: they walked in space, lay down in space, and emitted fire and water from their bodies.

게다가 그 도교인은 모두 신통력을 잃었습니다. 거기 와서 신통을 보인 이들은 더이상

신통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인도의 두 스님은 하늘로 올라가 아라한의 18가지 영적 변신을 드러냈습니다. 허공에서 걷고, 눕고, 몸에서 불과 물을 내뿜었습니다.

As a result, many Taoist practitioners defected to Buddhism. The Emperor and many others became believers. That was how Buddhism got its start in China. This sutra played a critical role in its development.

결과적으로 많은 도교 수행자들은 불교에 패배했습니다. 황제와 많은 다른 이들은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경은 불교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In overview, The Sutra in 42 Sections includes all the Mahayana and Hinayana Dharmas, all the Three Vehicles' doctrines: the Sound-hearers, those Enlightened to Conditions, and Bodhisattvas. It also includes:

전반적으로 사십이장경은 모든 대승법과 소승법, 삼승(성문, 연각, 보살)의 교리를 아우릅니다. 또한 이 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s 1-3: the common Three Vehicles doctrines, practices and fruitions, with its main objective to end birth and death.

1장~3장: 생사를 끝내는 주요 목표와 일반적인 삼승의 교리, 수행과 과위.

Sections 4-8: transcendental good and evil causes and effects.

4장~8장: 출세간적 선악의 인과.

Sections 9-38: Mahayana uncommon superior practices, encompassed in the six paramitas and 10,000 practices.

9장~38장: 육도만행을 포함한 대승만의 수승한 수행

Sections 39-41: clarification of teachings (that we should have faith in), principles (that we should understand) and practices (that we should cultivate)

39장~41장: (믿음을 지녀야 할) 가르침, (이해해야 할) 교리, (행해야 할) 수행의 명료화

Section 42: The Buddha's wisdom illuminating all worldly and transcendental dharmas.

42장: 모든 세간과 출세간법을 비추는 부처님의 지혜

Some may wonder why this sutra has this exact number of sections, no more and no less. It has to do with the number of steps toward Buddhahood. In all there are 42: 10 dwellings, 10 practices, 10 transferences, 10 grounds, Equal Enlightenment and Wonderful Enlightenment.

Sutra in 42 Sections 사십이장경

일부 사람들은 사십이장경이 더 많거나 더 적지 않고 정확히 42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이는 불과를 향한 단계의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과 묘각으로 전체 42입니다.

Sutra text:

경전 원문

When the World Honored One had attained the Way, he thought, "To leave desire behind and to gain stillness and tranquility is supreme." He abided in deep meditative concentration and subdued every demon and externalist. In the Deer Park he turned the Dharma-wheel of the Four Noble Truths and took across Ajnata-Kaundinya and the other four disciples, who all realized the fruition of the Way. Then the Bhikshus expressed their doubts and asked the Buddha how to resolve them. The World Honored One taught and exhorted them, until one by one they awakened and gained enlightenment.

After that, they each put their palms together, respectfully gave their assent, and followed the Buddha's exhortations.

世尊 成道已 作是思惟 離欲寂靜 是最爲勝 住大禪定 降諸魔道

세존 성도이 작시사유 이욕적정 시최위승 주대선정 항제마도

於鹿野苑中 轉四諦法輪 度憍陳如等五人而證道果 復有比丘 所說諸疑 求佛進止

어녹야원중 전사제법륜 도교진여등오인이증도과 부유비구 소설제의 구불진지

世尊 教勅 ——開悟 合掌敬諾 而順尊勅

세존 교칙 일일개오 합장경락 이순존칙

세존께서 도를 이루셨을때 사유하시었다. 욕망을 떠나서 적정을 얻으면 최위승이라. 그러고는 큰 선정에 머무시어 모든 마와 외도를 제압했다. 그는 녹야원에서 사성제[四聖諦]의 법륜을 굴렸다. 교진여 등 다섯사람을 건너게하여, 능히 도과(道果)를 이루었다. 다시 비구들이 의심을표하고, 부처님께 나아가야 할 바와 그쳐야 할 바를 구했다. 세존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서 깨달음을 얻을때까지(開悟) 가르치고 꾸짖어주시니, 듣는 사람은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의 높은 훈계를 따랐다.

Sutra commentary:

주석

Each sutra's preface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6 realizations (六種證信):

각 경전의 서분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6종증신(六種證信)

1. Dharma (法體): The Four Noble Truths

법체法體: 사성제

2. Audience (能聞): Ajnata-Kaundinya and the others

청중(능문能聞): 안나콘단냐와 다른 이들

3. Time (機感): When He obtained the Way and saw that his disciples' good roots had matured

시간(기감機感): 부처님은 도를 얻었을 때, 제자들의 선근이 성숙했음을 보았습니다.

4. Speaker (教主): World-Honored-One

설법자(교주教主): 세존(부처님)

5. Place (處棲): Deer Park

장소(처나處棲): 녹야원

6. Faith (信): "Thus I have heard"

믿음(신信): "여시아문(그때 내가 들었다)"

When the World Honored One had attained the Way. "World-Honored-One": comes from the Sanskrit Baghavan 薄伽梵, one of ten titles of all the Buddhas. In this instance, the sutra is referring specifically to Shakyamuni Buddha, the teaching host of our world.

세존께서 도를 이루셨을 때. "세존"은 모든 부처님들의 열 가지 칭호 중 하나인 산스크리트어 바하반(한자표기: 박가범薄伽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불경의 경우 세존은 특히 이 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합니다.

"World" contains various (遷流) connotations, with both time and space aspects. Time wise, it refers to the three times: past, present and future. Space wise, it refers to the insentient world (器世間), sentient world (情世間) and enlightened world (覺世間). The insentient world consists of all things: mountains, rivers, trees. 'Sentient world' refers to all living beings of the four

births (born from egg卵, womb胎, moisture濕 and transformation化) with emotions (有情感): animals, humans, ghosts etc... And the enlightened world is that of the enlightened beings such the Arhats, PratyekaBuddhas, Bodhisattvas and Buddhas.

“세(世)”는 시간과 공간의 두 측면에서 다양한(천류遷流: 세월이 자꾸 바뀌어 흘러 감 함축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의미합니다. 공간은 기세간器世間, 정세간情世間과 각세간覺世間을 뜻합니다. 기세간은 산, 강, 나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정세간은 4생 즉 알, 자궁, 습기, 변화(태胎,란卵, 습濕, 화化)에서 태어난 감정을 지닌有情感 모든 중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축생, 인간, 귀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세간 즉 깨달음의 세계는 아라한, 벽지불(연각), 보살, 부처님들과 같은 깨달은 존재들의 세계입니다.

“Honored”: respected and admired in all the worlds (in all the ten directions, three periods of time and three spaces). His Way virtue, character, wisdom, kindness and compassion are unmatched.

“존(尊)”은 모든 세상 (시방삼세)에서 존경받음을 뜻합니다. 그의 덕성, 지혜, 자비는 견줄 수 없습니다.

“Attained the Way” “Attain” means to accomplish, to realize and to succeed. “The Way” refers to the Buddha Way. In other words, he has successfully completed, perfected the Buddhist practices. After learning the best of the worldly practices, he still did not attain liberation. Then, underneath a bodhi tree, he meditated and obtained great enlightenment.

“성도成道”. 성성이란 성취, 실현, 성공의 의미입니다. 도道는 부처님의 길을 뜻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는 불교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최고의 세간적 수행을 배운 후, 부처님은 여전히 해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What did he awaken to? He realized that all living beings are endowed with the Buddha nature. They can all become Buddhas if they can get rid of their attachments. Yes, it's that wonderful! We can ultimately become a Buddha once we purify ourselves of defilements. We should not settle for less!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자신의 집착을 없앨 수 있다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면 궁극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it's not the first time that Shakyamuni became enlightened. He already became a Buddha countless kalpas ago. Furthermore, in the Lotus Sutra "Thus Come One lifespan" chapter, during the time of Kashyapa Buddha 迦葉佛, when the lifespan was 20,000 years, he already was the incoming Buddha dwelling in the Tushita Heaven's inner court. He had to wait for our era to manifest becoming a Buddha.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업겁 전에 이미 부처가 되었습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에 이르길, 수명이 2만년인 가섭불迦葉佛 시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도솔천 내궁에 주하는 새로 오실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는 부처가 됨을 보이기 위해 우리 시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He thought. Buddhas do not "think" the way we do. Ordinary people "think" with their conscious mind, also called the sixth consciousness. This is done while we are not in samadhi. In contrast, Buddhas use their later gained wisdom (後得智) to think. This is done while he is in samadhi.

사유하시었다(作是思惟). 부처님들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의식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를 육식六識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정에 들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부처님들은 후득지後得智를 통해 생각합니다. 이는 선정에 들 때 이루어집니다.

"To leave desire behind and to gain stillness and tranquility is supreme."

"욕망을 떠나서 걱정을 얻으면 최위승이라 (離欲寂靜 是最爲勝)"

"Leave desire behind": Common sense shows that our human existence revolves around satisfying our desires. In particular, as residents of the Desire Realm we pursue five kinds of desires:

"욕망을 떠나다": 인간존재가 욕망의 충족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특히 욕계에 사는 우리는 오욕(다섯가지 욕망)을 좇습니다.

1. Fame: In the United States, people feel entitled to their "fifteen minutes of fame." In other words, who does not want to be noticed?

명예욕: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15분의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주목받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2. Food: The world seems to be struggling with obesity. We can't resist the

comfort foods.

식욕: 세상은 비만으로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편히 해주는 음식을 저항하기 힘듭니다.

3. Sleep: Not only is sleep necessary for our body to shut down and affect repairs, it can be quite pleasant because it gives us a break from the constant stress of our daily life.

수면욕: 수면은 우리 몸의 활동을 멈추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일상의 끊임없는 스트레스로부터 휴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즐겁습니다.

4. Sex: This is one of the best pleasures of life.

성욕: 삶의 최상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5. Wealth: Wealth is so important because that's how we tend to keep score. At the very least, wealth gives us a false sense of security.

재물욕: 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부로 우리는 거짓된 안전감을 갖습니다.

Desire is a normal part of life for ordinary people. However, enlightened beings know something we don't: they can "*leave desire behind.*" As long as we still have desires, our mind still moves: we get excited by externals. On the other hand, if we can "*see through it and put it down,*" we can be free from desires (e.g. our car gets nicked and yet we don't get upset), then we can "*gain stillness and tranquility.*" "*Stillness*" refers to the inside; "*tranquility*" refers to the outside. Inside our mind does not move; outside nothing can get us excited. This is called samadhi.

욕망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정상적인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존재는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그들은 "욕망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이 있는 한, 마음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외부요소에 의해 마음은 흥분합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을 투과해서 보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도난당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정寂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寂은 내면, 정靜은 외면을 뜻합니다. 마음속은 움직이지 않고, 밖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흥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마디 즉 선정이라고 합니다.

To be in samadhi is very blissful. It's often referred to as "Dhyana bliss." We use the term bliss to differentiate it from the "happiness" of worldly people.

선정 속에 있으면 매우 즐겁습니다(안락). 이를 흔히 “선락禪樂”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락樂”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Ordinary people pursue their desires and when their desires are fulfilled, they feel happy. However, that happiness has unfavorable residues. For example, enjoying sensual pleasures excessively makes us tired, worn-out and age prematurely. In contrast, samadhi bliss makes us feel better, more energized and can prolong our life.

보통 사람들은 욕망을 쫓고, 그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바람직하지 않은 잔여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각적인 쾌락을 심하게 즐기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더 빨리 노화됩니다. 반대로 선정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더욱 기분이 좋고, 기력이 생기며, 수명이 연장됩니다.

This is one thing that the Buddha realized; namely that cultivation brings about samadhi, which in turn gives us bliss. There is nothing better: it is “supreme.” Nothing is more rewarding or more worthwhile! In fact, if you cultivate samadhi power, the more samadhi power you have, the more blissful it can be. Sensual pleasures are so coarse compared to the higher samadhi’s bliss!

이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즉 수행은 사마디(선정)를 낳고, 사마디로 우리는 안락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를 “최위승最爲勝”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좋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선정력을 닦으면, 더 많은 선정력을 지니며, 더 많은 안락을 경험합니다. 감각적 쾌락은 더 높은 선정의 안락에 비하면 너무 거칩니다.

He abided in deep meditative concentration and subdued every demon and externalist.

그러고는 큰 선정에 머무시어 모든 마와 외도를 제압했다.

The Buddha is constantly in samadhi whereas we are in and out constantly. How come?

부처님은 늘 선정 속에 있는 반면 우리의 마음은 쉽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왜그럴까요? It takes a lot of blessings to be able to enter samadhi and experience its tremendous bliss. It is parallel to getting pleasure from buying an expensive sports car. When we are out of money, we have to get rid of that car because we can no longer afford it. Similarly, when our blessings run out, we have to

exit samadhi.

선정에 들어 그에 따른 많은 안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비싼 스포츠카를 사서 즐거움을 얻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차를 유지할 수 없어 차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복이 떨어지면, 선정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Unlike us, however, Buddhas have limitless blessings. That's why they are always in samadhi. It's not the common kind, but rather is a very "*deep meditative concentration.*"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부처님은 복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선정 속에 있습니다. 이 선정은 일반적인 선정이 아니라 아주 "깊은 명상의 집중 상태(대선정)"입니다.

Actually, a Buddha can enter many kinds of samadhi. For example, if He enters the "supreme Shurangama samadhi," the king of samadhis, he can "*subdue every demon and externalist.*" This Shurangama samadhi is invincible (against every opponent).

사실 부처님은 여러 종류의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선정의 왕인 "수능엄삼매"에 들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능엄삼매는 (모든 적군에 대해) 천하무적입니다.

"Subdue": To subdue as opposed to crush or to eliminate. To crush the opposition creates resentment. To eliminate them deepens their hatred: they'll come at us again with a vengeance! To subdue is to keep them under control, in check so that they behave themselves. They are not harmed and their hearts are conquered by virtue.

"항제降諸": 짓밟거나 제거하는 대신 조복합니다. 상대를 짓밟으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상대를 제거하면 미움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양값음을 하기 위해 다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조복은 이들 스스로 잘 행동할 수 있게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마음을 덕으로 정복합니다.

"Demon & externalist"

"마도魔道"

The word demon comes from the Sanskrit term Mara 魔羅, which has the connotations of obstructing 障礙, killing and harming 殺害, being deviant and evil 邪惡 and invading and robbing 侵奪. Demons are big trouble makers.

They have tremendous spiritual powers and worse yet, they intend to inflict harm upon us: they should be feared!

마魔 즉 마구니는 산스크리트어로 마라魔羅에서 유래되었으며, 장애障礙, 살해殺害, 사악邪惡(삿되고 악하다), 침투侵奪(침략하고 훔친다)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구니들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들은 엄청난神通력을 갖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치고자 합니다. 마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Externalists are non-Buddhist practitioners. They are called externalists because they search for answers outside the mind. In particular, they are confused about the principles, and very attached to spiritual powers. They often feel threatened by Buddhist practitioners and therefore often challenge and compete for followers.

외도는 비불교 수행자입니다. 이들을 외도라 하는 이유는 마음 밖에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진리에 대해 혼란스럽고,神通력에 매우 집착합니다. 이들은 보통 불교 수행자들에 의해 위협을 느껴 종종 도전하고, 신도를 두고 경쟁합니다.

In the Deer Park he turned the Dharma-wheel of the Four Noble Truths.

그는 녹야원에서 사성제[四聖諦]의 법륜을 굴렸다.

“Deer Park”: located in the country of Varanasi 波羅奈國. Many deer were freed in the park and multiplied. It was very secluded and quiet, perfect for cultivation. That was a popular spot where externalists gathered to cultivate, including the Buddha’s former five attendants. It was thus the very first location where the Buddha spoke Dharma.

“녹야원”은 파나라국波羅奈國(바라나시) 지역에 있습니다. 많은 사슴들이 그 공원에서 방목되었고 증식하였습니다. 그곳은 매우 외지고 조용해서, 수행하기에 완벽했습니다. 그곳은 외도들에게 인기있는 수행장소였습니다. 외도들 가운데에는 부처님을 예전에 모셨던 5명의 수행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첫번째 장소였습니다.

“Turned the Dharma Wheel”:

“법륜을 굴렸다”

The “Dharma Wheel” is the symbol of the BuddhaDharma: it carries several meanings.

“법륜”은 불법의 상징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Round exterior and spoke interior: Follow principles & practice jointly.
바퀴의 바깥 원과 안쪽의 살: 이치와 수행을 함께 따릅니다.

2) Round shape: There is no beginning or end, perfect from beginning to end.

둥근 모양: 시작이나 끝이 없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합니다.

3) Network of Buddhas and Bodhisattvas teaching throughout Dharma realm.

법계 전체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의 네트워크(그물망).

The phrase "turned the Dharma Wheel" means that the Buddha preached his sermon.

"법륜을 굴린다"는 구절은 부처님이 설법했음을 의미입니다.

"The Four Noble Truths."

"사성제[四聖諦]"

The four (unalterable) truths of: Suffering, Accumulation, Extinction and the Way.

네 가지 (바뀌지 않는) 진실은 고집멸도입니다.

Suffering is the worldly fruition 世間之果; pointing specifically to these Specific Buddhist states: The Triple Realm, the Six Paths, form (body), mind and Five Skandhas.

괴로움(苦)은 세간적 결실(세간지과世間之果)입니다. 이는 불교의 특정한 경계:삼계 三界, 육도六道, 색(몸), 심(마음), 오온五蘊을 지칭합니다.

Accumulation is the cause for the world 世間之因; referring to view and thought delusions/afflictions, with outflow, good and evil unmoving karmas 有漏善惡不動等業.

축적(집)은 이 세상의 원인입니다(세간지인世間之因). 견혹見惑과 사혹思惑을 뜻하며 유루이고, 선악의 부동不動의 업입니다.

Extinction is the transcendental fruition 出世之果; so called "because the cause is extinguished, the fruition is extinguished 因滅故果滅"; one thus obtains stillness, tranquility, unconditioned peace and bliss 無為安樂.

멸(소멸)은 출세간의 결실(출세지과出世之果)입니다. "원인이 멸하였기 때문에, 그 과도 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정과 무위안락無為安樂을 얻습니다.

The Way is the cause for transcendental liberation 出世之因; briefly, the three non-outflow studies of precepts, samadhi and wisdom; expanding: the ten paramitas and 10,000 practices.

도도는 출세간 해탈의 원인(출세지인出世之因)이 되며, 간략하게 말해서 계정혜의 세 가지 무루 학입니다. 이는 십도만행十度萬行으로 확장됩니다.

The Buddha had three turnings of the Dharma Wheel:

부처님은 세 가지 법륜을 굴리었습니다. *삼전법륜(三轉法輪)

1. "Revelation turning 示轉": He points out that we endure all sorts of suffering, the nature of which is oppressive. It's all self-inflicted, stemming from our own ignorance. Furthermore, there is the Way of practice that can liberate us and enable us to attain Nirvana. When Ven. Ajnata-Kaundinya heard this, he certified to Arhatship.

시전示轉: 부처님은 우리를 압박하는 온갖 괴로움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우리 자신의 무지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해방시키고 열반을 얻게 하는 도가 있습니다. 아야교진여는 이를 듣고 아라한을 증득하였습니다.

2. "Exhortation turning 勸轉": We should recognize ignorance as suffering; we should cut off our afflictions; we should realize Nirvana; we should cultivate the Way. Hearing this, two more of his former attendants, Ven. Asvajit 阿濕婆 and Badrika 跋提certified to Arhatship.

권전勸轉: 우리는 무명이 괴로움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번뇌를 끊고 열반을 깨달아야 합니다. 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듣고, 부처님의 예전 수행원 중 아습바와 발제는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3. "Certification turning 證轉": I've already certified to all the Four Truths. The last two former attendants, Ven. Kashyapa 迦葉 and Mahanama 拘利 certified to Arhatship.

증전證轉: 부처님은 이미 모든 사성제를 증득하였습니다. 예전 두 수행원인 가섭과 마하남은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습니다.

Suffering: can be defined as these eight states:

괴로움은 다음 여덟가지 경계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팔고八苦)

Sutra in 42 Sections 사십이장경

1. Birth	생고(生苦)
2. Aging	노고(老苦)
3. Sickness	병고(病苦)
4. Death	사고(死苦)
5. Being apart from loved ones	애별리고(愛別離苦): 사랑하는 사람과
6. Being near those who we detest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7. Not getting what one wants	원증회고(怨憎會苦): 미워하는 사람과
8. The raging blaze of the five skandhas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구부득고(求不得苦):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성음고(五盛陰苦): 오음(五陰)의 맹렬한 불길

The first four belong to body; the next three pertain to mind; the last one pertains to both. The first seven are result of past karmas; now we must undergo retribution; the last one is karma being created and causing future retributions; cause and effect follow each other ceaselessly.

첫 4가지 고는 몸에 속합니다. 다음 3가지 고는 마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고는 몸과 마음 모두에 해당합니다. 처음 7가지의 고는 과거의 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업보를 겪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의 고는 만들어진 업이고, 미래의 업보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인과)가 끊임없이 서로를 따릅니다.

Suffering can also be classified into five kinds:

괴로움은 다섯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From the body's perspective: Sickness, aging, death, hunger, thirst, fatigue, ugliness, paralysis, and other bodily problems.

몸의 관점에서: 질병, 노사,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못생김, 마비, 다른 신체적 문제들

2. From the mind's perspective: Greed, hatred, stupidity, arrogance, jealousy, enmity, worry, pity, fear and so forth.

마음의 관점에서: 탐욕, 혐오, 우치(어리석음), 교만, 질투, 증오, 걱정, 불쌍함, 공포 등

3. From the external world's perspective: Disasters may be associated with the four elements (floods, tornados, volcanoes, avalanches, corresponding to

water:, wind, fire, and Earth), or with beasts (such as poisonous snakes, tigers, and other beasts.)

외부 세상의 관점에서: 재앙은 네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수, 토네이도, 화산, 눈사태, 물, 바람, 불, 땅과 관련된 재앙, 짐승과 관련된 재앙(예를 들어 독사, 호랑이나 다른 짐승들)

4. From the human affairs' perspective: War, robbery, intimidation, insult, heartbreak etc.

인간사의 관점에서: 전쟁, 도적질, 협박, 모욕, 비통함 등

5. After death there is the suffering of possibly falling into the three evil paths. 사후 삼악도에 떨어지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Took across Ajnata-Kaundinya and the other four disciples, who all realized the fruition of the Way.

도교진여등오인이증도과 度橋陳如等五人而證道果

교진여등 다섯 사람을 건너게 하여, 능히 도과(道果)를 이루었다.

“*Took across*”: from the shore of afflictions across the sea of suffering to the other shore of Nirvana.

“건너게 하여”: 번뇌의 기슭에서 고택(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피안으로 갑니다

“*Ajnata-Kaundinya*”: This disciple was the first to awaken. In a past life Shakyamuni was a Patient Immortal, Ajnata-Kaundinya was King Kalinga 歌利王 who subjected Shakyamuni Buddha to dismemberment and torture. Instead of getting upset, the patient immortal remained unperturbed and made the vow to make sure to save the King first after he accomplishes the Way. Now the conditions have ripened and Shakyamuni Buddha spoke Dharma for Ajnata-Kaundinya who was the first to be awakened. He is thus the most senior-seated monk in the Buddha's disciples.

“교진여”. 이 제자는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불멸의 인욕 수행자였습니다. 그때 교진여는 칼리왕歌利王이었습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지를 자르고 고문했습니다. 불멸의 인욕 수행자는 화를 내는 대신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도를 이루면 그 왕부터 가장 먼저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조건이 무르익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교진여에게 법을 설하였고, 그는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원로 비구입니다

“And the other four disciples.”

“등 다섯 사람”

When the Pure Rice King discovered that his son the crown prince Siddhartha stole away to cultivate, he sent five of the Buddha’s cousins to pursue and talk the prince into coming back. Three of them Asvajit 阿濕婆, Badrika 跋提 and Mahanama 拘利 were from the King’s side. The other two, Ajnata-Kaundinya 憍陳如 and Kashyapa 迦葉, were from the queen mother’s side. They caught up with the prince but the prince made the vow not to return. That’s why they too accompanied the Buddha and cultivated alongside Him. When the Buddha was practicing the ascetic practices at Snow Mountain, two of them could not take the hardship and left. Later the remaining three left as well. All five went to the Deer Park to continue their cultivation.

정반왕은 그의 아들 싯다르타 세자가 수행을 위해서 몰래 떠난 것을 알고, 부처님의 다섯 사촌을 보내서 왕자를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 중 셋은 정반왕 쪽의 아습바阿濕婆, 발제跋提, 마하남拘利이었고, 나머지 둘은 왕비 즉 어머니 쪽인 교진여憍陳如와 가섭迦葉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자를 따라잡았지만, 세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부처님을 따라서 그의 곁에서 수행했습니다. 부처님이 설산에서 고행 수행을 할 때, 그 중 두 명은 고행을 견디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후에 나머지 세 명도 역시 떠났습니다. 다섯 명 모두는 수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녹야원으로 갔습니다.

After the Buddha became enlightened, he decided to come to the Deer Park to help his former attendants.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예전의 수행원들을 돕기 위해서 녹야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After hearing the Buddha’s first sermon, all five became awakened. They then vigorously cultivated under the Buddha’s guidance and all certified to Fourth Stage Arhatship: “the fruition of the Way.”

부처님의 첫번째 설교를 들은 후, 다섯 명 모두가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지도 하에서 열심히 정진하였고, 도의 결실인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Then the Bhikshus expressed their doubts and asked the Buddha how to resolve them.

다시 비구들이 의심을 표하고, 부처님께 나아가야 할 바와 그쳐야 할 바를 구했다.

(復有比丘 所說諸疑 求佛進止 부유비구 소설제의 구불진지)

The Buddha then allowed those former attendants to become the first five “*Bhikshus*” the first members of the Buddhist religious order (the Sangha).

그 후 부처님은 이 옛 수행원들이 첫번째 다섯 “비구”가 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들은 불교 종단승가의 첫번째 구성원들입니다.

Bhikshu 比丘: is Sanskrit for monk. It has three meanings:

비구는 산스크리트어로 승려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세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Destroyer of evil

악을 파괴하는 자

2. Frightener of Mara

마라왕을 두렵게 하는 자

3. Mendicant

걸식하는 자

Five kinds of terms not translated:

번역을 하지 않는 다섯 종류의 용어가 있습니다.(5종불번, 五種不翻)

1. Multiple meanings, 多含不翻 e.g. Bhikshu

다중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 다함불번(多含不翻) (예) 비구

2. Venerated words e.g. Baghavan

존경하는 단어 (예)바하반(한자표기: 박가범薄伽梵)

3. Things not found in this country

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것

1. Accord with ancient usage (e.g. Anuttara-samyak-sambodhi: saying it creates a lot of merit and virtue)

예전부터 사용한 것 (예)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많은 공덕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2. Secret meanings: e.g. mantras

비밀스런 의미: 예) 진언(만트라)

Later, the sangha welcomed more monks, totaling more than 1,200 of them who are constant companions of the Buddha. There were even more bhikshus who also came to study with the Buddha.

후에 승가에 더 많은 스님이 들어와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의 수만 총 1,200명 이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온 비구의 수는 심지어 더 많았습니다.

As they cultivated, they were unclear and “*expressed their doubts*” about some of the Buddha’s teachings.

이들은 수행하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부처님 가르침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의심을 표했습니다”

This is bound to happen because the teachings were dispensed for specific audiences or specific times of cultivation. For example, one of my students asked, “Two months ago, you told me to mind my business and not to try to help my daughters. Now you tell me to take on their problems. Why make the change now?” I said, “Two months ago, you had no samadhi power and yet you wanted to help. That was not advisable. Now that you’ve got a little bit of (mental) strength, you can help a little bit.” The advantage of having a live teacher is that he or she can help make the adjustments that are appropriate with the time and circumstances.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특정 청중이나 특정한 때에 설해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2개월 전 스님은 저에게 딸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제 일에만 신경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어째서 지금 바뀌었습니까?” 나는 말하길 “두달 전에 당신은 선정의 힘이 없었는데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건 권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에게 (정신적) 힘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울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스승은 때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he monks “*asked the Buddha how to resolve them.*” “Resolve” is translated from the Chinese 進止. Some meanings got lost in the translation.

비구들은 “부처님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풀다”는 진지 進止를 번역한 것입니다. *進止(진지): 전진(前進)과 정지(停止) 일부 뜻은 번역의 과정에서 유실되었습니다.

進 means to: 1. Progress (march forward) 2. Enter (the Dharma Door) 3. Strive forward (practice vigorously).

진(進)은 1. 진전 (앞으로 나아가다.) 2. (법의 문을) 들어가다. 3. 앞을 향해 나아가다. (정진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止 means to: 1. Stop (evil) 2. Prohibit (mistakes) 3. Safely dwell (reside).

지(止)는 1. 악을 그치다. 2. 잘못을 방지하다. 3. 안전하게 주하다를 뜻합니다.

Simply said, smart cultivators know when to proceed 進 further along the path and when to regress 止 and find a better route. Another possible combination amongst the many possibilities: Sometimes one should jump right into the midst of the enemy's camp whereas at other times one should wait until the storm blows over.

단순히 말해서, 영리한 수행자들은 길을 따라서 나아갈 進 때와 퇴보 止하여 다른 길을 찾아야 될 때를 압니다. 때로는 적진 가운데에 뛰어들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 다른 때에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The World Honored One taught and exhorted them, until one by one they awakened and gained enlightenment.

세존께서 한사람 한사람 깨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開悟) 가르치고 꾸짖어 주시니, (世尊 教勅 — 開悟 세존 교칙 일일개오)

The Buddha "taught and exhorted them." He gave them the appropriate instructions on how to resolve their problems. He exhorted them to put these instructions into practice.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적합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지침을 실행에 옮기게끔 훈계하였습니다.

Herein lies the process of cultivation: One receives transmission of a Dharma Door ("taught") and then one is then encouraged to execute the instructions ("exhorted"). In other words, make sure that you receive specific instructions from your Good Knowing Adviser before you start cultivating!

여기에 수행의 과정이 있습니다. 법문을 전해 받고("가르침 教"을 받고), 그 후 지침대로 실행하도록 권고 받습니다("훈계 勅"). 달리 말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하기 전 선지식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Until one by one they awakened and gained enlightenment." Until each and every one of them understands the principles. They all can understand what the Buddha taught them. This is a great advantage of learning under a Buddha: His instructions will bring us straight away to enlightenment.

"한사람 한사람 깨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開悟)" 그들 각각 모두 다 이치를

이해할 때까지. 그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밑에서 배우는 큰 이점입니다. 부처님의 지침들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곧바로 인도합니다.

After that, they each put their palms together,

듣는 사람은 합장하고 (合掌敬諾 합장경락)

Once the Bhikshunis clearly knew what to do, they indicated so by showing respect for the Buddha and gratitude for his instructions: “*they each put their palms together.*”

비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백히 알고 부처님께 공경과 그의 지침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합장했습니다”

They **respectfully gave their assent**, they promise to execute.

그들은 **공경하여**,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And followed the Buddha's exhortations. Remember the earlier section where “the World Honored One taught and exhorted them?” Now that they’ve been taught, they next follow the Buddha’s exhortations to cultivate. Many of them know by now that the Buddha’s instructions are like a compass needle: following in that direction without any deviation is the fastest way to the end goal.

그리고 **부처님의 높은 훈계를 따랐습니다.** 앞서 “세존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계(교칙)한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으니, 다음은 수행을 위해 부처님의 훈계를 따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제 부처님의 지침은 나침반의 바늘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방향을 따르는 것이 마지막 목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You have probably noticed that we have made some minor changes to the original BTTS translation in an attempt to adhere more closely to the meaning of the original Chinese text.

이 책의 영어 번역은 주로 BTTS (선화 상인이 세운 번역 기관)의 번역을 따랐지만 한문 원문의 의미를 잘 나타내기 위해 일부 수정했음을 알립니다.

Section 1:

LEAVING HOME AND BECOMING AN ARHAT

제1장.出家證果 (출가증과): 출가하여 아라한이 되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People who take leave of their families and go forth from the householder's life, who recognize their mind and penetrate to its origin, and who understand the unconditioned Dharma are called *Sramanas*. They constantly observe the 250 precepts, and they value purity in all that they do. By practicing the four true paths, they can become *Arhat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출가하여, 마음을 인식하고 그 근본을 통달하여, 무위법無爲法을 이해하면, 그 이름을 사문이라 부를 수 있다. 항상 250계를 행하고, 하는 모든 일에 청정에 머무르는데 힘쓰고, 네 가지 진실한 길(사성제)을 실천하면 아라한을 이룰 수 있다."

佛言 辭親出家 識心達本 解無爲法 名曰沙門
불언 사친출가 식심달본 해무위법 명왈사문
常行二百五十戒 進止清淨 爲四眞道行 成阿羅漢
상행이백오십계 진지청정 위사진도행 성아라한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is the first section of the *Sutra in Forty-two Sections*. It says that a Sramana can become an Arhat.

이는 사십이장경의 첫장입니다. 이장에서 사문은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typical Buddhist Sutra has 3 sections: preface, text proper and transmission/circulation. This was first devised by Great Master Dào An (道安) 일반적으로 불경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안道安대사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습니다.

This Sutra has only the first two.

이 불경에는 오직 두 부분(서분과 정종분)만 있습니다.

The first section talks about the fruitions of a sramana.

1장에서는 사문의 결실에 대해 논의합니다.

The Buddha said, "People who take leave of their families and go forth from the householder's lif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출가하여 (불언 사친출가 佛言 辭親出家),

"Family" represents what ties you (wife, children, money, girlfriend, car dogs...), whereas "leaving it behind" means detaching from all of these things.

This is the narrow scope of leaving home.

가족이란 여러분을 묶어 두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내, 자식, 돈, 여자친구, 자동차, 애완동물 등입니다. 반면에 "뒤에 두고 떠남"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의 집착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이는 출가의 좁은 영역입니다.

"Leaving Home" can mean leaving behind:

"출가"는 다음을 뒤로 하고 떠남을 뜻할 수 있습니다.

1. Our worldly home where emotions bind us.

세속의 집: 세속의 집에서는 감정이 우리를 묶습니다.

2. Our three realms where the force of reincarnation draws us.

삼계: 삼계의 윤회의 힘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3. Our afflictions (such as love and desire) which normal people accept as part of their existence.

번뇌 (예를 들어 애정과 욕망): 보통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존재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From a broader scope, we can think in terms of leaving and entering:

더 넓은 범위에서 떠나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Leaving Worldly home; entering the True Principles home (emptiness Dharma Door). The worldly home is bound by time (our lifespan is limited) and space (we are constrained by our physical limitations). The True Principles world is not bound in any way. We therefore go from the bounded

to the unbounded.

세속의 집을 떠나서, 진리의 집(공의 법문)에 들어갑니다. 세속의 집은 시간(수명에 한계가 있음)과 공간(우리는 물리적 제약을 받음)에 묶여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약받은 상태에서 제약받지 않은 상태로 갑니다.

2. Leaving five Skandhas home; entering the Dharma Body home. The five skandhas are form, feeling, thinking, activity and consciousness. They are the five different layers of confusion that are associated with our human body. They cause us to revolve in the Wheel of Reincarnation, migrating from body to body through the cycles of birth and death. In contrast, the Dharma Body is permanent and free from delusions. We therefore go from the impermanent to the permanent.

오온五蘊(또는 오음)의 집을 떠나서, 법신의 집에 들어갑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입니다. 이들은 다섯 개의 다른 층의 미혹함으로 인간의 몸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윤회하고, 생사의 굴레를 통해서 몸과 몸으로 이동합니다. 반면에 법신은 항상하고 망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상(無常, 일시적임)에서 유상(有常, 영구적임)으로 갑니다.

3. Leaving Afflictions (worldly) home; entering (transcendental) Wisdom home
Humans seem to be resigned to a life of afflictions. Their emotions fluctuate widely from displeasures and unhappiness to pleasure and joy. Life's ups and downs arise from the wide swings of our emotions. We can leave the home life to concentrate on transcendental pursuits so as to open our Prajna Wisdom and end afflictions.

번뇌(세속의) 집을 떠나서, 출세간 지혜의 집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고난의 삶에 체념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불쾌함과 불행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크게 요동칩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는 우리 감정의 큰 변동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출가해서 초월적인 일(출세간의 일)에 집중하여 반야 지혜를 열고 번뇌를 끝낼 수 있습니다.

4. Leaving Death home; entering the Non-Birth home. We thus come to have real control. Since the day we were born, we inexorably started the march toward our eventual demise. That is because what is produced or born must be destroyed or die. You can opt out of this production and destruction cycle

by cultivating the many Dharma Doors that can end birth and death. For example, the Pure Land Dharma Door is one of many such expedients enabling us to attain this.

죽음의 집을 떠나서, 불생의(태어남이 없는) 집에 들어가면 진정한 통제력을 지닙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래로 최후를 향해 가차없는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생하거나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멀하거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끝낼 수 있는 수많은 법의 문을 수행함으로써 생과 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토 법문은 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Traditionally, if the parents do not give their consent, then one cannot leave home (because after all, we owe our parents the gift of our own body!) This is why, the text says that one “takes leave of the family” which is translated from “say goodbye to relatives 辭親” in Chinese. It also symbolizes severing family ties.

전통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출가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부모님께 우리의 육신이라는 선물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문 경전에서 사친辭親을 “가족을 떠나(Take leave of the family)”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과의 연을 잘라버림辭親을 상징합니다.

Throughout the ages, cultivators found that in order to be able to give it a real good go, they’ve had to leave the home life. It pays to sever family ties because:

오랜 세월 동안, 수행자들은 수행을 진정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가해야만 함을 알았습니다. 가족간의 유대를 끊는 것이 특이 되는 이유는

1. One renounces deep emotional attachments: it’s very helpful because stirred up emotions cloud one’s judgment.

깊은 감정적 애착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격앙된 감정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2. One forsakes reliance on others. To obtain liberation requires learning to make do and do away with the unnecessary. It is much easier to make it without the help of the family and relatives.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과 친척의 도움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Furthermore, those **who recognize their mind and penetrate to its origin** see that all things arise from the mind. To “*recognize the mind*” is to understand that outside of the mind there is no dharma. In other words, the mind creates all dharmas: everything is created from the mind alone.

게다가, 마음을 인식하고 그 근본에 통달하는(식심달본識心達本) 자들은 만물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마음을 인식함”은 마음 밖에 어떤 법이(아무것도) 없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마음이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Penetrate to its origin.*” If the mind is the instigator, then we ought to know where it came from, we ought to know “its origin.” Originally, the mind is empty. The process of cultivation is to refine the mental process until one reaches emptiness. One can then understand that the nature of the mind is false.

“근본에 통달하다”. 만일 마음이 선동자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마음은 공합니다. 수행의 과정은 공에 도달할 때까지 정신적 과정을 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성품이 헛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Plainly put, cultivators uncover the secrets of the inner workings of the mind. They attain such understanding by refining their own mental processes instead of researching the books and engaging in intellectual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간단히 말해서, 수행자들은 마음의 내면 작용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이들은 책을 연구하고 지적인 논의나 토론에 참여하는 대신 자신의 정신적 작용을 정제하여 이러한 이해를 얻습니다.

“Mind” is often used interchangeably with “Nature” with in Buddhist texts.

불교 문헌에서 “마음”은 “성품性”과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There are two mental processes:

두 가지 정신적 작용이 있습니다.

1. Nature (Mind) everywhere calculating and attaching. This is the kind of mind that advertisers excel at exploiting. They like to expose us to their products and make our calculating mind determine the benefits and pleasure

that can be derived from them. Once started, we can't help but become attached and feel that we must "have" these products.

모든 것에 계산하고 집착하는 성품(마음). 이것은 바로 광고주들이 매우 잘 이용하는 마음입니다. 이들은 자기 제품을 우리에게 노출시키고, 우리의 계산적인 마음이 그 제품으로부터 얻는 이점과 즐거움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일단 시작되면 우린 어쩔 수 없이 이런 제품을 꼭 가져야겠다고 느끼고 집착하게 됩니다.

2. Nature (Mind) arising dependent on others. For example, we see a rope from a distance and mistake it for a snake. The thought of a snake only exists because of the presence or perception of a snake.

다른 이들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성품(마음). 예를 들어 우리가 멀리서 밧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합니다. 뱀에 대한 생각이 존재하는 이유는 뱀으로 지각했기 때문입니다.

Both types of mind are false and empty.

이 두가지 마음은 모두 거짓이고 공합니다.

And who understand the unconditioned Dharma.

무위법無爲法을 이해하면 (해무위법 解無爲法).

Enlightenment is the perfectly accomplished nature.

깨달음은 완전히 성취한 성품입니다.

A "conditioned dharma" is anything that relies on something else for its existence. For example, bread depends on flour, water, heat, labor, baking utensils and so on. Lacking any of those elements ("conditions") it cannot come into being.

"유위법有爲法"은 존재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은 밀가루, 물, 열, 노동력, 베이킹 도구 등에 의존합니다. 이런 요소("조건들") 중 어떤 것이든 부족하면 존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The "unconditioned dharma" is that which is not conditioned. It relies on nothing for its existence.

"무위법無爲法"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존재를 위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To "understand the unconditioned Dharma" is to awaken to non-duality, True Suchness, True Emptiness or Buddha Nature. It is to realize that True Suchness and all dharmas are not the same and not different (不一不異). That is to certify to the perfect attainment of the true nature (證圓成實性).

“무위법”을 이해하는 것은 무이법無二法, 진여眞如, 진공眞空 또는 불성佛性を 깨닫는 것입니다. 진여眞如와 일체법(一切法, 모든 것)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깨닫습니다不一不異. 이는 실성實性的 완전한 성취를 인증합니다證圓成實性. For those of you who are curious, you can discover the unconditioned by learning to not rely on your conscious (thinking) mind. Worldly people such as the great philosophers and scientists eventually run into a wall when they rely on their conscious mind.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은 의식적(생각하는) 마음에 의존하지 않음을 익히면 무위無爲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나 과학자와 같은 세속적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적 마음에 의지하면 결국 벽에 부딪힙니다.

Are called *Sramanas*.

그 이름을 사문이라 부를 수 있다. (명왈사문 名曰沙門)

If you can understand the unconditioned, then you can be called a sramana.

무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사문(스라마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fore Buddhism, all left-home people in India are called “*sramanas*,” which is Sanskrit for Diligently Extinguish (勤息). Sramanas diligently cultivate the three non-outflow studies of precepts (Buddhist rules of morality), samadhi (concentration) and wisdom (transcendental wisdom), and extinguish the three poisons of Greed, Anger and Stupidity.

불교 이전에 인도에서는 출가한 사람을 모두 “스라마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산스트리트어로 근식(勤息) 즉 부지런히 소멸시킴을 뜻합니다. 사문은 계(불교의 도덕 규칙), 정(집중) 혜(출세간 지혜) 의 삼무학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탐진치 삼독을 소멸합니다.

The Vinaya says that there are four kinds of sramanas:

비나야(계율)에서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사문에 대해 설명합니다.

1. Awesome comportment sramanas 威儀沙門 who strictly adhere to the precepts and awesome comportments, inspiring respect and admiration.

위의사문(威儀沙門)은 계율과 위의를 엄격히 고수하여, 공경과 찬탄을 불러일으킵니다.

2. Robe wearing sramanas 形服沙門 who don the left-home people’s garments but don’t measure up to the standard of left-home people (their

substance is really not that of left-home people).

형복사문(形服沙門)은 출가자의 옷은 입었지만 출가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의 체體는 진정한 출가자의 체가 아닙니다).

3. Famous sramanas 名聞沙門 who are well-known throughout the lands.

명문사문(名聞沙門)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4. True cultivator sramanas 實行沙門 who earnestly cultivate and consistently manifest both the appearance and substance of true left-home people.

실행사문(實行沙門)은 진실로 수행하고, 진정한 출가자의 모습과 체를 모두 항상 드러냅니다.

They constantly observe the 250 precepts.

항상 250계를 행하고 (상행이백오십계 常行二百五十戒),

They diligently cultivate morality. They start out by first studying the precepts. Traditionally, left-home people must spend the first five years after receiving full ordination to study the precepts. That's how we all learn how to "*observe the 250 precepts.*" The "250" number refers to the total of precepts for bhikshus (monks). The bhikshunis (nuns) have a total 348 precepts. The numeral is to designate the total number: left-home people are to observe all the precepts that were transmitted to them at full ordination.

이들은 도덕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먼저 계율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 출가자는 구족계를 받은 후 첫 5년간 계율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50계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250"이란 수는 비구가 지켜야 되는 총 계율의 수를 뜻합니다. 비구니는 총 348계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계율 수를 나타냅니다. 출가자는 구족계 수계식에서 전수받은 계율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Constantly*" observe means to not have a single infraction. When we have any infraction, then our precept substance is "damaged"; we therefore need to go through repentance procedures to restore it and make it whole again. This is the honest truth folks: we are not perfect and do make a lot of mistakes. It's about constantly trying to observe precepts!

"항상" 지킨다는 것은 단 하나의 계율도 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계율을 범하면, 계체가 "손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회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직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려고 늘 노력합니다.

I feel that precepts are about truthfulness: We must admit our mistakes and take corrective measures. Others may feel differently about precepts (e.g. feeling constrained by them or it's so easy to have infractions), but I feel that observing precepts makes us more honest. It's about honestly going about fixing our mistakes.

나는 계율은 진실함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계율에 대해서 다르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계율로 인해 속박을 느끼거나 범하기가 쉽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정직하게 해준다고 느낍니다. 이는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바로잡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And they value purity in all that they do. To observe precepts is to “stop doing any evil and do all kinds of good.” Precepts keep the stains, defilements away That's how left-home people maintain purity. The very lifestyle of left-home people is to maintain “*purity in all that they do.*”

하는 모든 일에 청정에 머무르는데 힘쓰고 (진지청정 進止淸淨). 계율을 지키는 것은 “악행을 멈추고, 온갖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율은 얼룩을 막고, 더럽혀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출가자가 청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출가자의 바로 그 생활방식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청정을 유지합니다.

Why do they “*value*” purity? Purity is virtue. They consider virtue as foremost. This is why we are “ranked” by precept age instead of oratory skills, fame, temple size etc. This can be observed at the temple: highest precept age Sanghans line up at the head of the lines.

어째서 그들은 청정을 가치있게 여길까요? 청정은 덕입니다. 그들은 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변, 명성, 절의 크기 등이 아닌 법납으로 “서열”을 매깁니다. 절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법납이 높은 스님이 줄의 맨 앞에 있습니다.

By practicing the four true paths, they can become *Arhats*.

네 가지 진실한 길(사성제)을 실천하면, 아라한을 이룰 수 있다 (위사진도행 爲四眞道行 성아라한 成阿羅漢).

By diligently “*practicing the four true paths,*” i.e. the Four Noble Truths (Truths of Suffering, Accumulation, Extinction and the Way), they diligently practice Wisdom. The Four Noble Truths is one Dharma for accomplishing the Fourth

Stage Arhatship.

사성제(고집멸도)를 부지런히 수행함으로써, 즉 그들은 부지런히 지혜를 수행합니다. 사성제는 아라한을 성취하기 위한 법입니다.

“Arhat”: has three meanings

아라한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Killer of thieves 殺賊. Thieves here refer to afflictions. They have no more afflictions.

도적을 죽이는 자殺賊: 도적은 번뇌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번뇌가 없습니다.

2. Worthy of offerings 應供. They deserve to receive offerings from humans and gods.

공양받아 마땅한 자應供: 그들은 신과 인간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Non-birth (share section) 不生. They no longer have to revolve in the Wheel of Reincarnation (undergo future births).

분단생사不生: 그들은 더 이상 윤회의 바퀴를 돌리지 않습니다.

They thus certify to the position of “Beyond Study 無學之果” (4th stage Arhat) versus “Having More to Study” (Second through Third Stage Arhats).

그들은 무학의 과 無學之果(아라한)의 지위를 증득합니다. 유학有學의 과는 사다함과 아나함입니다.

Sutra text:

경전 문헌:

“Arhats can fly and transform themselves. They have a life span of vast eons, and wherever they dwell they can move heaven and Earth.”

아라한이라는 것은 가고 오미 자유롭고 변화를 마음대로 하여[능히 날아다닐 수도 있고 때와 곳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영겁토록 목숨을 누리며 하늘과 땅에 잘 머무르고 하늘과 땅에 잘 움직인다.

阿羅漢者 能飛行變化 曠劫壽命 住動天地

아라한자 능비행변화 광겁수명 주동천지

Sutra commentary:

주석:

Arhats can fly and transform themselves: Notice the “*can*.” They can have a range of spiritual penetrations. They may have no spiritual powers at all: zero Or they may have a lot: six spiritual powers (“flying” is one of them) and 18 transformations (e.g. emitting water from lower body and fire from the upper body).

아라한이라는 것은 가고 오미 자유롭고 변화를 마음대로 하여: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神通력의 정도는 다양합니다.神通력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They have a life span of vast eons. Fourth Stage Arhats have mastered their own birth and death. They can live as long as they want. “*Eon*” refers to a long time. They can also die any time they wish.

영겁토록 목숨을 누리며: 아라한은 그들의 생사를 통달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겁은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And wherever they dwell they can move heaven and Earth: they are revered and protected by the spirits and gods. Their virtues are so lofty that they “*can move heaven*” (the gods) “*and Earth*” (spirits).

하늘과 땅에 잘 머무르고 하늘과 땅에 잘 움직인다: 그들은 신의 보호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의 덕은 숭고하여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Fourth Stage Arhats undergo no more birth (我身已盡): They certify to the truth of Suffering; their pure conduct already established (梵行已立). They certify to the Truth of Extinction; what must be done has already been done (所做已辦). They certify to the Truth of the Way; no longer undergo future existence (不受後有). They certify to the Truth of Accumulation.

아라한은 더 이상 생을 겪지 않습니다(我身已盡). 그들은 고제를 증득합니다. 그들은 이미 범행을 세웠습니다(梵行已立). 그들은 멸제를 증득합니다. 해야될 일은 이미 마쳤습니다(所做已辦). 그들은 도제를 증득합니다. 더 이상 미래에 존재하는 것을 겪지 않습니다(不受後有). 그들은 집제를 증득하였습니다.

They’ve obtained liberation (from suffering). In the Buddhist parlance, they’ve crossed over (from this shore of birth and death) to the other shore (of

Nirvana).

그들은 고통으로부터 해탈을 얻었습니다. 불교 용어로 그들은 (생사의 해안에서 열반의) 피안으로 건너갔습니다.

Sutra text:

경전 문헌:

"Prior to the Arhat is the *Anagamin*. At the end of his life, an Anagamin's vital spirit will rise above the nineteenth heaven, and he will become an Arhat."

다음은 아나함이 되는 것이니, 아나함은 목숨을 마치면 영신[靈神]이 19천[無想天]에 올라가 아라한의 길을 얻게 된다.

次爲阿那含 阿那含者 壽終 靈神 上十九天 證阿那含
차위아나함 아나함자 수종 영신 상십구천 증아나함

Sutra commentary:

주석:

Prior to the Arhat is the *Anagamin* 斯陀舍: Third Stage Arhats have cut off thought delusions in the Desire Realm. They are known as "non-returners 不還."

다음은 아나함斯陀舍이 되는 것이니, 아나함은 욕계에서 사혹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자不還로 알려졌습니다.

At the end of his life the Anagamin's Eighth Consciousness 阿賴耶識 (vital spirit靈神) will rise to the 20th heaven ("Heaven of No Afflictions 無煩天" at the top of the Five Heavens of No Return 五不還天/五淨居天 of the Form Realm), where they **become** Fourth Stage Arhats. They don't have to come back to the human realm to attain the fourth fruition.

목숨을 마치면: 아뢰야식阿賴耶識은 20천(색계의 오불환천五不還天/五淨居天 중 가장 높은 무번천無煩天)까지 오릅니다. 무번천에서 이들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들은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 인간계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Nineteenth heaven: One reaches this heaven after the six Desire heavens,

three 1st Dhyana heavens, three 2nd Dhyana heavens, three 3rd Dhyana heavens, four 4th Dhyana heavens, making a total of 19 heavens.

19천: 육육천 후에 이 천상에 도달합니다. (육육천: 3종류의 초선천, 3종류의 이선천, 4종류의 사선천으로 총 19천입니다.)

There is an enormous gap of wisdom between the Fourth Stage Arhat and Third Stage Arhat.

아라한과 아나함 간의 지혜의 차이는 큼니다.

Sutra text:

경전 문헌:

"Prior to the Anagamin is the *Sakridagamin*, who ascends once, returns once more, and thereafter becomes an Arhat.

다음은 사다함이 되는 것이니, 사다함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늘에 올라갔다 한 번 이 세상에 돌아와 아라한을 증득하게 된다.

次爲斯陀舍 斯陀舍者 一上一環 卽得阿羅漢
차위사다함 사다함자 일상일환 즉득아라한

Sutra commentary:

주석:

Prior to the Anagamin is the *Sakridagamin* 斯陀舍, who has severed the first six thought delusions in the Desire Realm, **who ascends once, returns once more**. They are also called "Once Returners 一來." They ascend to the heaven once 一上欲天, after which they return to the human realm **and thereafter becomes a Fourth stage Arhat**.

다음은 사다함스陀舍이 되는 것이니: 계의 6가지 사혹을 끊었습니다. 한 번 하늘에 올라갔다 한 번 이 세상에 돌아온다. 그들은 또한 한 번 돌아온 자(一來)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한 번 천상에 올라갑니다. 그 후 그들은 인간계로 돌아오고 아라한이 됩니다.

Thought delusions: When faced with a situation/state, one is confused about

the principles and gives rise to discrimination. There are 81 grades of thought delusions.

사혹: 상황/경계에 부딪칠 때 이치에 대해 미혹하고 분별을 일으킵니다. 81등급의 사혹이 있습니다.

Second and Third stage Arhats are also called positions “having more to study有學位.” First Stage Arhats are called “seeing the Way見道位.”

아나함과 사다함은 유학위有學位라고도 합니다. 수다원은 견도위見道位라고 합니다.

Sutra text:

경전 문헌:

Prior to the Sakridagamin is the *Srotaapanna*, who has seven deaths and seven births remaining, and then becomes an Arhat. Severing love and desire is like severing the four limbs; one never uses them again."

다음은 수다원이 되는 것이니, 수다원이라는 것은 일곱 번 태어나고 일곱 번 죽음을 반복하다 아라한의 길을 얻게 된다. 애욕이 끊어진 사람은[애욕을 한번 끊게 되면] 네 팔다리가 끊어진 것과 같이 다시는 그 애욕을 쓰지 않는다.

次爲須陀洹 須陀洹者 七死七生 便證阿羅漢

차위수다원 수다원자 칠사칠생 변증아라한

애욕斷者 如四肢斷 不復用之

애욕단자 여사지단 불부용지

Sutra commentary:

주석:

Prior to the Sakridagamin is the *Srotaapanna*須陀洹. “*Srotaapanna*” is Sanskrit for “entering the flow入流” or “opposing the flow.” They no longer fall into the three evil destinies.

다음은 수다원須陀洹이 되는 것이니, 수다원은 산스크리트어로 흐름에 든 자入流 혹은 흐름을 거스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Who has seven deaths and seven births remaining, and then becomes an

Arhat. They cut off all view delusions (view delusions are coarser than thought delusions, and give rise to greed and love in the face of externals; there are 88 grades of view delusions in all). First Stage Arhats are reborn to the Heavens seven times and the human realm seven times before becoming Fourth Stage Arhats.

일곱 번 태어나고 일곱 번 죽음을 반복하다 아라한의 길을 얻게 된다. 그들은 모든 견혹(견혹은 사혹보다 거칠고 외적인 것을 만나면 탐애를 일으킵니다. 총 88가지 등급의 사혹이 있습니다.) 수다원은 아라한이 되기 전에 천상과 인간계에 7번 태어납니다.

They use the 8 patiences 忍, 8 wisdoms 智, and the 16 non-outflow minds to cut off the Desire Realm's 88 view delusions.

그들은 8인忍, 8지智, 무루無漏의 16심心을 이용해서 욕계의 88견혹을 끊습니다.

Severing love and desire is like severing the four limbs; one never uses them again: One sees that view and thought delusions arise from love and desire. Once they are cut off, they are just as the Shurangama Sutra says: burning wood, once burned can't be reused. We are liberated!

애욕이 끊어진 사람은[애욕을 한번 끊게 되면] 네 팔다리가 끊어진 것과 같이 다시는 그 애욕을 쓰지 않는다. 견혹과 사혹이 애욕에서 일어남을 봅니다. 견혹과 사혹을 끊으면 능엄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불에 탄 나무와 같습니다. 불에 탄 나무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탈하였습니다!

There was a man who left the home life. Even after he became fully ordained, he would come back to his house to visit his wife and children, once a month. When his wife asked him why, he said, "I really love my life as a monk. However, I am also very attached to you and our children. You've always the anchor of my life and our years together were the happiest time of my life."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족계를 받은 후 아내와 아이들을 보러 한달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출가자로써의 삶을 좋아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에게 또한 애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의 삶에서 닳이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The following month, on the day that the monk said that he'd come for a visit, she dug up a big pit in front of at the gate to the house, filled it with sharp-edged stones and covered it up. The unsuspecting husband monk fell into it

and was almost killed.

다음 달에 어느날 스님이 집에 가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문 앞에 큰 구덩이를 파서 날카로운 돌을 가득 채우고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은 구덩이에 떨어졌고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He made it into his wife's house and said: "Did you know that there is a pit out there? It nearly killed me!"

그는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거기 구덩이가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거의 죽을뻔 했어요."

She replied: "Now that you know that coming home is truly that perilous, why do you insist on doing it?"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집에 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계속 집에 오나요?"

A light went on in the monk's brains. He took his leave from his wife and immediately returned to the monastery and never came back to visit his wife again. He cultivated very vigorously and ultimately certified to Arhatship.

스님의 뇌리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즉시 절로 돌아왔고 다시는 아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열심히 정진했고 결국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Left-home people, you've taken the vow to end love and sever family ties. Please stop relying on your family and relatives. If they wish to provide assistance to you, let it be in the form of an offering to the Triple Jewel, not a helping hand from your family member to their loved one.

출가자는 애를 끊고 가족의 끈을 끊겠다고 서원을 세웁니다. 가족과 친척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돕는 것이 아닌 삼보에 공양하는 방식으로 돕게 하세요.

Section 2:

ELIMINATING DESIRE AND ENDING SEEKING

제2장. 達理崇道 (달리숭도): 이치에 통달하고 도를 숭상한다
욕망을 제거하고, 구하는 것을 멈추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Those who have left the home-life and become Sramanas cut off desire, renounce love, and recognize the source of their minds. They penetrate the Buddha's profound principles and awaken to the unconditioned Dharma. Internally they have nothing to attain, and externally they seek nothing. They are not mentally bound to the Way, nor are they tied to karma. They are free of thought and action; they neither cultivate nor attain certification; they do not pass through the various stages, and yet they are highly revered. This is the meaning of the Wa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배우는 이는 욕심과 애착을 끊어 버리고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쳐야 할 것이니, 안으로 얻을 바가 없고, 밖으로 구할 바도 없으며, 마음이 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업에도 얽매이지 아니하여,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밝힐 것도 없어서, 모든 계단을 밟지 않고도 홀로 높고 청정한 것을 이르되 도라 하나니라.”

佛言: 出家沙門者, 斷欲去愛, 識自心源, 達佛深理,

불언: 출가사문자, 단욕거애, 식자심원, 달불심리,

悟無爲法, 內無所得, 外無所求, 心不繫道, 亦不結業,

오무위법, 내무소득, 외무소구, 심불계도, 역불결업,

無念無作, 非修非證, 不歷諸位, 而自崇最, 名之爲道.

무념무작, 비수비증, 불력제위, 이자승최, 명지위도.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details the wisdom of the Buddhist Sages (Arhats and above). The sagehood fruitions are different but the principles they realize are the same. How so? The difference is in the depth of their understanding.

이 장에서는 아라한 이상의 불교 성인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인의 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깨닫는 이치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단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The Buddha said, "Those who have left the home-life and become Sramanas cut off desire: Buddhist cultivation is essentially to lighten the load. Desire is to seek pleasure. The mind hopes and seeks for pleasure. Desires bog down one's practice. For instance, while sitting in Chan, thoughts arise as a result of desires and attachment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배우는 이는 욕심과 애착을 끊어 버리고: 불교 수행은 본질적으로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욕망은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마음은 즐거움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욕망은 수행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좌선 중에 일어나는 생각은 욕망과 집착의 결과입니다.

In the secular life, people are engaged in the pursuit of fulfilling their desires. In contrast, left-home people choose to do just the opposite: to lessen desires. One lessens desires by gradually cutting off desires for things that are not really need. For example, when I was a novice monk, I was helping a bhikshu fix something in the monastery. He was newly ordained. We lacked some tools and therefore we hopped on his car to go to the hardware store to buy them. He paid for them from his own money. When we came back, the head monk called us in and gave us a good scolding. He said that monks were not like lay people. We should not go out and buy things. We needed to learn to make do. Nor can we drop hints to the laity so that they "volunteer" to offer to buy them for us. I'm still very grateful for that lesson. To this date, I still try to follow that venerable monk's teaching: Do everything myself and learn to make do. That is to lessen desires.

세속적인 삶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출가자들은 그

반대로 욕망을 줄이고자 합니다. 진정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욕구를 점차 차단함으로써 욕망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미였을 때, 절에서 비구 스님을 도와서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갓 구족 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차를 타고 철물점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그것들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주지 스님이 우리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으며 스님들은 일반 신도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물건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재가자들에게 힌트를 주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계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교훈에 대해 매우 감사해 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여전히 그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욕망을 줄입니다.

Desire can be of three kinds:

욕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Good desires 善 欲: The desire for good things.

선욕善欲: 좋은 것에 대한 욕망

2. Evil desires 惡 欲: To have evil designs.

악욕惡欲: 악한 의도를 갖는 것

3. Neutral desires 無 記 欲: These are neither good nor bad, such as when we dream.

무기욕無記欲: 꿈을 꿀 때와 같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

They **renounce love**.

Why does the Buddha separate desire from "love?" Desire is a coarser form of love. Desires springs from love. Notice the progression here. We start with cutting off desires before we can get to the heart of it: love.

그들은 애착을 끊어 버립니다.

왜 부처님은 욕망을 사랑과 구별합니까? 욕망은 더 거친 사랑의 형태입니다. 욕망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진행 과정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욕망의 핵심: 사랑에 들기 전에 욕망을 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What is love? That is that bond between people. In particular, it refers to sexual desire and emotional love. Both are pretty sticky. Physical love drains

us while emotional love clouds our mind.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사이의 유대감입니다. 특히 그것은 성적 욕망과 정서적 사랑을 일컫습니다. 둘 다 매우 끈끈합니다. 육체적 사랑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정서적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What are we to do with love? It depends on who you are.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For ordinary folk, to love is to be human. To be loved and to be able to love are just our inherent rights. For many, the quest for love is equivalent to the quest for happiness. People are simply miserable when they lack love (whether they are willing to admit it or not!) In addition, sexual gratification is one of the most wonderful things in life!

보통 사람들에게 사랑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권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탐구는 행복에 대한 탐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할 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단순히 비참합니다. 게다가, 성적 만족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For left-home people, it's not the same. They understand that love is what binds people together and causes them to revolve in the sea of birth and death, ceaselessly. The only way to escape is to sever love. That's why left-home people choose to "*renounce love.*"

출가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사람을 같이 묶고 그들을 끊임없이 생사의 바다에 윤회하게 하는 원인임을 이해합니다.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은 사랑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사랑의 포기를 선택합니다.

They choose to renounce love for their spouse, children,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lovers, neighbors, everyone. They know that they are certainly entitled to love. Yet, it's better to cut it off because it gets in the way of cultivation. And even after they've become left-home people, they still need to continue to renounce all kinds of love until they obtain liberation.

그들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연인, 이웃,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확실히 사랑할 자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가한후에도, 그들은 해탈을 얻을 때까지 모든 종류의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However, do not think that we left-home people are weird and ignorant

because we renounce love. Trust me, left-home people learn to sacrifice small and selfish love for gigantic and generous love. We only renounce the small in order to seize the large.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포기한다고 해서 출가자들이 이상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출가자들은 거대하고 관대한 사랑을 위해 작고 이기적인 사랑을 희생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합니다.

And recognize the source of their minds: Once they are less confused by love, they begin to understand the workings of their minds. (心源: nature).

일단 그들이 사랑에 의해 덜 미혹해지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작용(심원心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Believe me, it's easier said than done.

나를 믿으세요. 말이 행보다 쉽습니다.

Before leaving the home life, we are used to thinking and scheming to get an edge. After we leave the home life, those habit energies are very hard to undo.

출가하기 전에, 우리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출가 후 그러한 습관 에너지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That's why our training program emphasizes work and study before doing Chan (meditation). Case in point, I started teaching a lay woman to do Chan. She's very smart and a devout Buddhist. She loves to volunteer and has been helping at temples for over a decade. She finally came to our temple and asked for help with her ailment. I taught her how to meditate and it went away after two months. That's how blessed and talented she was. Do you know what she thinks of Chan? She finds that sitting there and doing nothing is just so hard. She gets bored!

우리 훈련에서는 선(명상)을 하기 전에 일과 공부를 강조합니다. 한 좋은 예로, 나는 한 재가 여자 신도에게 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똑똑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녀는 자원봉사를 좋아해서 10년 넘게 절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우리 절에 와서 그녀의 병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쳤고 두 달 후에 병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복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해

합니다!

And that is part of the training. Patiently endure getting bored until you understand why you are bored. You patiently sit there and observe how your mind works: what makes it move.

그것은 훈련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왜 지겨운지 이해할 때까지 끈기있게 지겨움을 견디세요. 여러분은 인내심있게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관찰합니다. This is also called back-tracking. We observe how our mind moves. As long as we don't give up (e.g. out of "boredom"), we have the chance to trace it all the way back to the *"source of the mind."*

이를 역추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예: "지루함"에서)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근원"까지 추적할 기회가 있습니다. For those of you who are impatient and can't wait to know the source of the mind ... you'll have to wait. Because even if I tell you about it, it's only the source of my mind, it's not yours.

조급하고 마음의 근원을 알고자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기다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 말해도, 그것은 내 마음의 근원일 뿐,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You're still impatient? Can't wait?

아직도 조급한가요? 기다릴 수 없나요?

Ok, it's no secret: it came from True Emptiness.

좋습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마음은 진공에서 왔습니다.

Now that you know, you'll really have to cultivate to find out what it looks like. Believe me; it is well worth the effort! How do I know? I don't. I just believe in my teachers and the venerated sages. They all say so.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 정말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그것은 노력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단지 나의 스승들과 존경받는 현자들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They penetrate the Buddha's profound principles and awaken to the unconditioned Dharma: Buddhist teachings are very "profound." The more gongfu you have the more you'll penetrate the concepts and "principles."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쳐야 할 것이니: 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합니다." 여러분의 쿵푸가 더 높을수록 여러분은 개념과 "원칙"을 더 잘 꿰뚫을 것입니다. Someone asked Great Master XuanHua, "Why did the Buddha teach only Four Truths, not five?" He answered, "Because in the Four Noble Truths are contained the rest of the Mahayana teachings that he expounded later through the Lotus and Maha Nirvana sutras."

어떤 사람이 선화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부처님은 다섯 가지가 아닌 네 가지의 진리만 가르쳤습니까?" 그는 "왜냐하면 그가 후에 연화경과 마하 열반경을 통해 설명한 대승의 나머지 가르침이 사성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Bodhisattvas can readily explain Mahayana principles buried under the Hinayana teachings. That's why true Buddhists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Hinayana and Mahayana. There is only one Buddhism: One Vehicle.

보살들은 소승의 가르침 아래 묻힌 대승의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는 소승과 대승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불교, 일승 뿐입니다.

Sages "awaken" to the unconditioned ("dharmas"): they comprehend with their mind and experience it with their body. Notice that in section 1, the Buddha used the word "understand" (the unconditioned). Here he uses "awaken." To understand is with the conscious mind. To awaken is to realize with your true mind. If you want to know the difference, look it up in the Shurangama sutra.

현자들은 무위법에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경험합니다. 제1장에서 부처님은 "무위를 이해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깨어났다"를 사용합니다. 이해는 의식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각성은 진정한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능엄경을 살펴보세요.

What is the "unconditioned?" It means not created (from the mind) or acted (out with the mouth or body) 無造作. (Nor is it not created.) It is the opposite of "conditioned": It is created or acted on from causes and conditions.

"무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입으로 또는 몸으로) 작용하지 않음無造作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緣"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작용합니다.

What are conditions? They are aiding causes for the creation of something. For example, if the seeds are the (direct) causes for the growth of a tree, then the tree also requires aiding causes (conditions) such as water, fertilizer, weeding, sun and so on. Therefore, a tree is a conditioned dharma. It arises from conditions without which it would not come into being. We preserved the "acted" part of the original definition from the Chinese because it denotes another aspect of the conditioned, namely that of coming from our mind, being acted on by our mind. The more we investigate the BuddhaDharma, the more chances we will have to investigate this "acting" concept.

연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원인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나무의 (직접적인) 성장 원인인 경우, 나무는 또한 물, 비료, 김매기, 태양 등과 같은 돕는 원인 (연)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연법緣法입니다. 조건으로 생겨나고 조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의 또 다른 측면, 즉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의해 짓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이 "지음"의 개념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Conditioned dharmas are characterized by production and extinction (生滅), and change and transformation (變化). On the other hand, unconditioned dharmas are absolute (絕對) and permanently dwelling (常住).

유위법은 생멸生滅하고 변화變化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위법은 절대絕對적이며 항상 주합니다住常.

Simply put, everything that you can perceive with your sense organs is a conditioned dharma. Only our Buddha Nature is unconditioned.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유위법입니다. 오직 불성만이 무위입니다.

Ultimately, the goal is to free yourself from duality by awakening to the Unconditioned Dharma (which is not dependent on anything).

궁극적으로 목적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무위법에 깨어남으로써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Internally they have nothing to attain, and externally they seek nothing:

안으로 얻을 바가 없고, 밖으로 구할 바도 없으며

This refers to sages of the fourth fruition and higher. They enlighten to the emptiness of the self. If “*internally*” there is no self, who is there to attain? There is no one who can attain, internally.

이것은 아라한과 그 이상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아공을 깨달았습니다. 안에 상이 없으면 누가 과를 얻었습니까? 안에 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Externally, they can see that everything (all conditioned dharmas) are false. Everything will change and will be transformed (come into existence from nowhere). This is true wisdom: they can see through things and put them down.

외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모든 유위법)이 거짓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유가 생깁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들은 대상을 꿰뚫어 보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This is not that easy. When I explained about the self being empty, one of my engineer disciples jokingly commented, “I’m certainly willing to accept that I’m intrinsically empty and that my wife is too, as long as she still cooks for me.” In his case, the wife is empty but the delicious food she cooks is not. He is still “*seeking*” externally.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아가 공함에 대해 설명할 때 나의 엔지니어 제자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본래 공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요리를 해주는 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의 경우 아내는 공하지만 아내가 요리한 맛있는 음식은 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The Buddha fears that some advanced cultivators might misunderstand him. That’s why he quickly added, **They are not mentally bound to the Way.**

부처님은 단계가 높은 수행자가 잘못 이해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도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At a higher level, unlike the Arhats who still see there is a Nirvana that can be attained, Bodhisattvas understand that there is nothing that can be attained.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Arhats and Bodhisattvas. Arhats still seek Nirvana, Bodhisattvas do not.

아라한은 열반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높은 단계의 보살은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입니다. 아라한은 여전히 열반을 구하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Nor are they tied to karma:

또한 업에도 얽매이지 아니하여,

Karma is Sanskrit for action or creation 造作. It's anything created from our mind, body or mouth.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조작造作을 의미합니다. 신,구,의로 짓는 것입니다.

Wise people are not "*tied to karma*", with wisdom one has clarity of mind:

현명한 사람들은 업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명료합니다.

1. Not to create bad karma

악업을 짓지 않고

2. Not to be confused by karmic retributions.

업보에 의해 미혹하지 않습니다.

They are free of thought and action: Their conscious mind ceases to cause trouble. They no longer need to instigate "*thought and action.*" They have neither false thinking nor improper behavior. This is true wisdom.

생각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그들의 의식하는 마음은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망상도 하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They neither cultivate nor attain certification: They cultivate and yet it's as if they are not cultivating. For us, cultivation is so unnatural (as opposed to watching TV or gabbing with friends on the phone). For them, it's just being. Please do not think that they take it easy! They work very hard indeed (as compared to us) and yet they feel they are not working.

닦을 것도 없고, 밝힐 것도 없어서, 그들은 수행하지만 수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행은 TV를 보거나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과 달리 매우 자연스럽게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실제로 우리와 달리 매우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Ask them why they cultivate. They probably say that they don't know. Ask the Arhats why they cultivate, they will say it's because they want to certify to

Nirvana. Ask the Bodhisattvas why they cultivate, they'll tell you that they just do, without hoping to "attain" anything. They've awakened to True Emptiness. 그들에게 왜 수행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아마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라한에게 왜 수행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열반을 증득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보살에게 왜 수행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램없이 단지 할 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공을 깨달았습니다.

Lao Zi says: The Way, it cannot be left even for a moment. If it can be then it's not the Way 道也者, 不可以須臾離也, 可離非道也. Once you understand, you no longer discern between the Way and not the Way, between cultivation and non-cultivation. There is no more discrimination.

노자는 이르길 도는 한 순간도 여윌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면 더 이상 도와 도 아닌 것,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분별하지 않습니다.

They do not pass through the various stages (this refers to sudden enlightenment) **and yet they are highly revered.**

"Stages" refers to the various milestones from the position of common mortals to sagehood, passing through the first four dhyanas, the four samadhis, the four fruitions of the Arhat Vehicle, the 42 positions of the Bodhisattva Vehicle and so forth.

모든 계단을 밟지 않고도 홀로 높고 청정한 것을 이르되 계단은 일반 범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선, 사정, 아라한승의 사과, 보살승의 42위 등의 다양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Hinayana understands emptiness through the extinction of causes (the Four Noble Truths). Therefore these practitioners go "through the various stages" before they reach emptiness. But this emptiness is not yet True Emptiness. Those who have attained to the Middle Way no longer see stages that must be passed through to get to Buddhahood. That's why "they are highly revered" by the lower realms for their wisdom and virtue.

소승은 공을 원인의 소멸(사성제)을 통해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들은 공에 도달하기 전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 공은 아직 진공이 아닙니다. 충도를 얻은 자들은 불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되는 단계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 덕으로 낮은 계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습니다.

“Highly revered” is one possible translation of the original Chinese text “而自崇最.” Another possible translation is “naturally attain the highest fruition.” At their level, they naturally progress toward the Buddha fruition.

‘크게 존경받는다’를 또다르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과를 얻는다’입니다. 그들의 단계에서 그들은 불과를 향해 자연스럽게 진전합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Way. Such is the Dharma for attaining the Buddha Way. Please double check with this section again as you progress through your cultivation. It lists out very important milestones!

도라 하나니라.” 이런 것이 불도를 얻는 법입니다. 수행을 통해 진전하면 이 장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매우 중요한 단계를 제시합니다.

When I was still a lay person, I remember asking a left-home disciple of Great Master XuanHua what he did as a monk. He proudly said: “I eat, I sleep and I drink. That’s all I do.”

내가 재가자였을 때 나는 선화상인의 제자에게 스님으로써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먹고 자고 마셨어요. 그것이 내가 한 전부입니다.”

I was most intrigued because he was putting on such airs of great importance. And not surprisingly, his retinues appeared to be so obsequious and reverent toward him.

나는 그가 자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태도를 보여서 흥미로웠습니다. 놀랍지 않게, 그의 측근들은 그에게 매우 아첨하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Now as I look back, I probably should have replied to him, “And you should put an end to the self.” That’s why many of us choose to leave the home life. 되돌아보니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아상을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은 출가를 선택합니다.

Section 3:

SEVERING LOVE AND RENOUNCING GREED

제3장. 割愛知足(할애지족) 깨달음을 이루는 법
애정을 잘라내고, 탐욕을 포기하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Shaving their hair and beards, they become Sramanas who accept the Dharmas of the Way. They renounce worldly wealth and riches. In receiving alms, they accept only what's enough. They take only one meal a day at noon, pass the night beneath trees, and are careful not to seek more than that. Love and desire are what cause people to be stupid and dull."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사문이 되어 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속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남에게 얻어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의 식사를 하고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되 두 번 묶지 말라. 사람을 어리석고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은 집착과 탐욕이기 때문이다.

佛言：剃除鬚髮，而爲沙門，受道法者，去世資財，乞求取足，

불언：체제수발，이위사문，수도법자，거세자재，걸구취족，

日中一食，樹下一宿，慎勿再矣，使人愚蔽者，愛與欲也。

일중일식，수하일숙，신물재의，사인우폐자，애여욕야。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extols the ascetic practices that enable certification to the Way. It is intended to rule out laziness (since the prior section states that cultivators should be "Not doing, not certifying")

이 장에서는 도를 증득할 수 있는 고행 수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게으름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The Buddha said, "Shaving their hair and beards, cutting off attachment to appearances and looks. This saves a lot of money that we'd have to spend on barbers and hairdressers. At a more serious level, it can do away with a lot of afflictions associated with hair and beard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머리와 수염을 깎고 겉모습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끊습니다. 이로써 머리 손질에 사용되는 돈을 절약합니다. 더 깊은 단계에서 이는 머리와 수염에 대한 많은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다.

In the old days, there was a belief that hair and beards is God given or at least given to us by our parents. Therefore we should not touch them. Actually, they tend to make us vainer.

과거에 머리와 수염은 신이 내린 것 혹은 적어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실 머리는 허영심을 더욱 키우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y become Sramanas who accept the Dharmas of the Way: When "*they become sramanas,*" they take on a transcendental appearance and comportment. In receiving the "*Dharmas of the Way,*" they take on a new lifestyle. They are then motivated by the desire to put an end to birth and death. They are taught about the 37 wings of enlightenment that can help them accomplish the Way. The Buddhist Way is that of poverty. That's why the sramanas **renounce worldly wealth and riches** which make one tend to wish to hoard. They no longer seek for personal comfort and luxury. Left-home people should be careful not to take pride in the size of their temple, bank account or nice cars.

사문이 되어 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사문이 되면 출세간적 외모와 위의를 갖춥니다. 법도를 받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그들은 생사를 끝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수행합니다. 그들은 도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37조도에 대해 배웁니다. 불도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사문은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하는 **세속의 모든 재물을 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적 편안함과 사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출가자들은 절의 크기, 은행계좌, 좋은 차를 자랑스러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In receiving alms, they accept only what's enough to quell their hunger and nourish their body. Left-home people have alms bowl with specific sizes.

Traditionally, left-home people used to go on alms rounds to collect food offerings. They usually stop accepting food offerings when their alms bowl is full. They usually stop at seven consecutive houses for food offerings. If they receive none, they simply go back with their empty bowls. The smart ones will “accept only what’s enough” to get their fill.

남에게 얻어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들은 배고픔을 달래고 몸을 지탱할만큼만 받습니다. 출가자의 발우 크기는 정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출가자는 음식을 공양받기 위해 탁발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발우가 가득차면 탁발을 그칩니다. 그들은 대개 7집을 연속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공양받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빈 발우로 돌아옵니다. 영리한 자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얻어 먹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They take only one meal a day at noon.** The Buddha decreed that his left-home disciples should not eat past noon. They usually eat lunch, no dinner or breakfast. However, out of compassion, the Buddha later allowed his left-home disciples to eat breakfast too if they so choose to. These is because for some left-home people, eating one meal a day makes them look too emaciated and lose too much weight, potentially having adverse effects on their general health.

하루에 한 번의 식사를 하고 부처님은 출가제자들에게 정오가 지나면 먹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고 아침과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비롭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출가자들은 일종식을 하면 몸이 너무 마르고 체중이 줄어 건강에 나쁘기 때문입니다.

According to the Buddhist sutra (毗羅三昧經), a king asks the Buddha why he eats at noon. The Buddha replied that gods eat in the morning, the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eat at noon, animals eat in the afternoon and the ghosts and spirits eat in the evening. Therefore, left-home people eat at noon to plant the seeds for Buddhahood.

불경에 따르면 한 왕이 부처님에게 왜 정오에 공양하는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르길 신은 오전에 먹고 삼세부처님은 정오에 먹고 축생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저녁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출가자는 불도의 씨앗을 심기 위해 정오에 먹습니다.

The Vinaya describes the suffering of over-eating:

올에는 과식의 고통에 대해 기술합니다.

1. Having to go to the toilet often 大便數.

대변을 자주 봅니다.

2. Having to urinate often 小便數.

소변을 자주 봅니다.

3. Sleepiness 多睡.

잠을 많이 잡니다.

4. Excess weight causing myriad health problems 身重不堪修養.

과체중은 여러가지 건강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5. Many troubles and difficulties with the digestion 多患不消化.

소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t night, Sanghans used to **pass the night beneath trees**. This is one of the 12 ascetic practices. They used to live out in the open. They took shelter under trees, making sure not to linger more than two nights so as to avoid creating attachments/conditions.

스님들은 **나무 아래에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는 12가지 고행 수행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열린 공간에서 살곤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쉬었는데 한 나무 아래서 이틀밤 이상 머무르지 않음으로써 집착이 생기는 것을 피했습니다.

In the old (and glorious days), left people were known as:

과거에 출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알려졌습니다.

One bowl for 1,000 families' food, the solitary sanghan travels 10,000 miles — 鉢千家飯, 孤僧萬里遊. Meaning the left-home person uses only one bowl to beg from a thousand households and travels by himself ten thousand miles (actually it is Chinese li which is about thirteen US miles).

1000가족의 음식을 한 발우에 담고 스님은 혼자서 만리를 갑니다. 출가자는 한 발우로 1000가구에 걸식하면서 혼자서 만리를 다닙니다. (1리는 13마일 정도입니다.)

And are careful not to seek more than that.

다시 욕심을 부리지 말라.

The rule of thumb for left-home people is to “lessen desires and know

contentment.” We “are careful” to minimize our daily needs and learn to be content with just enough. We resist self-indulgence and avoid storing things because it feeds the greedy mind. That’s why left-home people were taught not to cook for themselves; they did not need to store things for the food preparations; leftovers are given to others or the animals.

대개 출가자는 욕망이 적고 만족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필요를 최소한하도록 하도록 주의하고 적당하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탐닉을 삼가고 물건을 저장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탐심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스스로를 위해서 요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물건들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음식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줍니다.

Why? Because **love and desire are what cause people to be stupid and dull.** It’s not unlike an old mirror. In order to restore its original brightness and clarity, one needs to clean and re-polish.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을 어리석고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은 집착과 탐욕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래된 거울과 같습니다. 원래의 밝음과 명료함을 복원하기 위해 닦고 광을 내어야 합니다 .

People keep asking about eating meat. Yes, the Buddha decreed that there are five kinds of meat that left-home people can eat. Five pure meats: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식에 대해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출가자들이 먹을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고기에 대해 명을 내렸습니다. 5가지 정육은

1. Not seen killed for me

자신을 위해서 도살되는 장면을 보지 않은 고기

2. Not heard killed for me

자신을 위해서 도살되는 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3. Not suspected killed for me

자신을 위해서 도살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고기

4. Natural death

자연사한 고기

5. Killed by predators

천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기

In this day and age, if you are a left-home person and still make excuses for eating meat and fish, perhaps from citing one of the above five reasons. These five types of pure meats simply are expedients that the Buddha used to allow us to cultivate. It is applicable for those who live on regions where it is not possible to do agriculture or plant things.

요즘 출가자들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위의 5가지 이유 중 하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정육은 단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재배할 수 없는 곳에 해당합니다.

For those proponents of eating meat and eggs, I have bad news for you: You are still so attached to flavor. How can you possibly get anywhere with your cultivation?

고기와 달걀을 먹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맛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에 진전이 있겠습니까?

Bon appétit!

맛있게 드세요!

Section 4:

CLARIFYING GOOD AND EVIL

제 4장. 止惡行善(지악선행) 열반을 성취하는 선한 행
선악을 명료히 하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Living beings may perform Ten Good Deeds or Ten Evil Deeds. What are the ten? Three are done with the body, four are done with the mouth, and three are done with the mind. The three done with the body are killing, stealing, and lust. The four done with the mouth are duplicity, harsh speech, lies, and frivolous speech. The three done with the mind are jealousy, hatred, and stupidity. Thus these ten are not in accord with the Way of Sages and are called the Ten Evil Deeds. To put a stop to these evils is to perform the Ten Good Deed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중생은 열 가지 계문을 지킴으로써 선을 삼고, 또한 열 가지 계문을 범함으로써 악을 삼나니, 무엇이 열 가지냐 하면 몸으로 셋이요, 입으로 넷이요, 뜻으로 셋이라. 몸으로 셋이라 함은 살생, 도적, 간음이요. 입으로 넷이라 함은 망어(妄語, 망념된 말), 기어(綺語, 거짓말), 양설(兩舌, 이간질), 악구(惡口, 악한 말)요. 뜻으로 셋이라 함은 탐심(탐욕), 진심(성냄), 치심(어리석음)이니, 이 계문을 범하여 도를 거스린 사람을 십악을 행한다 이르고, 이 계문을 지켜서 도를 순하게 받은 이를 십선을 행한다 이름 하나니라.”

佛言：衆生以十事爲善，亦以十事爲惡，何等爲十。

불언：중생이십사위선, 역이십사위악, 하등위십.

身三口四意三. 身三者；殺盜淫, 口四者；兩舌惡口妄言綺語,

신삼구사의삼. 신삼자；살도음, 구사자；양설악구망언기어,

意三者；嫉恚癡. 如是十事, 不順聖道, 名十惡行,

의삼자；질에치. 여시십사, 불순성도, 명십악행,

是惡若止, 名十善行耳.

시악약지, 명십선행이.

Sutra commentary:

주석:

Good and evil have no fixed nature: they are defined relative to each other, like flipping one's hand. Be careful not to think it's OK to create offenses because one should be "not attached to karma" (in prior section). Karmas can be the causes for the attaining of the Way or for us to revolve in the Reincarnation Wheel.

선악은 고정된 성질이 없습니다. 그들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서로 상대적입니다. 앞장에서 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을 짓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업은 도를 얻거나 윤회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The Buddha said, "Living beings may perform Ten Good Deeds or Ten Evil Deeds with their **body (three), **mouth** (four) and **mind** (three). These deeds are the seeds for reincarnations, making us revolve in the Wheel.**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중생은 열 가지 계문을 지킴으로써 선을 삼고, 또한 열 가지 계문을 범함으로써 악을 삼나니, 무엇이 열 가지나 하면 몸으로 셋이요, 입으로 넷이요, 뜻으로 셋이라. 이들은 윤회의 씨앗으로 윤회의 바퀴를 돌리게 합니다.

"Living beings": The term has multiple meanings:

중생이란 단어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Born from the multitudes of dharmas 衆法生. We are the aggregation of past causes so that now our body will undergo our retribution whether good or bad.

여러가지 법에서 생했습니다.衆法生 우리는 과거 원인이 모인 것으로 우리의 몸은 좋거나 나쁜 보를 겪습니다.

2. Born from the multitude of species 衆類生. We cycle through the six (common mortal) realms of existence from the hells to the heavens.

여러가지 종류에서 생했습니다.衆類生 우리는 지옥에서 천상까지 여섯가지(범부의) 존재의 계를 순회합니다.

3. Undergo the multitude of births and deaths 受衆多生死. We are called living beings because we can't escape revolving in the Wheel.

여러가지 생사를 겪습니다.受衆多生死 우리는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Body karmas”are:

“신업”은

Killing: take another living being’s life.

살생(殺生): 다른 중생의 생명을 취합니다.

Stealing: take what is not given.

도적(盜賊): 주지 않은 것을 취합니다.

Lust: deviant sex:

간음(姦淫): 사된 관계

1. With wrong partner.

잘못된 파트너

2. Wrong process: a. time (e.g. daytime, when sick), b. wrong place (outside of bedroom), c. wrong orifice, d. wrong frequency.

잘못된 방식: a. 때(예를 들어 낮이나 아플 때), b. 잘못된 장소 (침실 밖), c. 잘못된 기관, d. 잘못된 횟수

“Mouth karmas”:

“구업”:

Duplicity: misrepresent the facts to two parties with the intention to cause them to fight each other.

양설(兩舌): 두 사람간에 싸움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잘못된 사실을 말합니다.

Harsh speech: cursing, scolding, slander etc.

악구(惡口): 욕하고 꾸짖고 비방합니다.

Lies: The mouth and mind are in contradiction. You say something that you clearly know that is untrue.

망어(妄語): 입과 마음이 상충됩니다.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말합니다.

Frivolous speech: To use unprincipled or unnecessary words e.g. sophistry.

기어(綺語): 원칙이 없거나 불필요한 말을 합니다. 예) 궤변

“Mind karmas”:

“의업”:

Jealousy: To dislike other’s good fortune or good things, invoking unwholesome retributions.

질투: 다른 사람의 행운과 좋은 것을 싫어하는 것은 해로운 보를 일으킵니다.

Hatred: To harbor rancor or weave up anger. It’s like a fire that can harm others.

미움: 화를 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불과 같습니다.

Stupidity: To not be aware of, or to not understand manifestations or principles as if blind. For example, they take suffering as bliss.

우치: 눈 먼 사람처럼 이리와 사事を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안락으로 여깁니다.

The seven body and mouth karmas belong to offenses creation. The three mind karmas belong to afflictions.

7가지 신구업은 잘못에 속합니다. 3가지 의업은 번뇌에 속합니다.

Thus these ten are not in accord with the Way of Sages and are called the Ten Evil Deeds. The above-mentioned “*ten evil deeds*” cause one to fall, and are thus “*not in accord with the Way of Sages.*” Sages do not approve of these actions because they are done from delusions. They will surely bring on future retributions of suffering and bind us to the Triple Realm.

이 계문을 범하여 도를 거스린 사람을 십악을 행한다 이름하고, 위에서 언급한 10악행은 낮은 계로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성인의 도에 상응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이 행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혹에 의해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미래에 고통의 보를 야기하고 우리가 삼계에 매이게 합니다.

To put a stop to these evils is to perform the Ten Good Deeds. To be good is to do no evil. In other words, the absence of malice is goodness. To act in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s is to do evil.

이 계문을 지켜서 도를 순하게 받은 이를 십선을 행한다 이름 하나니라. 선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악함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이에 어긋나는 행은 악행입니다.

At the phenomenon (manifestation) level:

사事의 단계:

1. Lower grade goodness: cause for asura realm,
하급선: 아수라계의 원인입니다.
2. Middle grade goodness: cause for human realm,
중급선: 인간계의 원인입니다.
3. Superior grade goodness: cause for god realm.
상급선: 천계의 원인입니다.

At the noumenon (principle) level:

이理의 단계:

1. Emptiness Truth goodness: cause for Two Vehicles,
공제선: 이승의 원인입니다.
2. Mundane Truth goodness: cause for Bodhisattva Vehicle,
속제선: 보살승의 원인입니다.
3. Middle Truth goodness: cause for Buddha Vehicle.
중제선: 불승의 원인입니다.

Flower Store (World) Retribution 화장계보	Fruition Retribution 과보
1. NO KILLING 불살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ill give universally to all beings without fear 1 두려움없이 모든 중생에게 널리 베풁니다. 2. Often have compassionate thoughts towards all beings 2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생각을 가집니다. 3. Permanently sever all anger habits 3 모든 화의 습관을 영원히 끊습니다. 4. Free from illness 4 질병에서 벗어납니다. 5. Longevity 	<p>Attain the Buddha's as-one-wishes, self-mastery and lifespan 부처님의 여의, 자재와 수명을 얻습니다.</p>

<p>5 장수합니다. 6. Constantly protected by non-humans 6 항상 비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7. Free from nightmares 7 악몽에서 자유롭습니다. 8. Will eradicate the entanglement of enmity and free from all hatred 8 원수의 맺을 근절하고 모든 악에서 자유롭습니다. 9. Free from the dreaded evil destined 9 두려운 악한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10. Reborn to the heavens after death 10 사후 천상에 태어납니다.</p>	
---	--

2. NO STEALING 불투도

<p>1. Will accumulate wealth 1 재물을 축적합니다. 2. Many love and be mindful of 2 사랑이 많고 념을 합니다. 3. Humans will not slight 3 인간이 경시하지 않습니다. 4. Be praised from the ten directions 4 시방의 찬탄을 받습니다. 5. Free from worries of being injured 5 상해의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6. One's good name widespread 6 명성이 퍼집니다. 7. Fearless in the multitudes 7 여러가지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8. Wealthy, have good complexion, safety & bliss 8 부유하고 안색이 좋으며 안전하고</p>	<p>Attain the pure great wisdom. 청정한 대지혜를 얻습니다.</p>
--	--

<p>안락합니다.</p> <p>9. Always mindful of giving 9 항상 보시를 염두에 둡니다.</p> <p>10. Reborn to the heaven after death 10 사후에 천상에 태어납니다.</p>	
--	--

3. NO SEXUAL MISCONDUCT 불사음

<p>1. One's faculties are all regulated and well-adjusted. 1 기관이 잘 제어되고 조정됩니다.</p> <p>2. Free from turmoil and excitement 2 혼란과 흥분이 없습니다.</p> <p>3. Be praised and extolled by the world 3 세상의 찬탄과 칭송을 받습니다.</p> <p>4. One's wife cannot be encroached upon by anybody 4 아내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p>	<p>Attain the Buddha's hallmark of a concealed organ. 부처님의 상호나 숨겨진 장기를 얻습니다.</p>
--	--

4. NO LYING 불망어

<p>1. One's mouth is always purified and fragrant 1 입이 항상 청정하고 향내가 납니다.</p> <p>2. Trusted and obeyed by the world 2 세상이 믿고 따릅니다.</p> <p>3. One's words are always sincere and certified 3 말이 항상 진실하고 인증 받습니다.</p> <p>4. Always comfort beings with loving words 4 사랑스러운 말로 항상 존재들을 편안하게 합니다.</p> <p>5. Mind will obtain superior bliss 5 마음이 수승한 복을 얻습니다.</p>	<p>Attain to the true speech of the Tathagata 여래의 진실한 말을 얻습니다.</p>
---	--

<p>6. Faultless and always joyful 6 허물이 없고 항상 즐겁습니다.</p> <p>7. Respected and venerated by humans and gods 7 인간과 신의 존중을 받습니다.</p> <p>8. Superior wisdom 8 지혜가 수승합니다.</p>	
---	--

5. NO DOUBLE-TONGUE 불양설

<p>1. Free from bodily harm 1 신체적 상해에서 벗어납니다.</p> <p>2. Retinues cannot be broken 2 권속이 깨지지 않습니다.</p> <p>3. Always being trusted and accorded with 3 항상 신뢰를 얻고 상응합니다.</p> <p>4. Able to practice the Dharma 4 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p> <p>5. Able to meet Good Knowing Advisor 5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p>	<p>Demons and externalists will not harm, Bodhi retinues 마와 외도들이 해를 끼치지 않고 보리의 권속이 됩니다.</p>
--	---

6. NO HARSH SPEECH 불악구

<p>1. One's words will always be proper 1 그의 말은 항상 올바릅니다.</p> <p>2. One's words will be beneficial 2 그의 말은 이롭습니다.</p> <p>3. One's words will accord with the principles 3 그의 말은 이치에 상응합니다.</p> <p>4. One's words will be beautiful and wonderful 4 그의 말은 아름답고 좋습니다.</p> <p>5. One's words will be accepted by others</p>	<p>Attain the Brahma's sound of the Tathagata 여래의 브라만의 소리를 얻습니다.</p>
--	--

<p>5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6. One's words will be credible 6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7. One's words will not be ridiculed 7 그의 말은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8. One's words will be cherished and loved by others 8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좋아합니다.</p>	
<p>7. NO FRIVOLOUS SPEECH 불기어</p>	
<p>1. Will be loved and respected by the wise 1 현자들이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2. Be able to answer questions truthfully 2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3. Unsurpassed virtue 3 위없는 덕을 갖추니다.</p>	<p>Attain the Buddhas' prediction and nothing is ever in vain 부처님의 예지력을 갖추고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p>
<p>8. NO GREED & JEALOUSY 불탐</p>	
<p>1. Self-mastery of the three karmas and faculties are perfect. 1 삼업에 자재하고 근이 완전합니다. 2. At ease with material possessions, enemies and thieves cannot encroach 2 물질적 소유가 편안하고 도둑이 침입하지 못합니다. 3. At ease with blessings and merits 3 복과 공이 편안합니다. 4. At ease with position or status 4 지위에 편안합니다. 5. Will have more than one seeks 5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갖습니다.</p>	<p>Will be respected and venerated by worthy beings in all three realms 모든 삼계의 현인들이 존중합니다.</p>

9. NO HATRED & ANGER 부진

<p>1. No harmful and angry mind 1 해치거나 화나는 마음이 없습니다.</p> <p>2. No hatred 2 증오가 없습니다.</p> <p>3. No desire to fight and sue 3 싸우거나 소송을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p> <p>4 Character is direct, gentle and harmonious 4 성품이 곧고 부드럽고 조화롭습니다.</p> <p>5. Obtain the sages' mind of kindness 5 성인의 친절한 마음을 얻습니다.</p> <p>6. Mindful of benefiting all beings 6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데 전념합니다.</p> <p>7. One's appearance will be upright and adorned 7 외모가 곧고 장엄합니다.</p> <p>8. Soon be reborn to the Brahma World 8 브라마 세계에 태어납니다.</p>	<p>Will never be disliked when seen 사람들이 보고 싫어하지 않습니다.</p>
---	--

10. NO DEVIANT VIEWS 불사견

<p>1. Will attain true goodness and bliss 1 진정한 선과 안락을 얻습니다.</p> <p>2. Will deeply believe in cause and effect 2 인과를 깊이 믿습니다.</p> <p>3. Will take refuge with the Triple Jewels 3 삼보에 귀의합니다.</p> <p>4. Will have a straight mind and the proper views</p>	<p>Obtain spiritual powers and self-mastery 신력과 자재를 얻습니다.</p>
---	---

<p>4 곧은 마음과 정견을 갖춥니다.</p> <p>5. Will often be reborn as humans or gods</p> <p>5 인간이나 신으로 태어납니다.</p> <p>6. Blessings and wisdom increase and superior</p> <p>6 복혜가 증강하고 수승합니다.</p> <p>7. Will often leave the deviant paths</p> <p>7 삿된 길을 떠납니다.</p> <p>8. View of body will not arise</p> <p>8 신견에서 벗어납니다.</p> <p>9. Will abide in unobstructed views</p> <p>9 장애없는 견해에 주합니다.</p> <p>10. Will not encounter any difficulties</p> <p>10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습니다.</p>	
--	--

Section 5:

REDUCING THE SEVERITY OF OFFENSES

제 5장. 悔過滅罪(회과멸죄) 허물을 고쳐 착한 길로
죄의 심각성을 줄이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If a person has many offenses and does not repent of them but cuts off all thought of repentance, the offenses will engulf him, just as water returning to the sea will gradually become deeper and wider. If a person has offenses and, realizing they are wrong, reforms and does good, the offenses will dissolve by themselves, just as a sick person who begins to perspire will gradually be cured."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으되 스스로 회개하여 그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면, 죄가 몸에 돌아오는 것이 물이 바다에 돌아오는 것과 같아서 점점 깊고 넓음을 이루리니 어찌 능히 그 죄를 벗어나리요. 만일 허물이 있을진대 그 그릇됨을 알고 악을 고쳐서 선을 행하면 죄업이 날로 소멸하여 반드시 청정함을 얻으리라. 마치 환자가 땀을 흘리고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과 같다.”

佛言：人有衆過，而不自悔，頓息其心，罪來赴身，如水歸海，
불언：인유중과, 이불자회, 돈식기심, 죄래부신, 여수귀해,
漸成深廣. 若人有過, 自解知非, 改惡行善, 罪自消滅,
점성심광. 약인유과, 자해지비, 개악행선, 죄자소멸,
如病得汗, 漸有瘡損耳.
여병득한, 점유전손이.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introduces the Buddhist repentance Dharma. One needs to repent offenses if one wishes to start anew.

이 장에서는 부처님의 참회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잘못을 참회해야 합니다.

To repent is to admit one's fault and make changes.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If a person has many offenses and does not repent of them if a person has a multitude (three or more; meaning many) of offenses and yet chooses not to repent of them. Occasionally, we are not aware that we make mistakes. Typically, we all know when we commit offenses. This is what people normally do (saying we're not Saints!) Why exhibit one's own shortcoming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으되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세 가지 이상)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참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신은 성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나요?

To "repent" is to:

참회한다는 것은

1. Admit it (make it known, especially to others),
인정합니다. (잘못을 드러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2. Make changes to remedy situation.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변합니다.

To admit it is to recognize that we have leaks, flaws or "outflows." In other words, we are incurring losses. The advantage of admitting it brings light to the problem: Other people's scrutiny creates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roblem.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누출, 결함 또는 "유루"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손실이 일어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이점은 다른 사람들이 정밀하게 살핌으로써 그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Once we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roblem, then the next step is to plug the leak or stop the loss (that golden business rule). The beauty of publicizing our fault is that now we have to answer to all the concerned

parties until they are satisfied with the fix.

일단 우리가 문제의 성질을 이해하면 다음 단계는 누수를 막거나 손실을 멈추는 것(사업의 황금 규칙)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공론화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잘못을 고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전까지 상대의 걱정에 모두 대답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But cuts off all thought of repentance: The problem is that we think we can get away with it. Here the Buddha describes a most common reaction for most people: To “immediately” or “automatically” cover up the problem or to deny one’s responsibility.

그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면,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시 혹은 자동적으로 문제를 덮거나 책임을 부인합니다.

The offenses will engulf him, just as water returning to the sea will gradually become deeper and wider. The Buddha uses an analogy to describe the consequence of not repenting of one’s offenses. To refuse to repent is to continue to create offenses. Eventually, these offenses are like water running into the sea, it gradually becomes deeper and wider. We dig ourselves a hole deeper and deeper until we can no longer get out. Danger increases imperceptibly until one gets trapped or loses one’s life.

죄가 몸에 돌아오는 것이 물이 바다에 돌아오는 것과 같아서 점점 깊고 넓음을 이루리니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잘못을 참회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을 계속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잘못들은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물과 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멍을 파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때까지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덮에 걸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잃을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Lighter offenses: This is when there is no intention to commit. Offenses do not come from the outside (Avatamsaka Sutra: “not from the East, not from the South, West or North, not from the four intermediate directions, but from upside-down thinking and accumulate in the mind 菩薩知諸業, 不從東方來, 不從南西北四維上下來, 而共積集止住於心, 但從顛倒生, 無有住處”).

가벼운 잘못: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 이에 해당합니다. 잘못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길 모든 업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동남·서남·동북·서북의 간방, 그리고 상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된 생각에서 나오고 이것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However, if a person has offenses and, realizing they are wrong, reforms and does good, the offenses will dissolve by themselves. If a person can realize that he or she is wrong (one is somewhat wise here) then one can bring forth the thought of repentance (admit and confront one's errors) and "reforms" one's ways: Stop doing evil and do only good.

만일 허물이 있을진대 그 그릇됨을 알고 악을 고쳐서 선을 행하면 죄업이 날로 소멸하여 반드시 청정함을 얻으리라." 하지만 만약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참회의 마음을 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바꿉니다. 악을 그치고 오직 선을 행합니다.

Mahayana has many wonderful repentance dharmas to help us repent and therefore make our offenses "dissolve by themselves." They will be erased and we're whole again. The leaks have been plugged.

대승에는 우리의 참회를 돕고 스스로 잘못을 해결하게 하는 많은 놀라운 참회법이 있습니다. 참회법으로 잘못을 없애고 우리는 다시 전체성을 회복합니다. 새는 틈이 막힙니다.

It's just as a sick person who begins to perspire will gradually be cured. Perspiration is the analogy for repentance dharmas. It helps expel toxins from our system and thus cure us from all sorts of ailments..

마치 환자가 땀을 흘리고 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과 같다. 땀은 참회법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스템에서 독을 배출하여 모든 종류의 병에서 우리를 치유하도록 돕습니다.

Wonderful, wonderful Dharma that is counter intuitive. Why is it not taught yet No one wants to admit one's faults, especially the grave ones!! It takes fortitude and high morals to be able to utilize this Dharma.

묘법은 직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아직 가르치지 않나요? 아무도 자신의 잘못, 특히 심각한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인함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Confucius says: I resolve to:

공자는 이르길

1. Study at the age of fifteen 十五有五, 而志於學,

15세 지학(志學) 학문에 뜻을 둡니다.

2. Be self-supporting at the age of thirty 三十而立 ,

30세 이립(而立) 뜻을 세웁니다.

3. Have no more confusion at the age of forty 四十而不惑 ,

40세 불혹(不惑) 미혹하지 않습니다.

4. Understand heaven's command (and my role in it at fifty) 五十而知天命 ,

50세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뜻을 압니다.

5. Have no afflictions upon hearing others' words at the age of sixty 六十而耳順 ,

60세 이순(耳順)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Can follow my heart's desire at seventy and yet not violate the rules 七十而從心所欲, 不逾矩.

70세 고희(古稀)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As you can see, even for a sage like Confucius, it takes quite a while before he is free from errors. (He had to cultivate from the age of 15 to 70.) The West has a saying: "To err is to be human." Let's be more humble: Learn to use the repentance dharma and purify ourselves.

공자와 같은 성인조차도 오류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15살에서 70살까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서양에서 "잘못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좀 더 겸손해집시다: 참회법을 행하고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법을 배우세요.

The repentance dharma is among the ten limitless practices advocated by Universal Worthy Bodhisattva in order to practice the Bodhisattva path. It allows us to wipe the slate clean and start anew after we make mistakes.

참회법은 보살도를 수행하기 위해 보현보살이 주창하는 십무량행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6:

TOLERATING EVIL-DOERS AND AVOIDING HATRED

제 6장. 忍惡無瞋(인오무진) 악행하는 자를 견디어 성냄을 없앤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When an evil person hears about your goodness and intentionally comes to cause trouble, you should restrain yourself and not become angry or blame him. Then the one who has come to do evil will do evil to himself."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는 반드시 자비심으로써 보호하여 건지리라. 그리하여도 저 사람이 또한 나에게 악을 한다면 내 또한 선으로 대하리라. 이러하면 복덕의 기운은 항상 내게 있고 재앙의 기운은 도리어 저 사람에게 있나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한사람이 남의 선행을 듣고 소란을 피우더라도 그대는 스스로 금식하여 진책함이 없어야 한다. 남에게 악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악하게 된다”

佛言：人愚，以吾爲不善，吾以四等慈，護濟之

불언：인우, 이오위불선, 오이사등자, 호제지.

重以惡來者，吾重以善往，福德之氣，常在此也，害氣重殃，反在于彼。

중이악래자, 오중이선왕, 복덕지기, 상재차야, 해기중앙, 반재간피.

佛言：惡人聞禪，故來撓亂者，汝自禁息，當無瞋責，彼來惡者而自惡之。

불언：악인문선, 고래요란자, 여자금식, 당무진책, 피래악자이자악지.

Sutra commentary:

주석:

Therefore, the Buddha warns us against dwelling on negative reactions. Ultimately, good will prevail over evil. Stay on the right side!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반응에 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궁극적으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옳은 쪽에 머무세요.

The Buddha said, "When an evil person hears about your goodness and intentionally comes to cause trouble. When you decide to do good, usually, the test immediately come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한사람이 남의 선행을 듣고 소란을 피우더라도 선을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즉시 시험이 옵니다.

My students used to come and complain to me: I've been doing good as you taught us, how come I still get in trouble? I would answer: they come to hassle you so that you can become better and do even more good.

한 제자는 나에게 와서 불평하곤 했습니다. "배운대로 선을 행했는데 왜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죠?" 나는 대답하길: 문제는 당신을 귀찮게 해서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게 합니다.

The nature of the test is this: it's designed to disturb擾 you and/or to create confusion亂 in your mind.

시험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방해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If you can recognize that it's a test, **you should restrain yourself and not become angry or blame him.** Learn to "*restrain yourself.*" This is translated from the Chinese 禁息, meaning to prohibit and stop oneself. We should learn to prohibit ourselves from making mistakes or commit evil no matter how justified it may seem. Furthermore, we should also stop any evil we've already started to commit (as soon as we become aware of it).

그것이 시험임을 인지하면 **그대는 스스로 금식하여 진책함이 없어야 한다.**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禁息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자신을 방해하고 그만두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And not become angry or blame him,*" don't lose your cool; do not retaliate or lose your head. You become angry because you can't get satisfaction. Another common reaction is to blame others for the problem. Have you ever noticed that whenever you lose your temper, it is always because it is someone else is at fault?

진책함이 없어야 한다. 평정을 잃지 마세요. 보복을 하지 마세요 혹은 이성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또 다른 공통적인 반응은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화를 낼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Let **the one who has come to do evil will do evil to himself**. It's like a bully who comes fully loaded to pick a fight. If you don't engage, what is he/she going to do with the built-up energy? Most likely, they misuse it and end up getting in trouble.

남에게 악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악하게 된다. 마치 싸움을 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불량배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그녀는 축적된 에너지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It's like within a bright mirror comes an ugly face. It scares itself without the mirror having to do anything about it.

밝은 거울에 추한 얼굴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은 스스로를 두렵게 합니다.

The reasonable approach would be to learn to be patient and not lose our temper. No matter how difficult it is, we should learn to be even more patient and not get angry. That is the patience paramita.

합리적인 접근법은 인내심을 갖고 화를 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더 인내심을 갖고 화를 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인욕 바라밀입니다.

Another approach that I like to teach my pupils is to cede 讓. It means to allow your opponent have his/her way. This evokes in my mind that Chinese virtue: yielding 讓.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다른 방법은 양보입니다. 이는 상대가 하고 싶은대로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중국의 덕: 양보를 상기시킵니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patient versus yielding? One can be patient but one tends to resent it. I'm trying to teach my students to yield, take a loss and NOT BECOME RESENTFUL. Once we've paid up our debts, the problem will go away by itself. To put up a fight or to be resentful only encourages our creditors to linger a while longer.

인욕과 양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욕하지만 이에 대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양보하고 손해를 보아도 분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빛을 값으면 문제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싸우고 분노하면 단지 원결자들이 더 오래 머물 뿐입니다.

Section 7:

EVIL RETURNS TO THE DOER

제 7장. 謗佛招禍(방불초화) 참고 견디는 법을 밝히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There was a person who, upon hearing that I observe the Way and practice great humane kindness, intentionally came to berate me. I was silent and did not reply. When he finished abusing me, I asked, If you are courteous to people and they do not accept your courtesy, the courtesy returns to you, does it not?"

"It does," he replied. I said: Now you are scolding me, but I do not receive it, so the misfortune returns to you and must remain with you. It is as inevitable as an echo that follows a sound, or as a shadow that follows a form. In the end you cannot avoid it. Therefore, be careful not to do evil."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부처님이 크게 인자하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뜻을 시험코자 욱하고 꾸짖거늘 부처님께서 묵연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어리석고 악한 것을 민망히 여기시더니, 그 사람이 악설을 그치매 물으시되, “그대가 예로써 사람에게 물건을 주되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어찌하려는가?”

대답하되, “도로 가지고 가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그대가 악으로써 나를 대하되 내 또한 받지 아니하면 그대 스스로 가지고 갈 터이니 그런다면 도리어 그대 몸에 재앙이 될 것이 아닌가. 비유컨대 그림자가 형상을 따름과 같아서 마침내 여의치 못하리니 삼가 악을 짓지 말지니라.”

佛言：有人聞吾守道行大仁慈，故致罵佛。佛默不對，

불언：유인문오수도행대인자, 고치매불, 불묵부대,

罵止。問曰：子以禮從人，其人不納，禮歸子乎。對曰：歸矣。

매지. 문왈：자이에종인, 기인불납, 예기자호. 대왈：귀의.

佛言：今子罵我，我今不納，子自持禍，歸子身矣。

불언：금자매야, 아금불납, 자자지화, 귀자신의,

猶響應聲, 影之隨形. 終無免離, 慎勿爲惡.

유향응성, 영지수형, 종무면리, 신물위악.

Sutra commentary:

주석:

The Buddha further elaborates on the previous section by giving his personal example.

부처님께서 앞 장에서 그의 개인적 예를 제시함으로써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The Buddha said, "There was a person who, upon hearing that I observe the Way and practice great humane kindness, intentionally came to berate me.

Note here that the Buddha states that even though he already accomplished Wonderful Enlightenment, he still "*observes the Way*": he still upholds precepts. And the Buddha was practicing "*great humane kindness.*" He lived by the principles and practiced great kindness (giving joy to others).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부처님이 크게 인자하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뜻을 시험코자 욱하고 꾸짖거늘 부처님은 이미 묘각을 성취하였지만 여전히 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계를 지킵니다. 부처님은 대자비를 행합니다. 그는 이치에 따라 살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줌으로써) 대비를 수행했습니다.

The Buddha's reputation spread far and wide. His externalist competitors lost a lot of disciples and colleagues to Buddhism. As a result,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were jealous of the Buddha's success.

부처님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외도 경쟁자들은 많은 제자와 동료들 불교에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성공을 질투했습니다.

Therefore, once someone "*intentionally came to berate*" the Buddha. This would be a test to see if He can still observe the Way and practice great humane kindness toward someone who criticizes him.

그래서 한번은 누군가가 부처님의 뜻을 시험코자 욱하고 꾸짖었습니다. 이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도를 지키고 대자를 행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What did the Buddha do? He **was silent and did not reply**. He avoids adding fuel to fire. He stays "*thus, thus unmoving.*" This is when you need real

Samadhi power!

부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묵연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불에 기름을 더 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여부동하였습니다. 이 때가 진정한 삼매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When he finished abusing me, I asked, If you are courteous to people and they do not accept your courtesy, the courtesy returns to you, does it not? It does,' he replied After that person finishes scolding the Buddha (i.e. all tests are limited in time), the Buddha points out to him that when one is courteous one does not lose one's courtesy even though it is not accepted.

그 사람이 악설을 그치매 물으시되, “그대가 예로써 사람에게 물건을 주되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어찌하려는가?” 대답하되, “도로 가지고 가겠나이다.”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끝나자 (모든 시험에는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예를 갖춘다면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를 잃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I said: Now you are scolding me, but I do not receive it, so the misfortune returns to you and must remain with you. Similarly, since the Buddha did not accept the scolding, it naturally reverts back to its originator (return to sender).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그대가 악으로써 나를 대하되 내 또한 받지 아니하면 그대 스스로 가지고 갈 터이니 그런다면 도리어 그대 몸에 재앙이 될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비난을 받아들지 않아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It is as inevitable as an echo that follows a sound, or as a shadow that follows a form. Such recoil is easily observed just like shadows or echoes.

비유컨대 그림자가 형상을 따름과 같아서 이러한 반동은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쉽게 관찰됩니다.

In the end you cannot avoid it. Therefore, be careful not to do evil. Not only does the evil return to the evil-doer (instantaneously; force=reaction!) but the bad person already bore the brunt of the consequences: Do not take his garbage and make it yours. Please be careful not to do evil!

마침내 여의치 못하리니 삼가 악을 짓지 말지니라.” 악이 악행을 하는 자에게 (즉각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악인은 이미 그 결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의 쓰레기를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부디 악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In the past, there was an Indian lady who treated her mother-in-law very well in front of her husband. As a result, her husband totally trusted her. She however had a bad habit: she liked other men's attention. Her mother-in-law's presence in the household therefore made it difficult to indulge herself. 예전에 남편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던 인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의 관심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즐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She thus had a talk with her husband. She suggested to him that since the old lady had difficulties moving about because of her advanced age, it would be best to send her to the heavens to put an early end her suffering and difficulties while allowing her to enjoy heavenly blessings. The husband naively asked his wife on how to about it.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가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니 시어머니를 빨리 천국으로 보내서 그녀의 고통과 어려움을 빨리 끝내고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최상이라고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순진하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지 물었습니다.

The devious wife said that the Brahma religion has a fire pit dharma that can help send people to the heavens.

사악한 아내는 브라흐마교에는 사람들을 천상으로 보내는 것을 돕는 불구덩이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So they constructed a big fire pit that bellowed out fire and dense smoke and brought the old woman to the edge of the pit to carry out the ceremonies. The evil daughter-in-law then sneaked up to her and pushed the old lay into the fire pit.

그래서 그들은 불길과 짙은 연기를 내뿜는 큰 불구덩이를 만들었고 늙은 여인을 구덩이의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자 사악한 며느리가 슬그머니 다가와 시어머니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Perhaps the old woman's time was not up yet, she fell into an area of the pit that had no fire. By the time she managed to climb out of it, it was totally dark. She could not find her way home in the pitch darkness. She therefore

climbed on top of a tree to pass the night. Then two burglars came along to the tree, carrying with them the many jewels they just looted from the village. The old woman made some noise which scared these two burglars away.

노인의 시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지, 그녀는 불이 나지 않는 구덩이의 한 구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기어 나왔을 때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을 보내기 위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 두 명의 도둑이 그들이 방금 마을에서 훔친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무로 다가왔습니다. 그 노인은 이 두 도둑을 겁먹게 하여 도망치게 했습니다.

The following day, she climbed down and discovered the loot. She grabbed a few and managed to make it back to her son's household by dark.

다음 날, 그녀는 내려가서 약탈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몇 개를 지니고 날이 어두워질 때 째 간신히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Her son was very happy to see her again but the daughter-in-law was scared out of her wits thinking that it was her mother-in-law's ghost coming to claim her life.

아들은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뻐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 귀신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겁에 질렸습니다.

The old lady did not say a word. She opened her bag and brought out the gems. The daughter-in-law's greedy mind got the better of her. She thought that the old lady went to the heavens and came back to help them out. The wicked wife immediately claimed credit for pushing her mother-in-law into the fire pit.

시어머니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가방에서 보석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그녀를 이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천상으로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악한 아내는 즉시 시어머니를 불구덩이에 밀어넣은 것에 대한 공을 주장했습니다.

The old woman understood it all and coolly told her daughter-in-law, "You too should try the fire pit dharma because the truth of the matter is that there are a lot more of these gems where I came from."

시어머니는 그것을 모두 이해했고 며느리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또한 불구덩이법을 해봐야해.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온 곳에 이런 보석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

The wicked wife greedily agreed and threw herself into a fire pit and died.

사악한 아내는 탐욕스럽게 동의했고 스스로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Evil people invariably end up harming themselves!

사악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Confucian books quote the following: 儒書亦言. One can evade heaven's mistake, but one cannot avoid one's own mistake 「天作孽猶可違, 自作孽不可違」. Humans are under the command of the heavens. Sometimes we aren't at fault. The heavens sometimes make mistakes. However, if we create offenses, then we will for sure have to undergo the retributions.

유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자기가 만든 재앙은 면할 수 없다. 하늘은 가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곤경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분명히 보를 받을 것입니다.

Section 8:

ABUSING OTHERS DEFILE ONESELF

제 8장. 害賢自損(해현자손) 허물은 반드시 자신을 멸한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An evil person who harms a sage is like one who raises his head and spits at heaven. Instead of reaching heaven, the spittle falls back on him. It is the same with someone who throws dust against the wind. Instead of going somewhere else, the dust returns to defile his own body. The sage cannot be harmed. Misdeeds will inevitably destroy the doer."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침을 뱉는 것이라, 침이 하늘에는 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며 또는 바람을 안고 티끌을 날리는 것이라, 티끌이 저리로는 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을 더럽히나니 어진 사람을 해코자 하는 것은 도리어 제 몸을 망치는 일이니라.”

佛言：惡人害賢者，猶如仰天而唾，唾不至天，還從己墮，

불언：악인해현자，유여양천이타，타부지천，환중기타，

逆風揚塵，塵不至彼，還坌己身，賢不可毀，禍必滅已．

역풍양진，진부지피，환분기신，현불가훼，화필멸이．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admonishes evil doers to refrain from harming sages and worthy ones.

이 장은 성현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라고 악인에게 훈계합니다.

The Buddha said, "An evil person who harms a sage is like one who raises his head and spits at heaven.

An "evil person" is a person who commits the ten evil deeds. Evil people are

particularly jealous of sages and worthy ones (admired by many). Therefore, they often try to “harm” those virtuous individual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침을 뱉는 것이라. 악인은 십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특히 성현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덕있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One could say that he does not have enough wisdom to hurt a sage. He has no wisdom in the first place: Why would you wish to harm a sage? Sometimes he didn't know that it's a sage. They don't advertise it or wear a sign!

사람들은 말하길 자신은 성인을 해칠만한 충분한 지혜가 없다고 할 지도 모릅니다. 그는 애당초 지혜가 없습니다. 왜 성인을 해치고자 합니까? 때로는 성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인이라고 광고하지 않고 간판을 달지도 않습니다.

The Buddha demonstrates the futility of such attempts through two analogies: worthy ones are like heaven or the wind.

부처님은 성인은 하늘이나 바람과 같다는 두가지 비유를 통해 이런 시도의 무익함을 보여줍니다.

It's like one who raises his head and spits at heaven: instead of reaching heaven, the spittle falls back on him. Worthy ones are like the sky, they cannot be reached with your defilements. Instead the spittle could fall back on him.

침이 하늘에는 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에 떨어지며 현인은 하늘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더러움이 그들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침을 뱉으면 그에게 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The Vietnamese has a saying: that's like spitting blood with your mouth “Ngậm máu phun người,” you first defile your mouth with blood before you can even defile your victim.

베트남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으로 피를 뱉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를 더럽히기도 전에 먼저 피로 입을 더럽힙니다.

It is the same with someone who throws dust against the wind. Instead of going somewhere else, the dust returns to defile his own body. This second analogy reminds me of things we tried as kids. I can remember trying to throw light things against the wind, just to find out that the wind blew it right

back at us.

또는 바람을 안고 티끌을 날리는 것이라, 티끌이 저리로는 가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몸을 더럽히나니 이 두번째 비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장난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바람을 향해 가벼운 물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돌려보냅니다.

One can also further extrapolate and say that harboring bad intentions towards others first defiles oneself.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의도를 품으면 먼저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The sage cannot be harmed. You could try, but you're wasting your time.

성인은 해칠 수 없고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시간 낭비입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for those of you who may be too smart for their own good. There is no evil force that is strong enough to overcome the forces of goodness.

선행을 하기에는 너무 영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악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선한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Ultimately, goodness prevails!

궁극적으로, 선이 이깁니다!

You can be assured that **misdeeds will inevitably destroy the doer.** There is recoil in all offenses. The more vicious the attempt, the more damaging the recoil. If sages and worthy ones can be destroyed, they are not real sages or worthy ones!

도리어 제 몸을 망치는 일이니라. 모든 잘못에는 반향이 있습니다. 더욱 악랄한 시도일수록 그 반향은 더욱 손상이 심해집니다. 성현이 파괴될 수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성현이 아닙니다.

Common wisdom says that one must bear the consequences of one's own actions 自作自受. Trying to harm worthy ones will ultimately bring about one's own demise.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To Westerners, this may seem to be nonsense. If you know that they have evil designs and are intent upon inflicting harm to you and your loved ones, are you going to stand by and do nothing.

서양인들에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Proponents of the preemptive strike theory would probably feel justified to take the initiative and take their opponents out of commission. They therefore would have sided with Bush 43's occupation of Iraq.

선제타격 이론의 지지자들은 아마도 주도권을 잡고 그들의 반대자들을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시 43의 이라크 점령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The Buddhists adopt a different approach. It is OK to defend oneself but it is not OK to attack.

불교에서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괜찮지만 공격은 괜찮지 않습니다.

This section is about sages not getting hurt when attacked. How so?

이 장에서는 성인들이 공격을 받아도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습니까?

It's because they have higher gongfu and wisdom than their evil attackers. They therefore can recover quite easily from their injuries and damages. Furthermore, by not taking the initiative nor creating offenses, they avoid the inevitable recoils.

그들의 쿵푸와 지혜가 악한 공격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상해로부터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므로써 그들은 불가피한 행위의 반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What about ordinary people like us? What if our gongfu and wisdom are not good enough?

우리과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쿵푸와 지혜가 충분히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We should firm up our faith in goodness. To strike first is to create an offense. Have no doubt that we will have to pay for the corresponding consequence.

우리는 선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먼저 공격하면 잘못을 짓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결과에 대해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On the other hand, have faith that we are on the side of the principles and wisdom.

반면에 이리와 지혜의 쪽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I have met many old Vietnamese nuns. They are quite special. They are uneducated and not that bright. Yet their faith is so deep!

나는 노비구니 스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다지 영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매우 깊습니다!

One of them is in her seventies. She left the home life when she was still in Vietnam in the 1960s. Back then the temple where she stayed was in the boonies and quite deprived of basic amenities like running water, electricity and toilets.

그 중 한 70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60년 대 베트남에서 출가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머물렀던 절은 시골에 있었고 수도, 전기, 화장실 같은 기본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Furthermore, it had tons of snakes, very poisonous snakes which were known to kill people, including left-home people in her temple.

게다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독이 강한 뱀이 많았습니다.

Can you imagine having to go to the outside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She also was in charge of offering incense. She told me that one night her instinct told her that the big container where she had to reach inside to fetch the incense stick had snakes inside. But she had to offer incense to the Buddhas.

그녀는 또한 향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나에게 이르길 하루는 밤에 직감적으로 향이 든 큰 용기에 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처님께 향을 올려야 했습니다.

I said, "You got a stick and poked inside first right?"

나는 말했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먼저 안을 찔러보셨죠?"

She said, "No. It never crossed my mind."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Instead, she closed her eyes and silently prayed to GuanYin Bodhisattva. She said: "I am frightened of snakes. GuanYin, please do not let them hurt me because I want to continue to live here and offer incenses." Then she reached inside the urn and pulled out the incense sticks.

대신에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관음보살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뱀이 무섭습니다. 관음보살이시여, 제발 그들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살면서 향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향아리 안에 손을 넣어 향을 꺼냈습니다.

As she pulled out her arm, she saw two sizeable snakes twisting their bodies around her arm. At that point, amazingly, she calmly used her free hand to uncoil each snake and threw them outside. The poisonous snakes did not even try to bite her!

그녀가 팔을 올리자 두마리의 큰 뱀이 팔을 감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때 놀랍게도 그녀는 침착하게 다른 속으로 각각의 뱀을 풀어 밖으로 던졌습니다. 독뱀은 심지어 그녀를 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Needless to say, her faith in GuanYin grew stronger and stronger over the years due to similar responses.

말할 것도 없이 관음보살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감응을 받아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If you are good and intend to do no harm to others, then you surely can have faith that when need be,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will help and protect you.

여러분이 선하고 다른 이를 해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분명히 필요한 때 불보살님들이 여러분을 돕고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By the way, do you know how sages learned to exist without being harmed by evil people? I believe that they got there by:

여러분은 어떻게 성인들이 악인의 해침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지 압니까? 제가 믿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Having faith in this fact

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2. Until reaching sagehood, they refrained from reacting to attacks from evil individuals, thus planting the seeds from the eventual retribution.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은 악인을 해치는 것을 삼가하여 이것이 필연적인 보의 씨앗을 심습니다.

Section 9:

BY RETURNING TO THE SOURCE, YOU FIND THE WAY

제 9장. 立志體道(입지체도) 깨달고자 하는 뜻을 굳게 지키라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Deep learning and a love of the Way make the Way difficult to attain. When you guard your resolve and revere the Way, the Way is truly grea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만으로써 도를 사랑하는 이는 도리어 도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요, 뜻을 지켜 진실로 도를 받들면 그 도가 더욱 심히 커지느니라.”

佛言：博聞愛道，道必難會，守志奉道，其道甚大。

불언：박문애도, 도필난회, 수지봉도, 기도심대.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is about the Buddhist wisdom of “hearing, contemplation and cultivation.” In addition to erudition and learning, the Way needs to be cultivated

이 장은 부처님의 문사수聞思修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박식하고 배우는 것에 더해 수행이 필요합니다.

The Buddha said, "Deep learning and a love of the Way make the Way difficult to attain. "Deep learning博聞" means to be learned like Ven. Ananda, foremost in erudition. It involves both depth and breadth of knowledge: bó 博; whereas wén 聞 refers to learning. In the old days when there were no books or electronic devices, the primary means of teaching is oral.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널리 듣고 많이 보는 것만으로써 도를 사랑하는 이는 도리어 도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요, 널리 듣는다博聞는 것은 가장 박식한 아난다와

같이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博은 지식의 깊이와 폭을 갖추는 것이고 문聞은 배움을 의미합니다. 과거 책이나 전자 제품이 없을 때 주로 가르치는 방식은 구두를 통해서였습니다.

“And a love of the Way” means to really admire and worship the Way, **make the Way difficult to attain**. However, when one has great love and admiration for the BuddhaDharma, unfortunately one may attach to marks and look for it in the wrong places (thus seek for answers outside of the mind). In this case,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encounter the Dharma. Or if one does encounter it one would not be able to savor its depth and wonders. It’s like chewing and not be able to swallow!

도를 사랑하는 도를 진정 우러르고 섬김을 의미합니다. **도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요.** 하지만 불법에 대한 큰 사랑과 열망이 있지만 불행히도 상에 집착하고 잘못된 곳에서 도를 찾기도 합니다. (마음 밖에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혹은 만나더라도 깊이와 경이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음식을 씹고 삼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The Buddha herewith is giving a reminder: The Way must be certified to or realized會 (as opposed to the common belief that it is to be “learned, understood or researched”). That is the ultimate prize!

여기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도는 "배우고 이해하거나 연구"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증득하거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고의 상입니다!

When you guard your resolve and revere the Way, the Way is truly great!

뜻을 지켜 진실로 도를 받들면 그 도가 더욱 심히 커지느니라.

“Guard your resolve”: Many of us made the “resolve” to become Buddhas and attain Bodhi. This is a rather long journey, like it or not. As you plod along, it’s not unusual to become discouraged or impatient. That is what we call tests in Buddhism. If you don’t cultivate, everything appears to be fine. However, as soon as you resolve to cultivate, the tests come in a flurry. That is the Buddha reminding us to preserve with faith and resolve. Thought after thought, do not renounce Bodhi.

뜻을 지켜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고 보리를 얻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는 좋은 좋지 않은 간에 다소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 낙담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를 불교에서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험을 받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결의를 가지고 인내하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생각 생각에 보리를 버리지 마세요.

The secret of success is in the word “*revere*奉.” I teach my disciples about reverence. They are taught to bow to left-home people. Isn't that one of the first lessons we teach to our children? To show reverence reveals good breeding. At a deeper level, a reverent mind minimizes the self. From a teacher's perspective, I ignore arrogant people because their cup is too full already!

성공의 비밀은 봉(奉)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공경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출가자에게 절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교훈 중 한가지가 아닌가요? 공경을 표하는 것은 좋은 집안임을 드러냅니다. 깊은 단계에서 공경심은 자아를 작게 합니다. 스승의 관점에서 저는 오만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컵은 이미 너무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How does one revere the Way?

어떻게 도를 공경합니까?

1. Show reverence: Learn the Buddhist protocol and ceremonies.

공경을 포함합니다: 불교의 예법과 의식을 배우세요.

2. Make offerings: Plant blessings with Mahayana. It should not be that Mahayana must make offerings to you to draw you to the temples!

공양을 올립니다: 대승에 복을 심으세요. 여러분을 절로 이끌기 위해서 대승이 여러분에게 공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Take care of, or nurture: Help propagate Mahayana. Great Master XuanHua brought Mahayana to the West forty years ago. It's still in its infancy We need to work hard to help solidify its foundation.

보살핍니다. 대승의 포교를 돕습니다. 선화 상인은 40년 전에 서양에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대승불교는 아직 유아기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4. Follow the teachings: Put the teachings into practice. The best way to help propagate Buddhism is to vigorously cultivate it.

가르침을 따릅니다: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불교의 포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용맹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5. Have faith in Mahayana: The higher you ascend, the deeper your faith needs to be.

대승에 믿음을 가집시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믿음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The Way is truly great!" It is inconceivably wonderful! It is truly beyond words. It's just like that tasty treat: no amount of words can accurately describe its flavor. Similarly, one must cultivate the Way in order to experience its wonders.

“그 도가 더욱 심히 커지느니라.” 불가사의하게 경이롭습니다. 이는 진정 말을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간식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단어로도 정확하게 그 맛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If you have enough blessings to revere the Way, you can then obtain a response. The Way is truly great!

도를 공경하는 복이 충분하면 감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는 진정 위대합니다.

We specialize in the Mahayana Pure Land where we cultivate in order to obtain rebirth this very lifetime. Otherwise, if we still revolve in the Reincarnation Wheel, who knows when we can encounter Mahayana Pure Land Buddhism again!

이 생애 왕생하기 위해 우리는 대승 정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윤회하고 언제 다시 대승 정토불교를 만나겠습니까?

Some of our followers came to us because they have deep faith in Mahayana and prayed to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for help in obtaining rebirth. Some asked to be taught how to practice reciting the Buddha's name. They all came to our small temple with the same common denominator: deep reverence for the Triple Jewel.

어떤 신도들은 대승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왕생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보살님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불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두 이 작은 절에 옵니다. 삼보에 대한 깊은 공경입니다.

It is as my teacher, the late Great Master XuanHua said, "Those who believe

will be saved.”

저의 스승인 선화상인은 이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Section 10:

JOYFUL GIVING BRINGS BLESSINGS

제10장. 助施得福(조시득복) 영원한 햇불의 공덕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When you see someone who is practicing giving, aid him joyfully, and you will obtain vast and great blessings." A Sramana asked, "Is there an end to those blessings?" The Buddha said, "Consider the flame of a single torch. Though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come to light their own torches from it so that they can cook their food and ward off darkness, the first torch remains the same. Blessings, too, are like thi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사람이 도를 행할진대 널리 불쌍히 여기고 널리 사랑하기를 힘써라.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보시 외에 더 큼이 없나니, 뜻을 세워 그 도를 행하면 복이 심히 크리라. 또 다른 사람이 남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써 도와주면 또한 많은 복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질문하되, “그러면 저 사람의 복이 마땅히 감해지지 않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비유컨대 저 햇불과 같아서 비록 수천 백인이 와서 그 불을 붙여 가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것으로 밥을 짓고 어둠을 밝히나 저 햇불은 그로 인하여 조금도 적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니 복도 또한 그러하나니라.”

佛言： 睹人施基道， 助之歡喜， 得福甚大。 沙門問曰：

불언： 도인시기도， 조시환희， 득복심대， 사문문왈：

此福盡乎， 佛言： 譬如一炬之火， 數千百人， 各以炬來，

차복진호， 불언： 비여일거지화， 수천백인， 각이거래，

分取熟食除冥， 此炬如故， 福亦如之。

분취숙식제명， 차거여고， 복역여지。

Sutra commentary:

주석:

We should “rejoice in others’ merit and virtues:” Meaning that we should help others do good deeds.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공덕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도와야함을 의미합니다. .

There are 3 kinds of giving:

세 가지 종류의 보시가 있습니다.

1. Wealth: To provide living beings with means to sustain themselves (their life), to cure their poverty.

재보시: 중생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가난을 해결합니다.

2. Dharma: To provide living beings with means to sustain their wisdom life.

법보시: 중생이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3. Fearlessness: to provide relief to alleviate their fears and worries.

무외시: 두려움과 걱정이 줄어들도록 안심시킵니다.

The Buddha said, "When you see someone who is practicing giving, aid him joyfully. The act of giving makes you more liked but it’s important to develop the joy in helping others. Happiness is shared: share joyfully and joyfully shar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다른 사람이 남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면 보시의 행위는 당신을 더 좋아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즐거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나눕니다. 즐겁게 나누고 나눔을 즐기세요.

And you will obtain vast and great blessings. To practice giving generates a lot of blessings. To aid others in the practice of giving, brings joy to all involved, and generates even more blessings.

또한 많은 복을 얻으리라.” 보시를 수행하면 많은 복을 짓습니다. 보시 수행에서 남을 도우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더 많은 복을 짓습니다.

A Sramana asked, "Is there an end to those blessings?" Aren't they stealing

blessings from me? If they assist me in practicing giving, don't I have to share my blessings with them?

한 사람이 질문하되, “그러면 저 사람의 복이 마땅히 감해지지 않겠나이까?” 그들은 나에게서 복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요? 그들이 보시 수행에서 나를 돕는다면 그들과 나의 복을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In the past, there were two people who offered a flower to the Buddha. One person personally made the offer. The other, gave the flower to someone else who offered it to the Buddha. Maitreya Bodhisattva was asked and replied, “To give oneself, you'll become a PratyekaBuddha; to help others give: a Buddha.”

과거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직접 공양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사람에게 꽃을 주었습니다. 미륵불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공양한 자는 벽지불이 될 것이다. 상대방을 공양 올리게 도운 자는 부처가 될 것이다.”

The Buddha said, "Consider the flame of a single torch. The Buddha uses an analogy to make the point. It's like having a torch and allowing others to get fire from it. **Though hundreds and thousands of people come to light their own torches from it.**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비유컨대 저 횃불과 같아서 부처님은 비유를 들어 요점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횃불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불씨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수천 백인이 와서 그 불을 붙여 간다 할지라도

So that they can cook their food and ward off darkness.

그들은 그것으로 밥을 짓고 어둠을 밝히나

“Cooked food” symbolizes enlightenment. You can't be enlightened without giving!

밥을 짓고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보시를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Darkness” represents obstructions to your practice. There are three:

어둠은 수행의 장애를 나타냅니다. 세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1. Karmic obstructions

업장

2. Retribution obstructions

보장

3. Afflictions obstructions.

번뇌장

The first torch remains the same: The light of the first torch remains just as bright. Not only do you have your own blessings, you also generate the blessings of helping others obtain fire and light for their own use. Clearly, the blessings can be limitless if the torch is constantly shared: **blessings, too, are like this.**

저 횃불은 그로 인하여 조금도 적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니 첫번째 횃불의 빛은 여전히 밝습니다. 자신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을 얻도록 돕는 복을 지었습니다. 불씨를 계속 나누면 분명히 복은 무한합니다. 복도 또한 그러하나니라.

“The Buddha has a disciple named Katyayana 迦旃延. One day, on the way back from his alms bowl round, he encountered a woman wailing by the river bank: she appeared to be very miserable. She was about to throw herself into the river. Katyayana immediately grabbed her and said:

부처님 제자 중에 가전연迦旃延이 있습니다. 하루는 탁발하고 돌아가는 길에 강둑에서 울고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비참해보였습니다. 강에 몸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가전연은 즉시 그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Old lady, aren’t you feeling well? What troubles and difficulties are you experiencing? Please tell me.”

“노부인이여,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인가요? 저에게 말해보세요.”

She glanced at the bhikshu and replied:

그녀는 스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What for? You can’t help me anyway!”

“뭣하러요? 스님은 저를 도울 수 없어요.”

“Of course I can. My teacher, the Buddha always encouraged us to be kind and compassionate and try our all to help others. Please tell me the problem is and I’ll resolve it for you,” said Katyayana.

“도울 수 있습니다. 저의 스승인 부처님은 항상 자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남을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말해보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가전연은 말했습니다.

She thought it over for a moment and said,

그녀는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습니다.

“I’m suffering too much from poverty. When I was a child, I was sold off.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I’ve been treated with cruelty. I had to endure scolding and beating: there were no cruel punishments that I did not have to endure. If being alive is this miserable, I might as well kill myself so as to put an end to it.” This said, she started to cry again inconsolably.

“저는 가난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다른 사람에게 팔려졌고 지난 몇 십년간 학대받았습니다. 저는 야단과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가 견디지 않은 벌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끝내기 위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다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Katyayana gently told her:

가전연이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It’s OK! Don’t feel so bad. You should know that the reason you’re destitute is because you did not cultivate blessings. Now you can still plant blessings, practice giving and will get out of poverty.”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곤궁한 원인은 복을 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을 심고 보시를 수행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She was not convinced.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You are a left-home person and yet are trying to pull my leg. You yourself don’t even know what poverty is like. How can you possibly understand my suffering? I’ve been a slave since I was a child. You want me to practice giving. What do I have to give? All I have is this broken water vessel in my hand! In fact, it even belongs to my master. What can I use to give?”

“당신은 출가자이지만 저를 놀리는군요. 당신은 가난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살았습니다. 제가 보시를 수행하기를 바라는군요. 제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깨진 물병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 스승님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보시할 수 있습니까?”

“If you hope for happiness and if you want to have blessings and money, then you must buy wealth. You want to sell off your poverty.” Said Katyayana firmly.

“행복을 바라고 복과 돈을 원한다면 부를 사야 합니다. 가난을 팔아야 합니다.”

가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Sell what? Buy what?” said the old woman with her eyes wide open.

“무엇을 팔아요? 무엇을 사요?” 노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You buy wealth so that you become rich. You sell off your poverty so that you end suffering.”

“부를 사서 부자가 되세요. 가난을 팔아서 고통을 끝내세요.”

“Practice giving. Even this broken water vessel in my hand belongs to my master. What do I give?”

“보시를 행하라고요. 이 깨진 물병조차도 스승님 것인데 무엇을 주나요?”

“You certainly can. Take the vessel to the river and fill it up with water. Then bring it back here and pour the water into my bowl. That’s how you buy wealth and I buy off your poverty.”

“할 수 있습니다. 강에 병을 가지고 가서 물을 채우세요. 여기에 가지고 와서 나의 발우에 부으세요. 그렇게 부를 사고 가난을 팔 수 있습니다.”

The old woman did as instructed. She was immediately born onto the Heaven of the thirty-three 忉利天.

그녀는 지시를 따랐고 즉시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Section 11:

THE INCREASE IN MERIT GAINED BY BESTOWING FOOD

제11장. 舉田較勝(거전교승) 가장 수승한 공양의 공덕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Giving food to a hundred bad people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good person. Giving food to a thousand good people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one person who holds the Five Precepts. Giving food to ten thousand people who hold the Five Precept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Srotaapanna. Giving food to a million Srotaapanna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Sakridagamin. Giving food to ten million Sakridagamin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Anagamin. Giving food to a hundred million Anagamin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Arhat. Giving food to one billion Arhat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Pratyekabuddha. Giving food to ten billion Pratyekabuddha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Buddha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Giving food to a hundred billion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person who is without thoughts, without dwelling, without cultivation, and without accomplishmen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범상한 사람 백을 공양하는 것이 착한 사람 하나를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착한 사람 천을 공양하는 것이 다섯 가지 계행 지키는 사람 하나를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다섯 가지 계행을 지키는 사람 만(萬)을 공양하는 것이 수다원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수다원 백만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사다함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사다함 천만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아나함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아나함 일억만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아라한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아라한 십억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벽지불 한 분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벽지불 백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 한 분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부처님 천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무념[無念], 무주[無住], 무수[無修], 무증[無證]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佛言: 飯惡人百, 不如飯一善人; 飯善人千,
 불언: 반악인백, 불여반일선인; 반선인천,
 不如飯一持五戒者, 飯五戒者萬, 不如飯一須陀洹;
 불여반일지오계자, 반오계자만, 불여반일수다원;
 飯十萬須陀洹 不如飯一斯陀舍; 飯千萬斯陀舍,
 반십만수다원 불여반일사다함; 반천만사다함,
 不如飯一阿那舍; 飯一億阿那舍, 不如飯一阿羅漢;
 불여반일아나함; 반일억아나함, 불여반일아라한;
 飯十億阿羅漢, 不如飯一辟支佛; 飯百億辟支佛,
 반십억아라한, 불여반일벽지불; 반백억벽지불,
 不如飯一三世諸佛; 飯千億三世諸佛,
 불여반일삼세제불; 반천억삼세제불,
 不如飯一無念無住無修無證之者.
 불여반일무념무주무수무증지자.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discusses the comparative field of blessings or “multiplier effect.”
 이 장에서는 상대적인 복전 혹은 배가 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합니다.

Fields of blessings are of three kinds:

세 가지 종류의 복전이 있습니다.

1. Compassionate field of blessings 悲田: out of compassion one gives to those who are suffering or in difficulty. These people are the compassionate field of blessings.

비전 悲田: 자비로써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전입니다.

2. Kindness field of blessings 恩田: we give to those to whom we owe kindness such as our parents, teachers, benefactors etc.

은전 恩田: 부모, 스승, 보시자 등과 같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보시합니다.

3. Reverence field of blessings 敬田: we offer up to those we respect, such as offering to the Triple Jewel.

경전敬田: 삼보와 같이 우리가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This section refers to the multiplier effect for the reverence field of blessings.

이 장에서는 존중하는 복전의 배가 되는 효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The Buddha said, "Giving food to a hundred bad people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good person. Giving food represents the act of giving. Giving to a bad person helps propagate evil doing. Conversely, giving to a good person, helps bring good to others. Henceforth, the Buddha gave the stated 100:1 multiplier. Please note that although there is merit and virtues in the act of giving, there is a multiplier effect from the karma that the recipient creates herself. Yes, giving is meritorious, even when you give to a bad person.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범상한 사람 백을 공양하는 것이 착한 사람 하나를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음식을 공양 올리는 것은 보시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악인에게 보시하면 악한 행위를 퍼뜨리는 것을 돕습니다. 반대로 선인에게 보시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가져가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100배라고 말했습니다. 보시에는 공덕이 있지만 수혜자가 만드는 업으로 인해 효과가 배가 됩니다.

Giving food to a thousand good people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one person who holds the Five Precepts. The Five precepts are:

착한 사람 천을 공양하는 것이 다섯 가지 계행 지키는 사람 하나를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 No killing, 2. No stealing, 3. No sexual misconduct, 4. No lying and 5. No taking of intoxicants.

오계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People who receive the Five Precepts have already taken refuge with the Triple Jewel. This double layer protection increases the associated multiplier. 오계를 받은 사람은 이미 삼보에 귀의했습니다. 이 이중 보호는 공덕을 배로 증가시킵니다.

Please notice that being good (practicing the ten good deeds) is inferior (by a factor of ten) to observing the Five Precepts. In fact, it is said that if one can purely uphold the Five Precepts, one can become a sage.

선함(십선행을 행하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보다 못합니다. 사실 오계를 진실로

지닌다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Giving food to ten thousand people who hold the Five Precept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Srotaapanna. They are called sages in Hinayana because of their superior wisdom. They are the first stage Arhats who got there by cutting off the 88 view delusions. It's most difficult to do: that's why there is a "ten thousand" multiplier.

다섯 가지 계행을 지키는 사람 만(萬)을 공양하는 것이 수다원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들은 수승한 지혜로 인해 소승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88견혹을 끊음으로써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보시의 공덕이 만배 증가합니다.

They are also called "entering the flow" of sagehood: meaning they can naturally progress toward sagehood with a lot less efforts than we can. How come? Unlike us, they know where there is a sagehood river that they can use. That's why it's not a bad idea to follow their lead: they certainly know where they're heading.

그들은 또한 성인의 흐름에 든 자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적은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성인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우리와 달리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성인의 강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압니다.

First stage Arhats have to come back to the human realm seven times before they attain Fourth Stage Arhatship.

수다원은 아라한이 되기 전에 7번 인간계로 돌아옵니다.

Giving food to a million Srotaapanna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Sakridagamin. A "Sakridagamin" is a second stage Arhat. He/she has cut off the first six grades of thought delusions of the Desire Realm.

수다원 백만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사다함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사다함은 2과 아라한입니다. 그는 욕계의 첫번째 여섯 단계의 사혹을 끊었습니다.

View delusions refer to the fact that we give rise to desire and love when faced with a state.

견혹은 경계를 만날 때 애욕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ought delusions refer to our giving rise to discriminations because we're confused about the principles.

사혹은 이치에 대해 미혹하여 분별을 일으킴을 의미합니다.

In addition to having cut off view delusions, second stage Arhats also have cut off some thought delusions, justifying the “million” multiplier.

견혹을 끊는 것에 더하여 사다함은 일부 사혹을 끊어 보시의 공덕이 백만배가 됩니다. Second stage Arhats are also called “once returner”: they have to come back to the human realm once so that they can certify to the fourth fruition of Arhatship.

사다함은 또한 한 번 돌아온 자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계에 한번 돌아오면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Giving food to ten million Sakridagamin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Anagamin. The “Anagamin” has put an end to all thought delusions of the Desire Realm. That is the state of the third stage Arhat, who is also called “non-returner.” At the end of his/her life, the Anagamin ascends to the heavens where he/she will certify to the fourth fruition.

사다함 천만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아나함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욕계의 모든 사혹을 끝냈습니다. 아나함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자라고도 합니다. 이 생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고 아라한을 증득합니다.

It’s “ten million” times more meritorious to give to a third stage Arhat than a second stage Arhat.

사다함보다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천만배 더 이롭습니다.

Giving food to a hundred million Anagamin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Arhat. “Arhat” refers to the fourth fruition of Arhatship. They have incredible wisdom for they no longer have an ego. The “hundred million” multiplier henceforth reflect the incredible difficulty to progress from third to Fourth Stage Arhatship.

아나함 일억만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아라한 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상이 없기 때문에 큰 지혜가 있습니다. 억만배 더 이롭다는 것은 아나함에서 아라한까지 진전하기까지 매우 어려움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They have severed view and thought delusions in the Triple Realm and thus put an end of birth and death. They are also known as “those with no more to study.”

그들은 삼계의 견혹과 사혹을 끊고 생사를 끊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학無學으로도 알려졌습니다.

I'll provide more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four stages of Arhatship when I explain the Vajra sutra.

금강경 강설에서 아라한에 대해 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Giving food to one billion Arhat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Pratyekabuddha. The "*PratyekaBuddhas*" wisdom is higher than that of the Arhat. They practice the Twelve Conditioned Links十二因緣:

아라한 십억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벽지불 한 분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벽지불의 지혜는 아라한보다 더 높습니다. 그들은 12인연을 수행합니다.

1. Ignorance: namely the arising of sexual desire.
2. Action: namely the sexual act.
3. Consciousness: conception takes place. The eighth consciousness arrives.
4. Name and form: the fetus takes form.
5. Six entrances: organs begin to form.
6. Contact: with the external world through the sense organs.
7. Feeling: from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feelings arise.
8. Love: for the pleasant experience.
9. Grasping: cannot let go.
10. Existence: staging state between bodies.
11. Birth: one is born
12. Death: one dies.

1 무명: 즉 성욕이 일어납니다.

2 행: 성행위를 합니다.

3 의식: 수정이 일어납니다. 8식이 도착합니다.

4 명색: 태아가 형성됩니다.

5 육입: 기관이 형성됩니다.

6 촉: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합니다.

7 수: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느낌이 일어납니다.

8 애: 즐거운 경험을 사랑합니다.

9 취: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10 유: 태어날 준비를 합니다.

11 생: 태어납니다.

12 사: 죽습니다.

They prefer to retreat to the high mountains or secluded valleys to contemplate the above Dharmas.

그들은 위의 법을 관하기 위해 높은 산이나 고립된 산골짜기에서 은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When the Buddha is in the world, these cultivators are called “Enlightened to Conditions” 緣覺. When the Buddha is no longer in the world, they are called “Solitarily Enlightened to Conditions” 獨覺.

부처님 재세시에 이 수행자들을 연각緣覺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그들은 독각獨覺이라고 합니다.

They have a “one billion” multiplier over the Arhat. 그들은 아라한보다 10억 더 이롭습니다.

Giving food to ten billion Pratyekabuddhas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Buddha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This refers to the fruition of Buddhahood. For example, Shakyamuni Buddha had to undergo three asamkhyeya kalpas (uncountable number of kalpas) of practice before he became “a Buddha.” This is why to make an offer to a Buddha is “10 billion” times more meritorious than giving to a PratyekaBuddha.

벽지불 백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 한 분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이것은 불과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전에 삼아승지겁(무수한 겁을 나타냅니다.)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불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께 보시하면 100억배 더 이롭습니다.

Giving food to a hundred billion Buddhas of the three periods of time is not as good as giving food to a single person who is without thoughts, without dwelling, without cultivation, and without accomplishment. This refers to an enlightened being. He/she is:

부처님 천억 분을 공양하는 것이 한 분의 무념[無念], 무주[無住], 무수[無修], 무증[無證]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이는 깨달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Without thoughts”: his sixth consciousness stopped functioning.

그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육식은 기능을 멈췄습니다.

“*Without dwelling*”: “he can produce a mind that dwells nowhere 應無所住而生其心” as in the Vajra sutra. He needs to rely on nothing.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Without cultivation*”: he cultivates but yet he does not cultivate.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행하지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Without accomplishment*”: he sees that there is nothing that can be accomplished.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성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봅니다.

In other words, he’s pretty close to Buddhahood. But he’s no Buddha.

즉 그는 불도에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아닙니다.

Then why is there a much higher multiplier (“*hundred billion*”) than giving to the Buddhas?

그러면 왜 부처님께 보시하는 것보다 천억배 더 이롭습니까?

Aren’t there inherent contradictions here? Aren’t Buddhas’ merit and virtues supposed to be unsurpassed?

이는 모순이 아닙니까? 부처님의 공덕이 더 수승한 것 아닙니까?

I don’t know because I am no Buddha or one of these types of cultivators. But allow me to offer two possible explanations:

저는 부처님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수행자도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Buddhas are known throughout the Dharma Realm. You can be sitting here in the Saha world and make an offering to Amitabha Buddha who is right now ten billion worlds away to the West. It’s that “easy.” However, how do you make an offering to this individual with all these “without’s?” They are incredibly difficult to locate. That’s why the higher multiplier. These beings do not advertise themselves. In fact, they don’t even “*cultivate,*” how can they possibly feel worthy of our offerings?

부처님은 법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여기 앉아서 서방으로 100억 세계 떨어진 곳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런 것이 없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공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이 더 커집니다. 이 존재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2. Another possible reason is that the Buddhas do not need our offerings. These enlightened do so that they can accomplish their cultivation.

또 다른 가능성은 부처님은 우리의 공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은 존재들은 공양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수행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If you insist on asking me how to help locate one of these individuals: I can understand your rationale. The return on investment is considerable higher than investing in offering to the Buddhas!

어떻게 이들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보다 투자에 대한 이득이 더 큼니다.

They are Mahayana practitioners and therefore will occasionally come to support Mahayana practitioners. They will come to participate in Mahayana Great Assemblies. Even if you rub elbows with them, you won't be able to recognize them. Regardless, if you make offering to Great Assemblies, you are indirectly making an offering to them when they show up. This is what I admire about the Chinese. Traditionally, they are very generous in their support of Great Assemblies: they offer incense, flower, food, drinks, money, and volunteer their time, abode etc. If they keep it up, they are bound to be able to make an offering to these enlightened beings!

그들은 대승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대승 수행자를 지지하러 옵니다. 그들은 대승 대중법회에 참여하러 옵니다. 그들과 스쳐 지나가도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법회에 공양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나타날 때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중국에 대해 감탄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대중 법회를 너그럽게 지원합니다. 그들은 향, 꽃, 음식, 돈, 시간, 거주지 등을 공양합니다. 그들이 계속한다면 이 깨달은 존재에게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A sanghan asks Dhyana Master Wéi Zhèng: "Ven. Master, where can I find the Way?"

사문이 법사 위정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디서 도를 찾을 수 있습니까?"

The Master replies: "The Way is right front of you."

법사가 말했습니다. "도는 바로 자네 앞에 있네."

"If it's in front of my eyes, then how come I don't see it?"

“만약 그것이 내 눈 앞에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없습니까?”

“While there is a self, it can't be seen.”

“자아가 있으면 볼 수 없네.”

“With a self, one can't see the Way, may I ask, does the venerable Master see it?”

“자아로는 도를 볼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셨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If there is a self and others, neither can see it.”

“나와 남이 있으면 그것을 또한 볼 수 없네.”

“If there is no self and others, can it be seen?”

“나와 남이 없으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The reply was “If there is no self nor others then why bother seeking to see the Way?”

대답하길 “나와 남이 없으면 왜 굳이 도를 볼려고 하겠는가?”

Section 12:

A LIST OF DIFFICULTIES AND AN EXHORTATION TO CULTIVATE

제12장. 學難勤修(거난근수) 스무가지 어려움을 들어 닦기를 권한다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People encounter twenty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It is difficult to give when one is poor. It is difficult to study the Way when one has wealth and status. It is difficult to abandon life and face the certainty of death. It is difficult to encounter the Buddhist sutras. It is difficult to be born at the time of a Buddha. It is difficult to be patient with lust and desire. It is difficult to see fine things and not seek them. It is difficult to be insulted and not become angry. It is difficult to have power and not abuse it. It is difficult to come in contact with things and have no thought of them. It is difficult to be vastly learned and well-read. It is difficult to get rid of pride. It is difficult not to slight those who have not yet studied. It is difficult to practice equanimity of mind. It is difficult not to gossip. It is difficult to meet a Good and Wise Adviser. It is difficult to see one's own nature and study the Way. It is difficult to teach and save people according to their potentials. It is difficult to see a state and not be moved by it. It is difficult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skill-in-mean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하에 스무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첫째 가난함에 보시하기가 어렵고,

둘째 호귀(부귀)함에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셋째 정의의 죽음을 당하여 무난히 죽기가 어렵고,

넷째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 보기가 어렵고,

다섯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태어남)를 만나기가 어렵고,

여섯째 색을 참고 욕심을 참기가 어렵고,

일곱째 좋아하는 물건이나 일을 보고 구하지 않기가 어렵고,

여덟째 욕함을 듣고 성내지 않기가 어렵고,

아홉째 좋은 세력에 끌리지 않기가 어렵고,
열째 일을 당해서 무심하기가 어렵고,
열한째 널리 배우고 널리 연구하기가 어렵고,
열두째 아만심 없애기가 어렵고,
열셋째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아니하기가 어렵고,
열넷째 마음에 평등을 행하기가 어렵고,
열다섯째 시비를 말하지 않기가 어렵고,
열여섯째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고,
열일곱째 성품을 보아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열여덟째 때를 따라 사람을 제도하기가 어렵고,
열아홉째 경계를 대하여 동하지 않기가 어렵고,
스무째 방편을 잘 알아서 쓰는 것 또한 어렵나니라.”

佛言：人有二十難，

불언：인유이십난，

貧窮布施難，豪貴學道難，棄命必死難，得睹佛經難，

빈궁보시난，호귀학도난，기명필사난，득도불경난，

生值佛世難，忍色忍欲難，見好不求難，被辱不瞋難，

생치불세난，인색인욕난，견호불구난，피욕불진난，

有勢不臨難，觸事無心難，廣學博究難，除滅我慢難，

유세불림난，촉사무심난，광학박구난，제멸아만난，

不輕未學難，心行平等難，不說是非難，會善知識難，

불경미학난，심행평등난，불설시비난，회선지식난，

見性學道難，隨化度人難，睹境不動難，善解方便難，

견성학도난，수화도인난，도경부동난，선행방편난．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details a list of difficulties: The Buddha said, "People encounter twenty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이 장에서는 어려움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하에 스무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It is difficult to give when one is poor. For most of us, it's kind of difficult to imagine this. But how can one spare anything to give when one lacks everything? "Poor" really refers to destitution: one is so utterly poor!

첫째 가난함에 보시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것이 부족한데 줄 수 있습니까? "가난"은 궁핍함입니다. 아주 완전히 가난합니다!

It is difficult to study the Way when one has wealth and status. How many are there in the audience who is a billionaire? It takes a certain type of character to cultivate.

둘째 호귀(부귀)함에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청중 가운데 억만장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행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Wealthy people like to indulge themselves. Cultivators do not.

부자들은 스스로 즐깁니다. 수행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People with status like to throw their weight around. I remember my president boss who used to tell me that he "liked" being the boss because he could do as he pleased. In contrast, good cultivators prefer to yield to others.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이라는 자리가 "좋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좋은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It is difficult to abandon life and face the certainty of death. Death is scary, perhaps because of its finality ("*certainty*"). Even the people who tried suicide failed many times before they can succeed.

셋째 정의의 죽음을 당하여 무난히 죽기가 어렵고,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아마도 최종성("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실행하기 전까지 여러 번 실패를 겪습니다.

All living beings instinctively cling to life. When given a choice, it's never easy to "*abandon life*": the most precious thing we have.

모든 중생은 본능적으로 삶에 매달립니다. 선택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It is difficult to encounter the Buddhist sutras. This difficulty is clearly multi-

layered. How many people have heard of Buddhism? Furthermore, how many who heard of Buddhism would not reject it? For those who are open-minded about Buddhism, how many Mahayana Buddhist Sutras can you find in the bookstore; or in the library; in a language that you can understand?

넷째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 보기가 어렵고, 이 어려움은 분명히 여러 층으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듣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듣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불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대승불교 경전을 찾습니까?

It is difficult to be born at the time of a Buddha. To be able to meet with the Buddha is to be able to receive his help. It takes a lot of blessings to be able to receive the Buddha's help. Maitreya won't be born for quite a while. Where will you be?

다섯째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태어남)를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미륵불은 한동안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Buddhas only appear in the world when conditions mature. In other words, he has a specific group of living beings who need to be crossed over. That list is pretty exclusive.

부처님은 단지 연이 무르익을 때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는 특정한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It is difficult to be patient with lust and desire. The sexual attraction between men and women is one of the strongest forces in the Universe.

여섯째 색을 참고 욕심을 참기가 어렵고, 남녀간의 성적 끌림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의 하나입니다.

For those of us who have been on both sides of the fence, once you've experienced the sensual pleasures, it's most difficult to resist them ("*be patient*" with them).

감각적 즐거움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기 어렵습니다.)

Furthermore, the world we live in is the Desire Realm. We've purposely came here to satisfy our "*desires*"!

게다가 우리는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It is difficult to see fine things and not seek them. This refers to that subtle tendency of self-indulgence. We secretly aspire for “*fine things*”: the best things that money can buy, the most expensive things that we can afford.

일곱째 좋아하는 물건이나 일을 보고 구하지 않기가 어렵고, 이는 자기에게 탐닉하는 미묘한 경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좋은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에 열망합니다. In addition, it also alludes to that “keeping up with the Jones” attitude. Seeing others indulge themselves tends to make us “*seek*” more things.

게다가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태도를 암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 많이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California, you could substitute “fine things” with cars. The majority of us venerate cars.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것”이란 자동차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차에 열광합니다.

It is difficult to be insulted and not become angry. You probably don’t have this problem. When “*insulted*,” you don’t get “*angry*,” you simply get even instead, right?

여덟째 욕함을 듣고 성내지 않기가 어렵고, 여러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단지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To be insulted means that our all-important ego is under attack. I don’t know about you, I admit that it’s rather unpleasant! How dare they?

모욕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자아가 공격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모욕을 받으면 다소 불쾌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죠?

There is a famous story.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A monk came to a wealthy man for alms. The rich man invited the monk into his house. The layman put down an enormous priceless pink pearl on the table and went away to fetch for food to offer to the monk.

한 스님이 부잣집에 가서 탁발했습니다. 부자는 집으로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부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분홍빛 나는 진주를 탁자에 두고 스님께 공양 올릴 음식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A goose walked by, saw the big pink pearl and thought that it was a piece of meat. It came over and swallowed it.

거위가 지나가다가 분홍색 진주를 보고 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위는 다가와서 그것을 삼켰습니다.

The wealthy man came back with food and discovered that his prized gem was missing. Naturally, he accused the beggar monk for having taken it, saying: "there are only the two of us here. What kind of monk are you? How could you steal my gem from me?"

부자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의 소중한 보석이 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스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둘 밖에 없었는데 무슨 스님이 그런가요? 어떻게 내 보석을 훔칠 수 있죠?"

The monk only said: "I did not steal it"

스님이 말했습니다. "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

"Who did then?" asked the lay man.

"그럼 누가 했습니까?" 재가자가 물었습니다.

The monk stayed silent because he knew that if he told the man that the goose swallowed the pearl, the goose would lose its life.

스님은 묵묵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위가 진주를 삼켰다고 하면 거위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his only made the rich man even more furious. He called his servants, ordered them to tie up the monk and started beating him.

이는 부자의 화를 더 돋구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서 스님을 묶고 매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The monk took the beating and never uttered a word even when he bleeding heavily from the severe beating.

스님은 매질을 당했고 심한 매질로 피가 흥건하게 흘렀지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he goose saw flesh and blood and therefore greedily headed over for a meal. The rich man killed it in one blow in his fit of rage. It was only then the monk told the wealthy man to locate the pearl in the stomach of the goose.

거위는 살점과 피를 보고 탐욕스럽게 먹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 부자는 화가 나서 일격에 그것을 죽였습니다. 그제야 스님은 부자에게 진주가 거위의 위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Can we have enough Way virtue to endure insult and suffering without getting angry?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모욕과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덕이 있습니까?

It is difficult to have power and not abuse it. A well-known American official Dr. Kissinger, didn't he say that power is the most potent aphrodisiac? Power over the weaker sex is very addictive, right ladies?

아홉째 좋은 세력에 끌리지 않기가 어렵고, 잘 알려진 미국 관료 키신저는 권력이 가장 강력한 최음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증독적입니다. 여성분들 그렇지 않나요?

Perhaps, you feel that I'm being unfair. That's only because he have no real power yet over others. Trust me, when you do, you will definitely "abuse" it! Why? Until we eliminate our ego, we invariably will choose to serve our ego at the expense of others.

아마도 여러분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권력이 있으면 분명히 남용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야상을 없애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우리의 자아를 섬길 것입니다.

It is difficult to come in contact with things and have no thought of them. "To be in contact with things" refers to encountering the dusts. Our six sense organs: ears, eyes, nose, tongue, body and mind come into contact with the externals (sound, form, smell, taste objects, touch objects and things) and our mind gets going and we can't stop it.

열째 일을 당해서 무심하기가 어렵고, 당한다는 것은 진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근: 안이비설신의는 외적인 것(색성향미촉법)과 접촉하고 마음은 계속 굴러가며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For example, you've certainly have had song refrains that suddenly pop into their minds and that you can't shake off? How about day-dreaming? What about your first love? What about that first time you touched?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노래 가사가 갑자기 떠오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나요? 백일몽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접촉한 것은 어떻습니까?

Clearly, the list can be quite long.

분명히 목록은 매우 길어집니다.

It is difficult to be vastly learned and well-read. “*Vastly learned and well-read*” comes from the Chinese 廣學博究. “Vastly learned” gives breadth. “Well-read” could be also literally translated as “deeply researched,” providing depth. It’s probably what we call as a “Renaissance man” nowadays.

열한째 널리 배우고 널리 연구하기가 어렵고, 광대하게 배우는 것은 폭을 나타냅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깊이를 나타냅니다. 요즘에 우리가 르네상스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he difficulty lies in the approach used in acquiring knowledge. Ordinary people cram things into their brains through repetition and volume. The better approach would be to develop “wisdom” which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conscious mind.

어려운 점은 지식을 얻는데 사용된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머리 속에 반복을 통해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더 나은 방식은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적인 마음과 별도로 작용합니다.

Even in these days of the smart phones and Internet, which minimize the need to memorize, it’s still pretty hard to be able to synthesize the information.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에 암기할 필요성은 적어지지만 여전히 정보를 종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It is difficult to get rid of pride. Let’s face it: our world is built by very big egos. They set out to conquer the world. Many died trying to dominate it. “*Pride*” is what motivates us to build our world! To be “*rid of*” it would be tantamount to take meaning away from our existence.

열두째 아만심 없애기가 어렵고, 직면하세요 우리 세계는 매우 큰 아상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아만심은 우리가 세계를 세우게끔 합니다. 아만심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At a smaller scale, pride reflects an attachment to the ego. Who does not want to be better, to be admired, to be praised, to be liked, to be loved? Try to take that away!

더 작은 규모에서 아만심은 아상에 대한 집착을 반영합니다. 누가 더 낮고 더 추앙받고 칭찬받고 사랑 받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세요.

It is difficult not to slight those who have not yet studied. They are so uncouth!

I once interviewed a man whom we later hired as Chief-engineer. He's a decent man, well-educated and married to a lady who was a university professor on the East coast. He was at an engineering firm in the Boston area for the previous twenty years. Since I was interested in hiring him, I called up his boss, the owner of the engineering firm in Boston who said: "He is very competent but he's "un-suave." Not only do you have study/acquire knowledge, you must also acquire manners and style.

열셋째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벼이 아니하기가 어렵고, 그들은 정말 무례합니다. 예전에 책임 엔지니어 지원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고 학력도 좋았습니다. 아내는 동부 지역의 대학교수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보스턴에 있는 엔지니어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나는 그의 채용에 관심이 있어 보스턴 엔지니어 회사의 사장인 그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사는 말하길 그는 매우 유능하지만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할 뿐만 아니라 예의범절도 익혀야 합니다.

It is difficult to practice equanimity of mind. "*Equanimity of mind*" the lack of discrimination, the ability to look at everything as level and equal.

열넷째 마음에 평등을 행하기가 어렵고, "마음의 평정" 은 분별의 부재,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Who has control over your discriminating mind? In fact, our education system excels at sharpening our discriminating mind. Society rewards those who can discriminate well very generously.

누가 당신의 분별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을 예리하게 키우는데 탁월합니다. 사회는 분별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후하게 보상합니다.

Discrimination arises from the inability to see through things and drop them.

It takes wisdom to undertake "*practicing*" equanimity.

분별은 사물을 꿰뚫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평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It is difficult not to gossip. Have you noticed how it is always more interesting to hear of other's faults?

열다섯째 시비를 말하지 않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는 것은 항상 솔깃하지 않나요?

At our temple, we have sutra lecture on Saturdays and Sundays between 12:30pm and 2:30pm. That's right after lunch time! Quite often, I noticed that some people tend to doze off, especially after eating those delicious dishes that our faithful like to bring the temple on the weekend.

우리 절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12시 반부터 2시 반 사이에 경전강설을 합니다. 바로 점심 공양 직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주 그 시간에 졸니다. 특히 주말에 신도님들이 절에 가져온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I notice that if I tell more people stories during the first part of the lectures, it tends to help people stay awake more easily. Yes, it is indeed difficult not to stray into gossiping!

나는 강설 시간 첫 부분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깨어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It is difficult to meet a Good and Wise Adviser.

열여섯째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고,

A Good Knowing Adviser is a competent teacher. It is very difficult to encounter a wise teacher. It is even much more difficult for him to feel that you are worthy to be taught!

선지식은 뛰어난 스승입니다. 현명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이는 것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In the Avatamsaka Sutra, Good Wealth Bodhisattva travels vast distances to seek out Good Knowing Adviser's in order to be taught how to get enlightened 화엄경에서 선재동자는 깨달음을 얻는 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선지식을 찾아서 먼 거리를 다녔습니다.

Buddhist scriptures recount the story of old Bhikshu who heard a group of young monks speak of the Arhat fruition and inquired about it. They made fun of the old monk and demanded him to prepare good meals for them before they taught him. He obliged. After eating their fill, they told him to cross his legs and meditate. They then started to play soccer. They used the ball to hit

the old monk's head saying that this is first stage Arhatship. The old man was very grateful and continued to sit and contemplated the first fruition. He attained it not too long afterward. The similar thing happened; the young monks hit the old monk's head with the ball and successively transmitted that Dharma to the old monk for 2nd, 3rd and Fourth Stage Arhat. The old man reached 4th stage Arhat!

불경에 한 노비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비구는 젊은 스님들이 아라한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노비구를 놀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에 좋은 음식을 공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은 후에 그에게 다리를 틀고 명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으로 노비구의 머리를 맞추고 이것이 수다원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비구는 매우 감사해하였고 계속 앉으면서 수다원과를 관했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서 수다원과를 증득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노비구의 머리를 공으로 치고 연속해서 사다한, 아나함, 아라한과를 전했습니다. 노비구는 아라한과에 도달했습니다.

It is difficult to see one's own nature and study the Way. *"To see one's own nature"* is to become enlightened. For example, Chan is one of such Dharma Doors. They have a saying: see your own nature and become a Buddha. This is not an easy feat.

열일곱째 성품을 보아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견성은 깨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은 이런 법문 중 하나입니다. 견성하고 부처님이 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Once you've seen your nature, once you've awakened to your Buddha nature, you still have to *"study the Way"* further to attain "later acquired wisdom." This second phase of cultivation is fraught with difficulties!

견성하고 불성을 깨달아도 여전히 후득지後得智를 얻기 위해 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두번째 단계의 수행은 어렵습니다.

It is difficult to teach and save people according to their potentials. The original Chinese text reads: *"隨化度人難."* I would translate it as *"it is difficult to accord with, transform and cross over people."*

열여덟째 때를 따라 사람을 제도하기가 어렵고, 본래 원문은 隨化度人難입니다. 이는 사람과 어울리고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To accord with” means to go with the flow and yet not compromise oneself.

隨: 흐름에 따르지만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To transform”: to make something appear from thin air. Have you ever tried to transform a naughty and impish kid into a good and obedient one?

化: 무언가를 나타나게 합니다. 버릇없는 아이를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To cross over”: to help end birth and death. This requires that you already know how to end your own birth and death before you can teach others how to do it. That’s double jeopardy!

度: 생사를 끝내도록 돕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사를 끝내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생사를 끝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중 위험입니다.

The great and wise Shariputra had two disciples, a cemetery caretaker and an iron smith. He taught them but they made no progress at all.

위대하고 현명한 사리불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묘지기와 대장장이였습니다. 사리불은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전혀 진전하지 않았습니다.

He came and asked The Buddha for advice.

그가 부처님께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The World-Honored-One asked him what he taught them.

세존은 그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물었습니다.

Ven. Shariputra said: “I taught the ex-cemetery caretaker to contemplate the breath and the iron smith the nine impure contemplations (refer to section 24).”

사리불이 이르길 저는 전 묘지기에게는 숨을 관하고 대장장이에게는 9가지 부정관을 가르쳤습니다.

Shakyamuni Buddha said: “They have the wrong Dharma Doors. Switch Dharma Doors between the two of them.”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르길 “그들의 법문을 잘못되었다. 그 둘 간의 법문을 바꾸어라.”

Shariputra did as ordered. His two disciples shortly attained Arhatship.

사리불은 명한 대로 하였습니다. 그의 두 제자는 곧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Great Knowing Advisers have a knack of knowing what to teach us so as to help us make progress.

대선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 알아서 우리의 진전을 돕습니다.

It is difficult to see a state and not be moved by it. “A state” is whatever your sense organs register. Our mind is most alert. As soon as it registers anything, it starts processing it immediately: it “moves.”

열아홉째 경계를 대하여 동하지 않기가 어렵고, 경계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등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가장 경각심이 강합니다. 어떤 것이든 등록이 되면 즉시 처리를 시작합니다. 즉 그것은 움직입니다.

Another equivalent Buddhist term is “turned.” A state can turn the mind’s attention away from the matter at hand, hence the phrase “turned by a state.” 또 다른 동일한 불교 용어는 “전(轉: 굴리다)”. 경계는 마음의 주의를 당면한 과제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에 의해 돌린다고 합니다.

In particular, advanced cultivators often experience wonderful states when they meditate. Let me give you an advance warning. Watch out for that thought of arrogance arising so spontaneously. If you seize upon it, you will get derailed.

특히 뛰어난 수행자는 명상할 때 놀라운 경계를 종종 체험합니다. 제가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오만한 생각을 조심하세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길에서 벗어납니다.

It is difficult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skill-in-means. Another term for “skill-in-means” is expedients. This is a most frequently misunderstood concept in Buddhism. A good many are confused and commit offenses and justify them as expedients.

스무째 방편을 잘 알아서 쓰는 것 또한 어렵나니라. 또다른 용어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편법으로 정당화합니다.

For instance, Buddha “lied” to a child who was about to fall to bottom of the well. He held out an empty hand and called to that child who was getting to dangerously close to the top of a deep well and said: “Little one, I have some candy for you.” You can lie too if you have the Buddha’s wisdom. Until then don’t use expedients.

예를 들어 부처님은 우물 밑으로 떨어지려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빈손을 내밀고 깊은 우물가에 위험하게 다가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꼬마야, 여기

사탕이 있어.” 여러분도 부처님의 지혜가 있으면 또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편을 사용하지 마세요.

What do you think “*a good understanding*” refers to? Transcendental wisdom.

잘 알아서 는 무엇을 일컫습니까? 출세간적인 지혜입니다.

By the way, higher level (and thus very wise) Bodhisattvas need to spend a lot of time developing understanding of skill-in-means. If you have no true wisdom yet, please do not use it as an excuse for creating offenses!

높은 단계(매우 현명한)의 보살이 방편을 개발하고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진정한 지혜가 없다면 방편을 핑계로 잘못을 짓지 마세요.

Section 13:

QUESTIONS ABOUT THE WAY AND PAST LIVES

제13장. 會道知命(회도지명) 지극한 도를 아는 방법.

Sutra text:

경전 문헌:

A Sramana asked the Buddha, "By what causes and conditions can I know my past lives and understand the ultimate Way?" The Buddha said, "By purifying your mind and preserving your resolve, you can understand the ultimate Way. Just as when you polish a mirror, the dust vanishes and brightness remains. If you cut off desire and do not seek, you then can know past lives."

한 제자가 있어 부처님께 사뢰어 말하되,

“어떠한 인연으로써 도를 얻으며 또 어떻게 하여야 전생 일을 알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는 현묘하여 범상한 생각으로써 가히 알지 못할지니, 오직 뜻을 지켜 마음이 청정한 후에야 가히 도를 얻을 것이요, 따라서 전생 일을 알게 될지라 비유컨대 거울에 있는 때만 닦아 버리면 스스로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나니라. 욕심을 끊어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곧 속명통을 얻을 수 있다.”

沙門問佛：以何因緣，得知宿命，會其至道，

사문문불：이하인연，득지숙명，회기지도，

佛言：淨心守志，可會至道。譬如磨鏡，垢去明存，斷欲無求，當得宿命。

불언：정심수지，가회지도。비여마경，구거명존，단욕무구，당득숙명。

Sutra commentary:

주석:

The previous section talks about difficulties in cultivation. Now, this section explains about how the spiritual penetration of knowledge of past live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Way.

앞 장에서는 수행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속명통이 도의

이해에 있어서 어떻게 직접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Sramana asked the Buddha, "By what causes and conditions can I know my past lives and understand the ultimate Way?"

한 제자가 있어 부처님께 사뢰어 말하되, “어떠한 인연으로써 궁극적인 도를 얻으며 또 어떻게 하여야 전생 일을 알겠나이까?”

A left-home person asks the Buddha…

한 출가자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Cause”: direct factor, like the seed planted that can produce flowers.

인은 직접적인 요소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꽃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Condition”: aiding factor; usually many are required: for example, conditions like the sun, fertilizer, soil, etc… have to be present before it can flower.

연은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대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기까지는 햇빛, 비료, 흙 등이 필요합니다.

To “know of past lives”: to know of the various incarnations of the previous lives. This refers to the obtaining of the spiritual penetration of the knowledge of past lives, one of the six spiritual penetrations

전생 일을 알겠나이까 이는 육신통의 한 가지인 속명통입니다.

(1. Heavenly Eye 2. Heavenly Ear 3. Knowledge of past lives 4. Spiritual Foot 5. Knowledge of others’ thoughts 6. Exhaustion of outflows).

(1 천안 2 천이 3 속명 4 신족 5 타심 6 누진)

To “understand the ultimate Way 會其至道”: “understand” refers to the awakening to or the realization of; “ultimate” refers to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cultivation of the Way, the unsurpassed Buddha fruition. In other words, one realizes the Buddha Way.

궁극적인 도를 얻으며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도수행의 마지막 목적지, 위없는 불과를 의미합니다. 즉 불도를 깨달았습니다.

The Buddha said, "By purifying your mind and preserving your resolve, you can understand the ultimate Way. Here, the Buddha reverses the order of his answers. He answers the second part first. In order to realize the Way, one mus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는 현묘하여 범상한 생각으로써 가히 알지 못할지니, 여기서 부처님은 그의 대답하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분을 먼저

대답했습니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

1. “Purify our mind”: means to keep precepts. Precepts consist of two factors: a. Commit no evil (stop all evil) b. Offer up all good (cultivate all good conduct; in particular to benefit others).

마음을 정화합니다: 계를 지킵니다. 계는 1) 악을 그치고 2) 선을 행하는 (일체선행을 수행합니다. 특히 타인을 이롭게 합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 “Preserve our resolve”: means not to give up cultivation. Resolve refers to resolve for Bodhi.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how difficult it appears to be, we must not give up.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 수행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심은 보리심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In other words, if we uphold precepts and plug along, we will definitely attain the Way.

즉 우리가 계를 받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도를 얻을 것입니다.

Just as when you polish a mirror, the dust vanishes and brightness remains.

The “*mirror*” is an analogy for our self-nature; the “*dust*” symbolizes our afflictions. When we “*polish*” our mirror in order to remove the defilements, only “*brightness remains*”: we can recover our inherent wisdom.

오직 뜻을 지켜 마음이 청정한 후에야 가히 도를 얻을 것이요, 따라서 전생 일을 알게 될지라 비유컨대 거울에 있는 때만 닦아 버리면 스스로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과 같나니라.” 거울은 우리 자성의 비유입니다. 때는 우리의 번뇌를 상징합니다.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 거울을 닦으면 오직 밝음만 남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If we can keep on dusting off our self-nature non-stop, we will certainly regain ultimate purity and attain the Way.

자성에 먼지를 끊임없이 계속 털어내면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인 청정을 다시 얻고 도를 얻을 것입니다.

Furthermore, **If you cut off desire and do not seek, you then can know past lives.** As to the knowledge of last lives spiritual penetration, we can obtain it by:

게다가 욕심을 끊어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곧 속명통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속명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Cutting off desire: do away with desires, especially sexual desire.

욕망을 끊어: 욕망, 특히 성욕을 없앱니다.

2. Not seeking: do not run outside and seek for externals.

구하지 않으면: 밖으로 치달리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The Buddha's subtle message here is that cultivators should have clear priorities.

여기서 부처님은 수행자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은밀히 전달합니다.

It's not uncommon for cultivators to aspire to obtain spiritual powers. Instead they should aim to develop wisdom primarily.

수행자들이神通력을 얻기를 열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대신 그들은 주로 지혜의 개발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As cultivators cultivate wisdom by keeping precepts and perfecting the patience paramita (by not giving up), naturally they will be able to cut off desires and have no seeking. They can thus obtain the penetration of the knowledge of past lives. Spiritual powers are natural consequences of cultivation. They should not be the primary objective of cultivation.

수행자들이 계율을 지키고 인욕바라밀(포기하지 않음)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지혜를 기르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욕망을 끊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宿命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神通력은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주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One should first attempt to develop wisdom so as to be able not to abuse spiritual penetrations. Unfolding wisdom will bring about spiritual penetrations. In contrast, obtaining spiritual penetrations will not lead to obtaining the Way.

신통을 악용하지 않도록 먼저 지혜를 개발해야 합니다. 지혜를 펼치면 신통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신통은 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Section 14:

ASKING ABOUT GOODNESS AND GREATNESS

제14장. 眞修合道(진수합도) 진실한 것과 가장 큰 것

Sutra text:

경전 문헌:

A Sramana asked the Buddha, "What is goodness? What is the foremost greatness?" The Buddha said, "To practice the Way and uphold the truth is goodness. To unite your resolve with the Way is greatness."

한 제자가 있어 부처님께 사뢰어 말하되, “무엇이 선(善)이 되며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행하고 참(진眞)을 지키는 것이 선(善)이요, 뜻이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선이라 하는가 오직 참을 지키고 도를 행하는 것을 선하다 하나니라.

무엇을 제일 크다 하는가?

뜻이 도로 더불어 합한 것을 크다 하나니라.

무엇을 가장 힘이 많다 하는가?

욕된 것을 참는 것을 제일 힘이 많다 하나니라.

무엇을 제일 밝다 하는가?

마음에 때가 다 없어지고 악행이 또한 다 멸하여 안과 밖이 맑고 맑아 마음 가운데 조금도 티끌이 없어서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오늘까지 이 우주 안에 벌여 있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도 없고, 들리지 않는 바도 없어서 모든 것을 당하는 대로 막히는 곳이 없고, 보면 가히 이르되 밝다 하리라.”

沙門問佛：何者爲善，何者最大，

사문문불：하자위선，하자최대.

佛言：行道守眞者善，志與道合者大.

불언：행도수진자선，지여도합자대.

Sutra commentary:

주석:

True goodness is to cultivate. True greatness is to certify to Bodhi.

진정한 선은 수행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보리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A Sramana asked the Buddha, "What is goodness? What is the foremost greatness?" What are the standards that we should adhere to for goodness and greatness?

한 제자가 있어 부처님께 사뢰어 말하되, “무엇이 선(善)이 되며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선과 위대함을 위해 지켜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Greatness has the connotations of enormous, numerous and superior. In the worldly sense, we have the four greats: Earth, wind, fire and metal.

위대함은 거대하고 수없이 많고 수승함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지수화풍의 사대가 있습니다.

The Buddha said, "To practice the Way and uphold the truth is goodness. To purify oneself and help others is goodness. It's about the three non-outflow studies of precepts, samadhi and wisdom. It's about cleansing oneself of defilements, clearing one's head so as to make the right choices. That entails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and upholding them: that's the truth.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행하고 참(진眞)을 지키는 것이 선(善)이요, 자신을 정화하고 타인을 돕는 것이 선입니다. 이는 계정혜의 삼무루학입니다. 이는 자신의 더러움을 닦고 머리를 맑혀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닙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To practice the Way": is to cultivate goodness. It's the Way of goodness.

도를 행하고 선을 수행합니다. 선의 도입니다.

"To uphold the truth":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i.e. the truths about the Dharma Realm) and to live accordingly (observe the truth with our lives and body). There is no better goodness.

참(진眞)을 지키는 것이 이(법계에 대한 진실理)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사는 것(몸과 목숨을 다해 참을 지킵니다.)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은 없습니다.

To unite your resolve with the Way is greatness: Unite your resolve and

aspirations with the Way. That's the engine behind certifying to sagehood: the beginning of greatness.

뜻이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니라.” 도에 대해 결심하고 열망을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성현을 증득하는 원동력입니다. 위대함의 시작입니다.

One starts with resolving for Bodhi: we want to cultivate to attain enlightenment. As soon as that happens, we will encounter countless tests of our resolve.

보리를 발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자마자 결심을 시험하는 수많은 시험에 직면합니다.

For example, there was a young Vietnamese lady who decided to leave the home life to cultivate the Way. She had no interest in the opposite sex and had no aspiration for riches. However, as soon as she decided to leave the home life, her Caucasian colleague with whom she had been good friend for her entire five-year career at the firm, all of a sudden took a romantic interest into her. He began to declare his love for her and said that he could not live without her. His earnestness greatly weakened her resolve.

예를 들어 젊은 베트남 여인이 도를 수행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성애에 관심이 없었고 부에 대한 열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가를 결심하자마자 그녀와 5년간 좋은 친구로 지냈던 백인 직장 동료가 갑자기 그녀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였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그녀의 결심을 매우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If we can preserve our resolve and overcome the many tests, we can then “*unite with the Way*”: we become one with the Way. That is ultimate greatness.

우리가 결심을 확고히 하고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 도와 합할 수 있고 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위대함입니다.

To achieve ultimate greatness, you must conquer the ultimate enemy: yourself.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whatever anyone was able to come up with, he or she will be eventually surpassed in time. For example, no world record ever lasts forever. And yet, the people of the world continue to dedicate their life in the pursuit of these futile goals. In contrast, those who learn to conquer themselves become great men. The ultimate great man is

the position of a Buddha. If you are really into greatness, settle for nothing less!

궁극적인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해 궁극적인 적: 자신을 정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세계 기록도 영원히 지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덧없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헌신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정복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위대한 사람은 부처입니다. 진정 위대하다면 이보다 낮은 목적에 만족하지 마세요.

Section 15:

ASKING ABOUT STRENGTH AND BRILLIANCE

제15장. 忍智力明(인지력명) 힘센 것과 가장 밝은 것

Sutra text:

경전 문헌:

A Sramana asked the Buddha, "What is the greatest strength? What is the utmost brilliance?"

The Buddha said, "Patience under insult is the greatest strength, because people who are patient do not harbor evil, and they gradually grow more peaceful and strong. Patient people, since they are not evil, will surely gain the respect of others. When the mind's defilements are gone completely, so that it is pure and untainted, that is the utmost brilliance. When there is nothing, from before the form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until now, in any of the ten directions that you do not see, know, or hear; when you have attained All Wisdom, which may be called brilliance."

한 제자가 있어 부처님께 사뢰어 말하되, "무엇이 가장 힘센 것이고 무엇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욕됨을 참는 것이 가장 힘센 것이다.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다. 참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마음에 낀 때가 다 없어져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이 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천지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온 누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함이 없고 알지 못함이 없으며 듣지 못함이 없어 일체지(一切智)를 얻으면 밝음(明)이라 할 수 있다."

沙門問佛: 何者多力, 何者最明.

사문문불: 하자다력, 하자최명.

佛言: 忍辱多力, 不懷惡故, 兼加安健, 忍者無惡, 必爲人尊;

불언: 인욕다력, 불회오고, 겸가안건, 인자무오, 필위인존;

心垢滅盡, 淨無瑕穢, 是爲最明, 未有天地, 逮於今日,

심구멸진, 정무하예, 시위최명, 미유천지, 체어금일,

十方所有, 無有不見 無有不知, 無有不聞, 得一切智, 可謂明矣.
시방소유, 무유불견, 무유불지, 무유불문, 득일체지, 가위명의.

Sutra commentary:

주석:

A Sramana asked the Buddha, "What is the greatest strength? What is the utmost brilliance?" A left-home person asks the Buddha about patience and brilliance.

한 제자가 있어 부처님께 사뢰어 말하되, "무엇이 가장 힘센 것이고 무엇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사문이 부처님에게 인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Strength*": can help us prevail over others. There are six kinds of strength:

힘은 타인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섯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1. child's tears' strength
2. women's hatred strength,
3. Brahman's patience strength
4. King's arrogance strength
5. Arhat's vigor strength
6. Buddha's compassion and kindness strength.

1 아이의 눈물 2 여성의 증오 3 브라만의 인욕 4 왕의 오만 5 아라함의 정진력 6 부처님의 자비

"*Great strength*" (literally "*very strong*" in the original Chinese text), means that one can move others but others cannot move one.

가장 힘센 것이라는 것은 타인을 움직일 수 있지만 타인은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Buddha said, "Patience under insult is the greatest strength.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욕됨을 참는 것이 가장 힘센 것이다.

"*Patience*": one can bear unfavorable circumstances and yet our mind does not get angry or move.

인忍: 좋지 않은 환경을 견디지만 마음에서는 화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There are three kinds of patience:

세 가지 종류의 인이 있습니다.

1. Patience against the enemy's harm耐 怨 害 忍. We may be scolded, beaten, criticized, slandered, harmed etc. But can patiently endure it. This is also known as being patience生 忍: patience against living beings.

적의 해침에 대한 인욕. 우리는 꾸짖음, 매질, 비난, 비방, 해침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내있게 견딥니다. 이를 생인生忍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생에 대한 인衆生忍입니다.

2. Patience to peacefully endure suffering安 受 苦 忍. For example, one can patiently endure heat, cold, hunger, sickness etc. It's also called Dharma patience法 忍.

고통을 평화롭게 견디는 인입니다. 예를 들어 더위, 추위, 배고픔, 병 등을 인내있게 견딥니다. 이는 법인法忍입니다.

3. Dharma Patience of Principles examination諦 察 法 忍. We examine the principles and thoroughly understand them. We penetrate the doctrines and therefore put everything down and see through everything. It's also called The first principle patience第 一 義 忍: we can patiently endure anything because we understand the principles.

이리를 공부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이치를 꿰뚫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이는 제일의인第一義忍입니다. 우리는 이치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인내있게 견딥니다.

Because people who are patient do not harbor evil, and they gradually grow more peaceful and strong.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다.

Patient people do not get upset and do not blame others for their difficulties and their suffering. Therefore they "do not harbor evil": no matter how badly they are treated, no matter how unjustified the treatment, they harbor no resentment or anger. They will not do anything evil (commit the ten evils) to retaliate.

인욕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우가 나쁘고 부당할지라도 그들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복하기 위해 어떤 악도 행하지 않습니다.

If you have such control over your temper, you will “*gradually grow more peaceful and strong.*” If you harbor no evil intentions toward others, you will gradually become more at ease with them and vice versa. You will incrementally become more at peace with your self and with the world around you.

여러분이 화를 다스린다면 더 편안해지고 강해집니다. 타인에 대해 악한 의도를 품지 않으면 점차로 더욱 자재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재하면 악한 의도를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욱 평화롭습니다.

Peace comes from the total lack of contention.

평화는 논쟁이 완전히 없음에서 일어납니다.

Furthermore, you can gradually become “*stronger*” too. Your increase in strength is from two reasons:

게다가 여러분은 또한 점차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강해지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Lack of patience underscores weaknesses of character. The more patient you become, the more of these weaknesses you have overcome. The ancients liken it to smelting gold. Patience is that high heat that increasingly refines the gold.

인욕의 부족은 성격에 있어서 약점입니다. 인욕할수록 이런 약점을 더욱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금의 제련에 비유했습니다. 인욕은 점점 더 금을 제련하는 높은 열입니다.

2. To get angry is to spend a lot of energy. Patient people do not waste their energy on evil things and therefore they have more strength.

화를 내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인욕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힘이 있습니다.

I define strength as the ability to take a beating. Stronger people can take more of a beating. Weak people cannot take a beating and survive.

힘은 매를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매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The more beating you endure, the stronger you become: you become more and more immune to those attacks.

더 많은 매를 참을수록 여러분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공격에 더욱 면적이

생깁니다.

Patient people, since they are not evil, will surely gain the respect of others.

Patience is a virtue. Patient people are virtuous people and therefore “*will surely gain the respect of others.*” For example, the ghosts and spirits are not impressed by strength or power. They however respect and are deferent toward virtuous individuals. Take the lead from Jesus: turn the other cheek. You surely will be admired (because you are strong) and respected (because you are virtuous).

참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으므로 반드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인은 덕입니다. 인욕하는 사람은 덕이 있어서 타인의 존경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은 힘과 권력을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있는 자들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뺨을 내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강하기 때문에 존중받고 덕으로 존경받습니다.

True strength manifests as patience. Patience helps erase defilements and obtain unobstructed wisdom.

진정한 힘은 인욕으로 나타납니다. 인욕으로 더러움을 없애고 장애없는 지혜를 얻습니다.

When the mind's defilements are gone completely, so that it is pure and untainted, that is the utmost brilliance.

마음에 낀 때가 다 없어져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When the mind's defilements are gone completely*”: there is no more greed, hatred and stupidity. When the mind is absent of those three poisons, it is then free of defilements.

마음에 낀 때가 다 없어져 더이상 탐진치가 없습니다. 마음에 이런 삼독이 없을 때 더러움에서 자유롭습니다.

“*It is pure and untainted,*” the actual Chinese text is literally “pure without flaw (like jade) and undefiled 淨無瑕穢.” It attains its purest form and completely free of impurities.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을 때 淨無瑕穢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불순함이 완전히 없습니다.

That is the utmost brilliance: at that moment, its utter “*brilliance*” manifests.

“Brilliance” refers to the light of wisdom. Yes, your mind emits light, the light

of wisdom. Once your mind is free of delusions and ignorance, its natural brilliance is revealed.

이것이 가장 밝은 것이다. 그 순간 완전한 밝음이 나타납니다. 밝음은 지혜의 빛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빛, 지혜의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미혹과 무지에서 벗어날 때 자연히 밝음이 드러납니다.

What is this state of absence of defilements of the mind?

마음에 더러움이 없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The mind ultimately becomes empty: **there is nothing, from before the formation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until now** even before our world was ever formed or we were ever born onto it (time axis), **in any of the ten directions that you do not see, know, or hear**, this emptiness extends through (space axis), even in all the space dimensions where our sensors cannot reach.

천지가 있기 전부터 지금까지 온 누리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함이 없고 마음은 완전히 공합니다. 알지 못함이 없으며 듣지 못함이 없어 일체지(一切智)를 얻으면 세계가 형성되기 전 혹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공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닿을 수 없는 모든 공간까지 퍼집니다.

When you have attained All Wisdom, which may be called brilliance. “*All Wisdom*” is the wisdom of the sages. They’ve realized True Emptiness. That wisdom is utmost brilliant.

일체지(一切智)를 얻으면 밝음(明)이라 할 수 있다. 일체지는 성인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진공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는 완전히 밝습니다.

Section 16:

CASTING ASIDE LOVE AND ATTAINING THE WAY

제16장. 斷欲見道(단욕견도) 애욕을 버리고 참된 도를 보라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People who cherish love and desire do not see the Way. Just as when you stir clear water with your hand, those who stand beside it cannot see their reflections, so, too, people who are entangled in love and desire have turbidity in their minds, and therefore they cannot see the Way. You Sramanas should cast aside love and desire. When the stains of love and desire disappear, you will be able to see the Wa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집착과 탐욕을 품어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비유컨대 탁한 물 가운데 다섯 가지 물감을 풀어 힘대로 저어 놓으면 비록 사람이 그 물 위에 다다를지라도 능히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나니, 사람도 집착과 욕심이 서로 얽혀져 마음이 맑지 못한 고로 또한 도를 보지 못하나니라.

또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로써 끓이고 보면 그 물이 펄펄 뛰어 비록 사람이 그 물을 들여다볼지라도 또한 그림자가 보이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도 본래 삼독이 있어서 항상 펄펄 끓고 또는 다섯 가지 욕심이 밖을 덮어 마침내 도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나 사람이 만일 선지식을 가까이하여 안으로 삼독심을 끊어 버리고 밖으로 오욕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여 마음만 청정히 하고 보면, 곧 도를 보아 혼령의 소종래(所從來, 내력)와 만물의 죽고 나는 이치와 제불국토를 다 알으리라."

佛言：人懷愛欲，不見道者，譬如澄水，致手攪之，衆人共臨，

불언：인회애욕，불견도자，비여징수，치수교지，중인공림，

無有睹其影者，人以愛欲交錯，心中濁興，故不見道，

무유도기영자，인이애욕교차，심중탁흥，고불견도，

汝等沙門，當捨愛欲，愛欲垢盡，道可見矣。

여등사문，당사애욕，애욕구진，도가견의。

Sutra commentary:

주석:

The previous section talks about strength and brilliance, the two necessary factors for success. What else do we need? Here, the Buddha reveals that our mind originally is like settled water. We can't see our nature because our mind water is agitated by love and desire. We need to unburden ourselves so as to get to our destination quicker.

앞 장에서 우리는 힘과 밝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성공을 위한 두가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부처님은 우리 마음이 본래 가라앉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물은 애욕에 의해 동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The Buddha said, "People who cherish love and desire do not see the Way. A little bit tough on our ears: to find out that the one thing that the Western culture values, love, is the very thing that muddles our mind. Desires make us chase after external things and therefore take us off center. This includes the love of God, Allah and for that matter, Buddha!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집착과 탐욕을 품어 도를 보지 못하는 것은 서구 문화가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욕망으로 우리는 외적인 것을 쫓고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에는 신의 사랑, 알라, 부처님도 포함됩니다!

"Cherish" means to harbor, value or nurture. Ordinary people accept "love and desire" as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They cherish love and find meaning in fulfilling their desires.

보통 사람들은 애욕을 인간의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Such people will not be able to *"see the Way."* They cannot see the need to end their suffering.

이런 사람들은 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을 끝낼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It's as if **you stir clear water with your hand, those who stand beside it cannot see their reflections**: your mind is agitated and loses its clarity. This is under your control: it's you who chooses to let yourself become agitated and therefore cannot see your own reflection, your own true self!

비유컨대 탁한 물 가운데 다섯 가지 물감을 풀어 힘대로 저어 놓으면 비록 사람이 그 물 위에 다다를지라도 능히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나니, 여러분의 마음은 동요되고 그 맑음을 잃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동요되기를 선택하였고 자신의 진아를 볼 수 없습니다.

So too, people who are entangled in love and desire have turbidity in their minds, and therefore they cannot see the Way. Love is an entanglement. Only when one succeeds in emptying oneself of love and desire, can one still the mind and purify the body.

사람도 집착과 욕심이 서로 얽혀져 마음이 맑지 못한 고로 또한 도를 보지 못하나니라 사랑은 굴레입니다. 애욕을 성공적으로 비워야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몸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In particular, **You Sramanas should cast aside love and desire**, that's what you signed up for: to cast aside love and desire, to forsake human sexual love and give up desire for worldly things. **When the stains of love and desire disappear you will be able to see the Way**: you can realize to the sagely fruits.

특히 **밖으로 오욕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여** 애욕을 버리고 인간의 성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포기합니다. **마음만 청정히 하고 보면, 곧 도를 보아** 여러분은 성인의 과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Abandon love and desire that arise from delusions and you can certify to True Emptiness. Get rid of attachment to love and desire for Emptiness, and certify to Wonderful Existence. Stay clear from attachment to either True Emptiness or Wonderful Existence (attachment to effects and retributions) and certify to the Middle Way.

미혹에 의해 일어나는 애욕을 버리면 진공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공의 애욕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묘유를 증득합니다. 진공 혹은 묘유에 대한 집착(과보에 대한 집착)을 여의면 중도를 증득합니다.

Section 17:

WHEN LIGHT ARRIVES, DARKNESS DEPARTS

제17장. 滅暗存明(멸암존명) 무명이 사라지는 법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Those who see the Way are like someone holding a torch who enters a dark room, dispelling the darkness so that only light remains. When you study the Way and see the truth, ignorance vanishes and light remains forever."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것은 비유컨대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곧 없어지고 밝은 것만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도를 배워 진리를 알고 보면 무명 번뇌가 자연히 소멸되어 밝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佛言：夫見道者，譬如持炬入冥室中，其冥即滅 而明獨存，

불언：부견도자, 비여지거입명실중, 기명즉멸 이명독존,

學道見諦, 無明即滅 而明常存矣.

학도견제, 무명즉멸 이명상존의.

Sutra commentary:

주석:

Darkness or ignorance has no nature of its own. If you simply replace darkness with light, it ceases to exist.

어두움 혹은 무지는 자신의 성품이 없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면 어둠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re is no need to feel that cultivation is so difficult. It could be as simple as that: bring in light and it chases away darkness.

수행은 매우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합니다: 빛을 가져오고 어둠을 쫓습니다.

The Buddha said, "Those who see the Way are like someone holding a torch

who enters a dark room, dispelling the darkness so that only light remains. To see the Way, to become enlightened is similar to lighting it up so that everything is clear; your mind is no longer confused. No region of your mind is left unlit i.e. you no longer feel the need to cover up your mistakes and offense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것은 비유컨대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곧 없어지고 밝은 것만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도를 보는 것, 깨닫는 것은 빛을 비추어 모든 것이 분명한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이상 미혹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은 더이상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감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The beauty of this section lies in one word that is not translated: light “immediately” dispels darkness. That’s the sudden teaching! For example, you plug along and sustain it. In time, you’ll get there. The room may have been in the dark for thousands of years, of lifetimes, as soon as you bring in a torch, everything is in the clear!

빛은 즉시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것이 돈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달할 것입니다. 그 방은 수천 년 동안, 몇 생동안 어둠 속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횃불을 가져오자마자,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Another implication here is that we should be all-embracing: even the worst can turn around very quickly. The Chinese have a saying: “the sea of suffering is boundless, turn your head around and that is the shore of liberation.” Evil people are temporarily misguided. If they can realign themselves, they too can attain liberation.

여기서 또다른 함축적인 의미는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조차도 매우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중국에 속담이 있습니다.” 고해는 한이 없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자유의 해안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잘못 인도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다시 바로 잡으면 그들도 또한 해탈할 수 있습니다.

When you study the Way and see the truth, ignorance vanishes and light remains forever. Ignorance is banished forever. There is an implied caveat here for those who have a little bit of gongfu already: when you practice, guard against arrogance. As long as you still have a trace of arrogance, you still haven’t seen through your delusions. Someone might say: “I’m not

arrogant! I just do and say whatever it takes to get this Master to teach me his secrets so that I become enlightened!”

도를 배워 진리를 알고 보면 무명 번뇌가 자연히 소멸되어 밝지 아니함이 없으리라. 무지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이미 약간의 쿵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묵시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할 때, 오만함을 경계하세요. 아직 오만함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망상을 꺾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스승에게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 행하고 말할 뿐입니다.

"To see the truth" is to realize the truth of emptiness. You see that your self-nature is truly empty. At that time, all *"ignorance"* is vanished: you've vanquished delusions. *"And"* only *"light remains forever."* Your true brilliant wisdom is revealed. You will never be covered up by ignorance again.

진리를 알고 보면 공의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성이 진실로 공함을 봅니다. 그 때 모든 무지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미혹을 부습니다. 그리고 오직 빛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고 밝은 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결코 다시 무지에 의해 덮이지 않습니다.

Section 18:

THOUGHTS AND SO FORTH ARE BASICALLY EMPTY

제18장. 無相會眞(무상회진)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며 닦는가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My Dharma is the mindfulness that is both mindfulness and non-mindfulness. It is the practice that is both practice and non-practice. It is words that are words and non-words, and cultivation that is cultivation and non-cultivation. Those who understand are near to it; those who are confused are far away, indeed. It is not accessible by the path of words and language. It is not hindered by physical objects. If you are off by a hairsbreadth, you will lose it in an instan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법은 함이 없는 생각을 생각하고, 함이 없는 행을 행하고, 함이 없는 말을 말하고, 함이 없는 법을 닦는 것이니, 아는 이는 곧 당처를 떠나지 아니하나 미(迷)한 이는 천리나 멀어지나니라. 말과 글의 길이 끊어진 진리는 물질에 걸리는 바가 없으니만일 도를 닦는 사람이 진리에 호리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잠깐 사이라도 능히 본심을 지키지 못하리라."

佛言: 吾法念無念念, 行無行行, 言無言言, 修無修修.

불언: 오법염무염염, 행무행행, 언무언언; 수무수수.

會者近爾, 迷者遠乎. 言語道斷, 非物所拘, 差之毫釐, 失之須臾.

회자근이, 미자원호. 언어도단, 비물소구, 차지호리, 실지수유.

Sutra commentary:

주석:

Practicing the Buddhadharma involves transcending duality in thoughts, action and words.

불법의 수행은 신구의의 이분성을 초월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The translator did a superb job in this section. I am very grateful for their

most excellent work!

이 장은 훌륭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훌륭한 번역에 감사드립니다.

The Buddha said, "My Dharma is the mindfulness that is both mindfulness and non-mindfulness 念 無 念 念. Be mindful but be not attached to being mindful. Yes, it takes a lot to be able to be mindful. You are taught to be mindful of what you eat, what you say, when you walk, etc... And it's not easy to do. By the time you have gongfu and can sustain it, you tend to be attached to your achievement, to that knowledge. That's why in Mahayana, we plant seeds to help undo that kind of attachment right from the outse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법은 함이 없는 생각을 생각하고, 하지만 함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듭니다. 여러분은 공양하거나 말하거나 걸을 때 등등에 마음챙김을 하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쿵푸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성과와 지식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종류의 집착을 없애기 위해 씨앗을 심습니다. The original Chinese text 念 無 念 念 also has a parallel meaning. At a higher level, one can reach that point where one thinks, 念 (first character) of non-thought, 無念 thoughts, 念 (third character). The conscious mind stops working entirely (therefore the product of the mental process can no longer be called to be a thought).

한문 구절 念 無 念 念 에는 또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높은 단계에서 무념과 념을 생각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완전히 작용을 멈춥니다. (그래서 정신 작용의 결과를 더이상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It is the practice that is both practice and non-practice 行 無 行 行. This kind of rhetoric that kept me confused for years! How can it be practice and non-practice at the same time? You will find this type of duality throughout the Vajra sutra.

함이 없는 행을 행하고, 이런 종류의 표현이 몇 년 동안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행과 행하지 않음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이러한 이분법은 금강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At this point, one practices a non-practice practice. Same logic as the "thought 念" phrase. At this point, one practices but it's as if one is not practicing at all.

이 시점에서 수행하지 않는 수행을 수행합니다. 똑같은 논리가 생각에도 적용됩니다. 이 시점에서 수행하지만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It is words that are words and non-words 言 無 言 言. This kind of state cannot be described with words. You can only say 言 non-words 無 言 words 言 .

함이 없는 말을 말하고, 이런 종류의 경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지 무언無言 과 언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You shouldn't be attached to words or language either. Once you understand, you have to be not attached to that understanding.

언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하면 그 이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Language and words are expedients to communicate with those of us who are still confused. Those who are enlightened must borrow worldly words and language to try to communicate what cannot be described by language and words.

언어는 아직 미혹한 자들이 소통하기 위한方便입니다. 깨달은 자들은 세속적인 언어를 빌려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And cultivation that is cultivation and non-cultivation 修 無 修 修. Especially, avoid being attached to the concept of cultivation. Don't look down on others who don't have your gongfu or do not maintain your level of cultivation.

함이 없는 법을 닦는 것이니, 특히 수행의 개념에 집착하지 마세요. 쿵푸가 없거나 수행 단계가 낮은 다른 사람을 경시하지 마세요.

At this level, one cultivates and yet it's as if one does not cultivate at all! For us mortals, we still complain about the discomfort in our legs. We feel that cultivation is just so hard. For these enlightened beings, they no longer see it as cultivation. For them, to live is to cultivate. For us, to cultivate is no way of living!

이 단계에서는 수행하지만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같은 범부들은 여전히 다리의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수행이 매우 힘들다고 여깁니다. 깨달은 존재들은 더이상 그것을 수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수행입니다. 우리에게 수행은 삶의 길이 아닙니다.

Those who understand are near to it 會 者 近 爾. Those of us who "understand" those afore-mentioned incomprehensible phrases, are very

special individuals. They are very close to accomplishing the Way.

아는 이는 곧 당처를 떠나지 아니하나 앞에서 언급한 불가사의한 구절을 이해한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도의 성취에 있어서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Those who are confused are far away, indeed迷者遠乎. Individuals who are still deluded really have a long way to go!

미(迷)한 이는 천리나 멀어지나니라. 여전히 미혹한 자들은 갈 길이 멉니다!

It is not accessible by the path of words and language言語道斷. When you see the Way, it can't be put into "words." There is no "language" that can express it. "Path" refers to the approach chosen to come near it. In particular it refers to the fact that the worldly path of relying on words or language to access the Way lead to nowhere, literally "terminates 斷."

말과 글의 길이 끊어진 진리는 도를 보면 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길은 그것에 가까이 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특히 도에 접근하기 위해 말에 의지하는 세속적인 길을 따른다면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막힙니다.

You can't even formulate a thought. This is the state frequently described as where: language falls short and the workings of the mind cease.

여러분은 생각을 체계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주 묘사되는 경계입니다. 언어가 끊어지고 마음의 작용은 그칩니다.

It is not hindered by physical objects非物所拘. When you are no longer attached to physical objects, how can they hinder you? It's not even meta-physical. There is nothing at all there!

물질에 걸리는 바가 없으니 여러분이 더이상 물리적 사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심지어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If you are off by a hairsbreadth, you will lose it in an instant差之毫釐, 失之須臾. When you get started on this trek, every single bit of deviation is greatly magnified and brings you very far off target in the end.

만일 도를 닦는 사람이 진리에 호리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잠깐 사이라도 능히 본심을 지키지 못하리라. 이 길을 따르면 모든 일탈이 매우 확대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In fact, if you insist on utilizing the worldly approach to investigate the Way,

you are instantly out of orbit. For example, if you are motivated by dreams of grandeur for your cultivation of Mahayana, you'll certainly miss the boat. People who are motivated by greed for fame or profit in their cultivation are like the deluded ones who make it to the great ocean, determined to bring back the great ocean with a cup.

사실 도를 배우기 위해 세속적인 방법을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즉시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 장엄한 꿈을 꾸고 대승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 배를 놓칠 것입니다. 명성이나 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수행하려는 사람들은 대양에 가서 컵으로 대양을 담기로 결심하는 미혹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Section 19:

CONTEMPLATING BOTH THE FALSE AND THE TRUE

제19장. 觀中得道(관중득도) 자세히 관[觀]하라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Contemplate heaven and Earth, and be mindful of their impermanence. Contemplate the world, and be mindful of its impermanence. Contemplate the efficacious, enlightened nature: it is the Bodhi nature. With this awareness, one quickly attains the Wa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지를 볼 때에도 무상(無常)으로 관하고, 만물을 볼 때에도 무상으로 관하고, 세계를 관할 때에도 무상으로 관하라. 신령스런 마음자리의 드러남을 관하면[영각을 관하면] 곧 깨달음이니 이와 같은 관법(觀法)을 가진다면 곧 속히 도를 얻으리라.”

佛言: 觀天地, 念非常; 觀世界, 念非常. 觀靈覺; 卽菩提, 如是知識, 得道疾矣.

불언: 관천지, 염비상, 관세계, 염비상, 관영각; 즉보리, 여시지식, 득도질의.

Sutra commentary:

주석:

Here we learn that everything is made from the mind alone. Do away with the false and keep only the true. Don't be attached to external things because they are impermanent.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졌음을 배웁니다. 거짓을 피하고 진실을 지키세요. 외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The Buddha said, "Contemplate heaven and Earth, and be mindful of their impermanenc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지를 관할 때에도 무상(無常)으로 관하고,

“Heaven” covers over us and “Earth” supports us. Man exists in between.

We live under the Heaven's edict and subsist thanks to the Earth's graces.

But they are “*impermanent*”: they go through their own life cycles.

하늘은 우리를 덮고 땅은 우리를 지원합니다. 인간은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칙령 아래에 살고 땅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의 주기를 겪습니다.

The heavens are simply a higher plane of existence as compared to the human realm, but they too go through the cycles of formation, growth, change and destruction. The heavens of all three realms go through birth and death as well.

하늘은 단지 인간계에 비해 높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또한 성주이멸(成住異滅)의 주기를 겪습니다. 모든 삼계의 하늘은 또한 생사를 겪습니다.

Our Earth also goes through cycles of formation and destruction.

우리의 땅은 또한 생멸의 주기를 겪습니다.

“*Contemplate*” means to use our contemplative wisdom to examine it. “*Be mindful*” means never forget for a single moment. Use our contemplative wisdom to illuminate it to see it’s truly impermanent.

관은 그것을 보기 위해 관조의 지혜를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념은 한 순간도 잊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조 지혜를 사용해서 그것을 비추고 그것이 진실로 무상함을 봅니다.

The human existence is sandwiched between two impermanent structures that support it.

인간 존재는 그것을 지지하는 두가지 무상한 존재 사이에 끼여있습니다.

Contemplate the world, and be mindful of its impermanence. The “*world*” where we live is therefore also “*impermanent*.”

만물을 관할 때에도 무상으로 념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 또한 무상합니다.

Seasons change, oceans become strawberry fields, valleys give birth to mountains, glaciers disappear, and tornadoes come and go. Nations are formed and eventually become extinct. Cultures evolve into oblivion.

계절이 변하고 바다가 딸기 밭이 되고 골짜기가 산이 되고 빙하가 사라지고 토네이도가 오고 갑니다. 나라가 형성되고 결국 사라집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잊혀집니다.

Let’s not forget that the world of dinosaurs is extinct.

공룡의 세계가 멸했음을 잊지 마세요.

Whatever you can see with marks is impermanent. It continually changes and eventually disappears.

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상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Impermanent” has two connotations:

무상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Changing and decaying 變 壞: it changes constantly and invariably degrades.

변괴 變壞: 항상 변하고 결국 쇠퇴합니다.

2. Ending and disappearing 斷 滅: it comes to an end and vanishes from existence.

단멸 斷滅: 끝이 나고 사라집니다.

Contemplate the efficacious, enlightened nature: it is the Bodhi nature.

“Efficacious, enlightened nature” is from the Chinese “靈 覺.” “Efficacious 靈” refers to our spirits, our non-physical substance or our spiritual nature. It is actually endowed with latent enlightenment 覺. It is the same as “*Bodhi*”: the same substance as the Buddha’s enlightened nature.

신령스런 마음자리의 드러남을 관하면[영각을 관하면] 곧 깨달음이니 영靈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체體 혹은 영성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잠재적인 각覺을 갖습니다. 그것은 보리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성품과 동체입니다.

That’s what your original nature is, bright and ever-lasting; the one that we forgot exists.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성품입니다. 밝고 항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잊습니다.

“Bodhi” is free from birth and death. In particular, it is not subject to production or birth; and therefore is not subject to destruction or death.

보리는 생사에서 자유롭습니다. 특히 그것은 생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With this awareness, one quickly attains the Way. “*Awareness*” is translated from the Chinese “知 識”: literally knowledge and consciousness. You internally know it and externally recognize it everywhere.

이와 같은 관법(觀法)을 가진다면 곧 속히 도를 얻으리라. 여러분은 내적으로 그것을 알고 외적으로 어디에서나 그것을 인지합니다.

Keep this in mind, work at it and you'll get there before you know it. You are on the right tracks.

이것을 기억하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미처 알기 전에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Recognize that your conscious mind is impermanent. It is also called the false mind: continually produces false thoughts. It produces the myriad things. Put an end to the mad mind; put a stop to that conscious mind; and the myriad things cease to exist. Our bright true nature can then be revealed.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상함을 인지하세요. 그것은 또한 거짓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망심은 계속해서 망념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수많은 것을 만듭니다. 미친 마음을 끝내세요. 의식적인 마음을 멈추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밝은 진실한 성품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 PratyekaBuddhas excel at doing. They retire into the isolated mountains or secluded forests to cultivate. They observe the changing seasons: how the leaves change color in the fall, fall to the ground and then grow out again in the spring. They eventually awaken to the impermanence of the world: everything goes through the cycle of birth and death. They thus become enlightened.

벽지불은 이에 능합니다. 그들은 외딴 산이나 고립된 숲에서 수행합니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가을에 어떻게 잎이 변하고 떨어지고 다시 봄에 자라는지 봅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의 무상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생사의 주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Section 20:

REALIZE THAT THE SELF IS TRULY EMPTY

제20장. 身本無我(신본무아) 환[幻]과 같은 나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You should be mindful of the four great elements within the body. Though each has a name, none of them is the self. Since they are not the self, they are like an illusion."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항상 자기 몸을 연구해 보라. 비록 부르는 이름은 있으나 그는 다만 이름 뿐이요 실상이 없는 것이며, 육신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네 가지의 합한 바라, 또한 오래지 아니하여 흩어질 날이 있으리니, 실상은 나라는 것이 없고, 이 몸은 실로 물 위에 거품 같은 것이니라.”

佛言：當今身中四大，各自有名，都無我者也，我既都無，其如幻耳。

불언：당염신중사대，각자유명，도무아자야，아기도무，기여환의。

Sutra commentary:

주석:

Use the contemplation of the four great elements that make up our body as false to enter the realization that our body is false, an illusion.

우리의 몸을 이루는 사대요소가 거짓임을 관하고 우리 몸이 거짓임을 깨달습니다.

The Buddha said, "You should be mindful of the four great elements within the body. Great elements: can be found everywhere in the Dharma Realm, in every possible way in great quantitie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항상 자기 몸을 연구해 보라. 대대: 법계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We are made up of the four elements: Earth (solid parts like muscle, bones, hair ...), water (blood, secretions, etc.), fire (warmth) and air (breath, movement, etc.)

우리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 (근육, 뼈, 머리카락과 같은 단단한 부분), 수 (피, 등), 화 (온기) 와 풍 (숨, 움직임 등)

Though each has a name, none of them is the self. The “self” is usually identified with the body which is made up of the four great elements. Although each element has its own “name,” none is the self.

비록 부르는 이름은 있으나 그는 다만 이름 뿐이요. 이 자아는 대개 사대로 이루어진 몸과 일치합니다. 비록 각 요소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어떤 것도 자아가 아닙니다. The self is simply a mental construct, it cannot be physically found anywhere amongst the four great elements.

자아는 단지 정신적 구조입니다. 그것은 사대요소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In the Shurangama sutra, Matangi’s daughter fell madly in love with Ven. Ananda. She pursued him all the way back to the Buddha and told the World-Honored-One that she could not live without Ananda. The Buddha asked her what is that she loved about Ven. Ananda. She said she loves his eyes, lips, nose etc. The Buddha said that he needed Ananda’s mind while she wanted Ananda’s body. He thus offered to cut each part off to give to her. She refused saying that it’s not the same to have only Ananda’s organs.

능엄경에서 마등가의 딸은 아난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난다가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에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세존에게 아난다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아난다의 무엇을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과 입술, 코 등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르길 그녀는 아난다의 몸을 원하지만 부처님은 아난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각 부위를 잘라서 그녀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난다의 장기를 갖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Does that sound familiar? How many of you have hugged the pillow on which your wife slept? Did you inhale her body odor that still lingered on it too? While you did it, did you also picture her in your mind?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사용한 베개를 껴안고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체취를 들이마시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 속에 그녀를 그리나요?

We just imagined that it was her, did we not?

우리는 그것이 그녀라고 상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Since they are not the self, they are like an illusion. The Buddhist logic! Don’t

be so attached to your body! You can go to great lengths to feed it, clothe it, massage it and still when it feels like it, it breaks down and won't cooperate with you. Be nice to your body, do not neglect it but don't be so attached to an illusion. Beauty is short-lived, goodness is forever. Even sexual desire is rather short-lived or capricious.

실상이 없는 것이며, 부처님은 논리적입니다! 몸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몸을 먹이고 몸에 옷을 입히고 몸을 마사지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몸을 잘 대하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지만 환영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은 생명이 짧고 선은 영원합니다. 성욕조차도 생명이 짧고 변덕스럽습니다.

Section 21:

FAME DESTROYS LIFE'S ROOTS

제21장. 好名無益(호명무익) 구할 것이 못되는 명예

Sutra text:

경전 문헌:

The Buddha said, "There are people who follow emotion and desire and seek to be famous. By the time their reputation is established, they are already dead. Those who are greedy for worldly fame and do not study the Way simply waste their effort and wear themselves out. By way of analogy, although burning incense gives off fragrance, when it has burned down, the remaining embers bring the danger of a fire that can burn one up."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욕심을 따라 명예를 구하지만 이름이 드러나면 몸은 이미 늙어 버리는 것이다. 비유컨대 향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여러 사람은 그 향내를 맡고 좋아하나 그 향 자체에 있어서는 제 향내로 인하여 제 몸이 타게 되나니, 어리석은 사람이 외면의 명예를 탐하여 안으로 참 도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얻은 명예로 인하여 몸에 재앙이 한량 없을지라 어찌 뒷날에 후회가 없으리요."

佛言：人隨情欲，求於聲名，聲名顯著，身已故矣。貪世常名，

불언：인수정욕, 구어성명, 성명현저, 신이고의. 탐세상명,
而不學道, 枉功勞形.

이불학도, 왕공로형.

譬如燒香, 雖人聞香, 香之燼矣, 危身之火, 而在其後.

비여소향, 수인문향, 향지신의, 위신지화, 이재기후.

Sutra commentary:

주석:

OK, so you are no longer attached to your physical body. But is it OK to be attached to your mental body? Fame seekers gain no real benefits but ultimately are harmed by it.

좋습니다. 여러분은 더이상 욕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에 집착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이로움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그로 인해 해를 당합니다.

The Buddha said, "There are people who follow emotion and desire and seek to be famous. There are many of us who are moved by our *"emotion and desire and seek fame."* "Fame" is one of the five desire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욕심을 따라 명예를 구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정서, 욕망, 명예의 추구에 의해 좌우됩니다. 명예는 오욕 중의 하나입니다.

"Fame" was translated from the Chinese "聲名": literally hearing of the name. We want our name, be it good or bad, to be heard, hopefully very far and wide. 명예는 이름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멀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There is a saying: "the leopard leaves its skin and man leaves his name 豹死留皮, 人死留名." The leopard's skin is very pretty and highly prized by many.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가죽은 매우 멋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있게 여깁니다.

Confucius also said: "The superior man leaves the world but his name is not praised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 They live a long and virtuous life and yet their ultimate fear is that after they leave the world, people no longer praise or look up to them!

공자는 또한 말하길 군자는 세상을 떠나도 이름은 칭송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덕있는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더이상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거나 우러르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High achievers in our modern times seem to have two lives. The first one is that which they use to amass a fortune or power. After attaining their goals, they tend to put more emphasis on their second life: their fame or reputation. 현대 시대의 많은 성취자들은 두가지 부류의 삶을 삽니다. 첫째는 많은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룬 후 두번째 삶, 명예와 명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Seek": refers to the fact that their actions are motivated by emotions and desires.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정서와 욕망에 의해 좌우됨을 일컫습니다.

By the time their reputation is established, they are already dead. It takes a lot of blood and sweat and personal sacrifice to attain fame. Even in these days of wireless communication and the internet, it still takes a lot of time for our name to be spread: that just is the nature of the transmission delays. By the time your name gets established, quite often, you're "*already dead*."

이름이 드러나면 몸은 이미 늙어 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얻기 위해 많은 피와 땀, 개인적인 희생이 요구됩니다. 인터넷과 무선으로 소통하는 현대 시대에 여전히 우리의 이름이 퍼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알려질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A lot of painters devoted their life to their art, hoping to be recognized for their talent. Except for a very few, most of them suffered and died in dire poverty way before their works are recognized. This is an example of being way ahead of one's time.

많은 화가들이 삶을 바쳐 예술 활동을 하고 그들의 재능이 알려지길 원합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들의 작품이 알려지기 전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괴로워하며 죽습니다. 이는 시대를 앞선 예입니다.

Those who are greedy for worldly fame and do not study the Way simply waste their effort and wear themselves out. There are some who are quite "*greedy for worldly fame*." They want their name is be well known for a long time in the world "*世常名*." They devote their blood and sweat to fulfill their ambition. They deliberately choose to not "*study the Way*"; partly because they have no time or energy left for it, partly because cultivating the Way is in conflict with their greedy desire for fame.

“어리석은 사람이 외면의 명예를 탐하여 안으로 참 도를 지키지 못하면 그 얻은 명예로 인하여 몸에 재앙이 한량 없을지라.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 명예를 매우 탐합니다. 그들은 이름이 세상에 오래도록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피와 땀을 바칩니다. 그들은 도를 공부하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한편으로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도를 수행하는 것이 명예를 탐하는 욕심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These folks "*simply waste their effort*." They are after something that cannot last that long. They are after something that is ephemeral and illusory. In their quest, they "*wear themselves out*": they wear their body out. Last week,

I met with a relative of mine whom I have not seen for almost a decade. She's now a successful executive who breathes fire and is quite well off financially. She told me that three years ago, she had a stroke and realized that no amount of money or recognition is worth dying or becoming an invalid for.

이 사람들은 "그냥 노력을 허비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덧없고 허황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추구하면서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들은 몸을 지치게 합니다. 지난 주, 저는 거의 10년 만에 한 친척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여유있고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성공적인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길 3년 전 뇌졸중을 앓았고, 아무리 많은 금액의 돈이나 명예도 죽음과 맞바꿀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Fame, recognition is not necessarily bad.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etting recognition versus seeking recognition. The common man seeks recognition, the superior one does not.

명예, 인정은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얻는 것과 인정을 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지만 수승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The Buddha then uses the incense analogy.

부처님은 향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By way of analogy, although burning incense gives off fragrance, when it has burned down, the remaining embers bring the danger of a fire that can burn one up. Incense gives off a pleasant fragrance is analogous to the sweetness that fame can bring. To enjoy the fragrance, you must burn it up!

비유컨대 향을 태우는 것과 같아서 여러 사람은 그 향내를 맡고 좋아하나 그 향 자체에 있어서는 제 향내로 인하여 제 몸이 타게 되나니, 향이 좋은 향을 내는 것은 명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달콤함에 비유됩니다. 향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태워야 합니다!

After obtaining fame, one becomes attached to that euphoria and can't let go. That attachment can bring about unhappiness and even harm. In the "Sunset Boulevard" movie, the old actress is so attached to her past glory that she ceases to live. She ended up killing her younger lover (who rejected her for a younger woman) in a moment of madness and desperation.

명성을 얻은 후에 그 행복감에 집착하여 내려 놓지 못합니다. 그 집착은 불행, 심지어 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unset Boulevard" 영화에서, 이 연로한 여배우는 과거의 영광에 너무 집착해서 더이상 그녀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광기와 절박함의 순간에 (젊은 여자로 그녀를 거절한) 젊은 애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Why do ordinary people seek after something that's potentially harmful to them?

왜 보통 사람들은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을 추구합니까?

In particular, left-home people ought to be careful about fame. They should be careful that their actions are not motivated by fame seeking motives. That's why one of Great Master Xuan HuaXuanHua's six principles is not to seek.

특히 출가자들은 명예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화 상인의 6가지 원칙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Section 22:

WEALTH AND SEX CAUSE SUFFERING

제22장. 財色招苦(재색초고) 칼 끝에 묻은 꿀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People are unable to renounce wealth and sex. They are just like a child who cannot resist honey on the blade of a knife. Even though the amount is not even enough for a single meal's serving, he will lick it and risk cutting his tongue in the proces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비유컨대 어린 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나니, 한 때도 죽히 달게 먹을 것은 없고, 도리어 혀를 끊을 염려가 있나니라.”

佛言：財色於人，人之不捨，譬如刀刃有蜜，不足一餐之味，
불언：재색어인，인지불사，비여도인유밀，부족일찬지미，
小兒舐之，則有割舌之患。
소아지지. 즉유할설지환.

Sutra commentary:

주석:

People are particularly attached to wealth and sex. They are like children who crave for honey and do not hesitate to lick it off a sharp blade. Similarly, wealth and sex may have a little of good flavor, their dangers are nevertheless quite significant.

사람들은 특히 부와 성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꿀을 갈망하여 주저하지 않고 날카로운 칼끝을 핥고자 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와 성은 약간의 달콤함이 있지만 그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The Buddha said, "People are unable to renounce wealth and sex. A pair of desires that represents self-indulgence: the more the better. Having wealth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It is also an affirmation of our power over others. As to sex, it is certainly one if not the most addictive things in life. The Buddha points out to us that ordinary people “are unable to renounce wealth and sex.”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재물과 색을 탐하는 사람은 자기 방종을 나타내는 한 쌍의 욕망입니다. 재물과 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를 가지면 우리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힘을 확인합니다! 성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제는 아니더라도 중독성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통 사람들은 “부와 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They are just like a child who cannot resist honey on the blade of a knife. Even though the amount is not even enough for a single meal's serving, he will lick it and risk cutting his tongue in the process. How childish it is! We follow these urges knowing full well that we could get hurt, that the reward is probably not worth the risk.

비유컨대 어린 아이가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하니, 한 때도 죽히 달게 먹을 것은 없고, 도리어 혀를 꿀을 염려가 있나니라.” 얼마나 유치합니까! 우리는 자신이 다칠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충동을 따릅니다.

When we are confused by our desire for wealth and sex, we become “*just like a child.*” The rational becomes infantile. Is it fair to be called a child? Once a child wants something, can he or she listen to reason?

우리가 부와 성에 대한 욕망에 의해 미혹할 때 우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유치해집니다. 그를 아이와 같다고 해도 될까요? 일단 아이가 무언가를 원하면, 이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나요?

For just a little of flavor of “*honey on a knife blade,*” we are gladly willing to take a chance, knowing we can get really hurt.

“칼날의 꿀”을 약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다칠 수 있음을 알고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려고 합니다.

It is said that beauty does not confuse, it is man who confuses himself. Are we in control or are our urges in control? We lose control because we are “unable to renounce.”

아름다움이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충동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배력을 잃습니다.

Can we be specific here?

좀 더 자세히 설명할까요?

Let's talk about those sexual urges. They make heat rise inside, our mind become clouded and make us stop at nothing until fulfilled. These types of urges caused the downfall of the great many leaders and heroes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성욕에 대해 말해봅시다. 성욕은 안으로는 열을 일으키고 마음을 흐리게 하여 이것이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충동으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지도자들과 영웅들은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What about wealth?

부는 어떻습니까?

It tends to give that god complex: we can do anything our heart desires as long as we can get away with it! It is pure ugliness! What about those who attained wealth or financial gains by cheating and stealing from others? Regardless of what you'd like to believe, these folks are very unhappy: they have to live with their guilt and be harassed by the ghosts of those they harmed both now and in the future. Don't walk down this path!

그것은 신의 콤플렉스를 가져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추합니다! 남을 속이고 훔쳐서 부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매우 불행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고 현재와 미래에 그들이 해친 사람들의 귀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다. 이 길을 따르지 마세요!

It is also important not to neglect the word "*resist*." Empires fall and heroes become villains, often because we are unable to resist temptation. It's just like children who cannot resist the temptation of licking honey on the blade of a knife!

또한 "저항"이라는 단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영웅들은 악당이 되는데, 이는 종종 우리가 유혹을 뿌리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칼날의 꿀을 핥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Please, please, do not dismiss this as obvious!

부디 이것이 명백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If you ask the Catholic, many of them would confess to you that the struggle with the saint on their left shoulder and Satan on their right shoulder usually ends up with following Satan most of the time!

가톨릭 신자들에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왼쪽 어깨의 성자와 오른쪽 어깨의 사탄과의 투쟁에서 대개 사탄을 따르는 것으로 끝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We Buddhists are no better, I must admit! We all have struggle with our own (inner) demons. Quite often, giving to them can be so sweet and pleasant!

우리 불자들도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내면의) 마와 싸웁니다. 종종, 그들은 매우 달콤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하나요?

The only recourse is to stop behaving like a child. Instead, be an adult and refer to your precepts. Stick to the precepts and you'll live another day to continue the quest! I wish the best of luck to all of us!

유일한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어른이 되어 여러분의 계율을 참고하세요. 계율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루를 더 살면서 탐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운을 빕니다!

Section 23:

A FAMILY IS WORSE THAN A PRISON

제23장. 妻子甚獄(처자심옥) 범부와 아라한의 차이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People are bound to their wives, children and homes to such an extent that these are worse than a prison. Eventually one is released from prison, but people never think of leaving their wives and children. Don't they fear the control that emotion, love, and sex have over them? Although they are in a tiger's jaws, their hearts are blissfully oblivious. Because they throw themselves into a swamp and drown, they are known as ordinary people. Pass through the gateway! Get out of the defilement and become an Arha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처자와 집에 걸려 있음이 감옥보다 심하니, 감옥은 나올 기약이 있으나 처자의 정욕은 죽어도 오히려 달게 아는 고로 그 감옥을 벗어날 날이 없나니라. 애욕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어찌 분주함을 면할 것인가. 비록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더라도 마음은 달게 여기고 흡사 진흙 속에 스스로 몸을 빠뜨리는 것과 같으니, 이를 범부라 하고, 애욕의 문을 박차고 나와 모든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이를 아라한이라 한다.

佛言：人繫於妻子舍宅，甚於牢獄，牢獄有散釋之期，
불언：인계어처자사택, 심어뢰옥, 뢰옥유석석지기,
妻子無遠離之念，情愛於色，豈憚驅馳。雖有虎口之患，
처자무원리지념, 정애어색, 기탄구치. 수유호구지환,
心存甘伏，投泥自溺，故曰凡夫，透得此門，出塵羅漢。
심존감복, 투니자익, 고왈범부, 투득차문, 출진나한.

Sutra commentary:

주석

Another wakeup call: the family and household are even worse than a prison. 또 다른 경각심은 가족과 가정이 감옥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People are bound to their wives, children and homes to such an extent that these are worse than a prison. Men are very attached to their "*wives and children.*" It is as if they are "*bound*" to them. We choose to stick to a literal translation of the Chinese text in order to preserve the Buddha's intention of pointing out the order of priorities in a man's attachmen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처자와 집에 걸려 있음이 감옥보다 심하니, 남자들은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에 매우 집착합니다. 마치 그들에게 "묶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집착하는 것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문을 직역하겠습니다.

"*Homes*" means house, palaces (for gods), and places of abode. It's where we can rest, dwell, store our wealth and feel secure. It also represents our attachment to our ancestors and relatives. For some, it's the attachment to their ancestral land and tombs.

"집"은 집, (신들을 위한)궁전 그리고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쉬고, 살고 부를 저장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또한 우리의 조상들과 친척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들의 땅과 무덤에 대해 집착합니다.

The above-mentioned is applicable to the Desire Realm.

위의 내용은 욕계에 해당됩니다.

The Form Realm takes the Dhyana bliss for family and the four Dhyana heavens for home. The Formless realm takes samadhi for family and the four stations of emptiness for home. Even the Arhats take the bliss of liberation for family and the Nirvana with residues for home.

색계에서의 집착은 선열과 사선천, 무색계에는 삼매와 사념처입니다. 심지어 아라한도 해탈의 안락, 무여열반의 안락에 집착합니다.

Such attachment is "*worse than a prison.*"

이런 집착은 "감옥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Eventually one is released from prison, but people never think of leaving their wives and children. At least, we are aware that a "*prison*" is not a good place to be and try to stay away. Furthermore, our stay in the prison is term-limited. In contrast, we are not even aware that we are bound by our "*wives and children.*" A man once told me, his favorite place in his house is the master's bathroom where he retreats so that he can have a moment of peace away from his wife and children. Like most men, he would "*never think of leaving*" them.

감옥은 나올 기약이 있으나 처자의 정욕은 죽어도 오히려 달게 아는 고로 그 감옥을 벗어날 날이 없나니라." 적어도, 우리는 "감옥"이 좋은 장소가 아님을 알고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게다가, 감옥에서의 형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아내들"에 의해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남자가 내게 말하길, 그의 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아내와 아이들과 떨어져 잠시나마 평안히 쉴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그는 그들을 "떠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Don't they fear the control that emotion, love, and sex have over them? "*Emotion, love and sex*" seem to be part of happiness to the ordinary people. It seems to start with a little harmless sexual attraction which could lead to sexual gratification and/or deep love. We can get to the point where life without it becomes miserable. We can't help but think about it day and night. Wise people know better. They "*fear*" emotion, love and sex and quickly run away from them.

애욕의 세계에 빠져버리면 어찌 분주함을 면할 것인가. "감정, 사랑, 성"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일부입니다. 약간의 무해한 성적 매력으로 시작해서 성적 만족이나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삶은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더욱 잘 알아서 그들은 감정, 사랑, 성을 "두려워"하고 재빨리 그들로부터 도망칩니다.

Although they are in a tiger's jaws, their hearts are blissfully oblivious. Maybe the danger increases the bliss for ordinary people who are not aware of the dangers. In contrast, they gladly surrender themselves to the sweetness of

emotions, love and sex.

비록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더라도 마음은 달게 여기고 어찌면 위험을 알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 위험으로 행복감이 클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그들은 기꺼이 감정, 사랑, 성의 달콤함에 몸을 맡깁니다.

Because they throw themselves into a swamp and drown, they are known as ordinary people. They deliberately "*throw themselves*" into the sinking mud and get drowned. Ordinary people know full well that it's a lot of trouble and it is unclean. And yet, they choose to throw themselves into it. Such is the behavior of "*ordinary people*."

흡사 진흙 속에 스스로 몸을 빠뜨리는 것과 같으니, 이를 범부라 하고, 그들은 늪에 몸을 던져 익사하기 때문에 범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라앉는 진흙에 "자신을 던지고" 익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진흙이 많은 문제가 있고 더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자신을 던지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행동입니다.

A better alternative would be to **pass through the gateway! Get out of the defilement and become an Arhat!** Cross through the Dharma Door of Emptiness. To pass through the door symbolizes penetrating the meaning of the principles.

더 나은 대안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애욕의 문을 박차고 나와 모든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이를 아라한이라 한다.** 공의 법문을 통과하십시오.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이치의 의미를 관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Let go of your attachments to the family life. Don't be stuck at the gateway of emotion and love.

가족 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감정과 사랑의 문턱에 갇혀 있지 마세요.

It's our choice: allow ourselves to be bound or to pass through. That choice dictates the direction of the journey: towards wisdom, light and liberation or toward confusion, shadows and constraints. It's kind of funny that the ordinary person looks at us, left-home people as subjecting ourselves to so many constraints and hardships. In fact, it's the more rapid path towards self-liberation ("*get out of the defilement*") and bliss ("*become an Arhat*").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자신을 매이게 하거나 벗어나게 합니다. 그 선택은 여정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지혜, 빛, 해탈 또는 혼란, 그림자, 제약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출가자들을 보고 너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것은 좀 재미있는 일입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해탈("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과 안락("아라한이 되는 것")을 향한 더 빠른 길입니다.

Section 24:

SEXUAL DESIRE OBTRUCTS THE WAY

제24장. 戀色障道(연색장도) 중생의 가장 큰 병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Of all longings and desires, there is none as strong as sex. Sexual desire has no equal. Fortunately, it is one of a kind. If there were something else like it, no one in the entire world would be able to cultivate the Wa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 중에 색(色)보다 더 심함이 없나니, 색으로부터 나는 욕심이 그 크기가 바깥이 없음이라. 사람사람이 그 하나 있음이 다행이요, 만일 둘을 가졌다면 천하에 도를 행할 이가 하나도 없으리라.”

佛言：愛欲莫甚於色，色之爲欲，其大無外，

불언：애욕막심어색，색지위욕，기대무외，

賴有一矣，若使二同，普天之人，無能爲道者矣。

뢰유일의，약사이동，보천지인，무능위도자의。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contains one of the most famous quotes. Of all forms of desire sexual desire is the strongest force that binds us up. If there were another like it, we'd never be able to succeed in cultivation. All cultivators: beware!

이 장에는 잘 알려진 인용문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욕망 중에서 성욕은 우리를 제약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런 것이 또 하나 더 있다면, 우리는 결코 수행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수행자여: 조심하세요!

The Buddha said, "Of all longings and desires, there is none as strong as sex.

"Longings" refers to more compelling kinds of "desire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 중에 색(色)보다 더 심함이 없나니, 애愛는 더 강력한 종류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Longings can be for:

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pposite sex 女色, especially their form and marks.

이성女色, 특히 그들의 형상입니다.

2. Wealth and gems 財寶. We covet money, assets, gems and play things.

재보財寶: 우리는 돈, 자산, 보석과 유희를 탐냅니다.

3. Fame and recognition 聲名.

명성聲名

4. Food and drink 飲食.

음식食

5. Sleep and rest 睡眠.

수면睡眠

6. Homes 家宅.

가택家宅

7. Fields and gardens 田園. Fields represent production facilities bringing in income and revenue. Gardens are places where we go play.

밭과 정원田園 밭은 수입과 수익을 가져오는 생산 시설을 나타냅니다. 정원은 우리가 놀러 가는 장소입니다.

8. Clothes 衣服. They are a private and personal form of self-indulgence.

의복衣服 사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방종입니다.

9. Retinues 眷屬. They are our relatives (whom we are attached to) and dependents (who are very attached to us).

권속眷屬: 그들은 우리의 (우리가 집착하는)친척과 (우리에게 매우 집착하는)부양가족입니다.

10. Position and titles 官爵. Position reflects our rank or importance in society while title reflects the honor that society bestows upon us.

직책과 직함官爵: 지위는 사회에서 우리의 지위나 중요성을 반영하는 반면, 직함은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명예를 반영합니다.

Sexual attraction is the most compelling force of our human existence.

성적 매력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Sexual desire can be divided into the desire for:

성욕은 다음과 같은 욕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Colorful form 顏色. Perhaps that's why women take care of their hair and nails. They spend fortunes on clothing and grooming.

안색 顏色: 여성들이 그들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옷과 몸치장에 돈을 씁니다.

2. Form and countenance 形容. They use make-up and hit the gym.

형용 形容: 그들은 화장을 하고 헬스장에 갑니다.

3. Awesome comportment 威儀. The Vietnamese has a saying: "lack of social graces can destroy beauty." Perhaps that's why the European royalty send their offspring to finishing school.

위의 威儀: 베트남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사회적 품위가 없으면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유럽의 왕족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학교를 마치도록 보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4. Words and languages 語言. The Japanese seem to like their women to speak in high pitched tones.

언어 語言: 일본인들은 여성이 높은 음조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5. Fine and smooth 細滑. The skin is soft to look at and smooth to the touch.

세활 細滑: 피부는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6. Human marks 人相. Each culture and society has its own beauty standards. Some African tribes used to like their women with long faces and long necks.

인상 人相: 각각의 문화와 사회는 그들만의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아프리카 부족들은 긴 얼굴과 긴 목을 가진 여성을 좋아하곤 했습니다.

Sexual desire has no equal. Its binding and blinding power is unmatched.

Some might argue that other types of addiction are more potent. For example, chemical addiction might be considered to trump sexual addiction.

Not so!

색으로부터 나는 욕심이 그 크기가 바깥이 없음이라. 그것의 구속력과 맹목적인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중독이 더 강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적 중독은 성적 중독을 능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Chemical dependency is recognized as dangerous and we've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and cures. In contrast, sexual pleasure is not recognized as dangerous at all.

화학적 중독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어 우리는 대책과 치료법을 마련했습니다. 반대로 성적 쾌락은 전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Furthermore, chemical addiction only affects one life time, sexual addiction affects many lives (and makes us revolve in the reincarnation wheel in the Reincarnation Wheel)!

게다가, 화학적 중독은 단 한 번의 일생에만 영향을 미치고, 성적 중독은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윤회하게 합니다.)

Fortunately, **if there were something else like it, no one in the entire world would be able to cultivate the Way.** It can confuse us like nothing else. Did you know that just before the Buddha realized the Way, i.e. he's a very high level Bodhisattva; he had to face the sexual desire test? The Demon King sent three of his most gorgeous daughters to seduce the Buddha. This will be covered in section 26.

만일 둘을 가졌다면 천하에 도를 행할 이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것은 다른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직전에, 매우 높은 단계의 보살이었는데 성욕의 시험을 직면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마왕은 부처님을 유혹하기 위해 그의 가장 아름다운 세 딸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26장에서 다룹니다.

The Shurangama Sutra says: "if you can't renounce sexual desire, you can't transcend the dust 婬心不除, 塵不可出."

능엄경에는 이르길 "성욕을 버릴 수 없다면 진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Clearly, this won't happen overnight but is possible!

분명히,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가능합니다!

The Buddha taught nine kinds of contemplation 九種觀想 to overcome sexual desire:

부처님은 성욕을 극복하기 위해 아홉 종류의 관상을 가르쳤습니다.

1. Green coagulation 青瘀. After death, the body begins to change color to green because the blood coagulates.

죽은 뒤에는 혈액이 응고되기 때문에 몸의 색이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2. Decomposition 爛. It starts decomposing.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3. Swelling 脹.

붓습니다.

4. Pus and Blood oozing out 膿血.

고름과 피가 배어 나옵니다.

5. Bugs and maggots 蟲蛆. These insects are eating away at the corpse.

벌레와 구더기들이 시체를 갉아먹고 있어요.

6. Decay 壞. The skin breaks up.

피부가 부서집니다.

7. Destroyed 散. Only bones, hair and tendons are left.

뼈, 머리카락, 힘줄만 남았습니다.

8. Burned 燒. Reduced to ash when burned.

태우면 재가 됩니다.

9. White bones 白骨. All that remains is a pile of bones.

남은 건 뼈 더미뿐입니다.

Those who practice these contemplations of impurity discover a gradual decrease in desire and in time can eliminate it altogether.

부정에 대한 이러한 관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욕망이 점차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25:

THE FIRE OF DESIRE BURNS

제25장. 欲火燒身(욕화소신) 자신을 태울 애욕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A person with love and desire is like one who carries a torch while walking against the wind: he is certain to burn his hand."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유컨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나니, 어리석은 사람은 그 횃불을 놓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태우는 환(患)이 있을 것이요, 애욕이 많은 사람은 그 착심을 놓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몸을 멸하는 환이 있으리라.”

佛言：愛欲之人，猶如執炬，逆風而行，必有燒手之患。

불언: 애욕지인, 유여집거, 역풍이행, 필유소수지환.

Sutra commentary:

주석:

In this section, we learn why we want to stay away from love and desire.

이 장에서는 우리가 왜 애욕을 멀리하고 싶은지 배웁니다.

The Shurangama Sutra quotes the Buddhas of the ten directions calling sexual desire, the “desire fire.”

능엄경에서는 시방의 부처님이 성욕을 "욕망의 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The Buddha said, "A person with love and desire is like one who carries a torch while walking against the wind. The admonition here is to guard against indulging in love and desire. On the surface, it seems appealing and beneficial. But it's very dangerous to be in its compan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비유컨대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나니, 여기서 훈계는 애욕의 탐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유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If you do, you are **he is certain to burn his hand**. It's better to go with the wind by reciting the Buddha's name and seeking for rebirth.

만약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손을 태우는 환(患)이 있을 것이요. 당신은 그가 틀림없이 손을 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고 왕생을 추구하면서 바람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This is why the Buddha created the sangha to enable us to distance ourselves from love and sexual desires. The buffer zone is necessary for our protection. Until we are no longer blinded by sexual desires, it's better to keep our distance.

이것이 부처님이 승가를 만든 이유입니다. 승가는 사랑과 성욕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보호를 위해 완충 지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욕에 눈이 멀지 않을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There was an immortal who cultivated in the mountains for decades. As a result, he developed tremendous spiritual powers and often used them.

수십 년 동안 산에서 수행한 신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영적 힘을 개발했고 종종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The king heard of him and therefore bowed to him as teacher and would often invite him to the royal palace for offerings and instructions.

왕은 그의 소식을 듣고 스승으로 받들어 절을 했고 종종 공양을 올리고 지침을 받기 위해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One day, the king had some state business that took him away from the royal palace and instructed his princess daughter to substitute for him as host to his teacher.

어느 날, 왕은 왕궁에서 어떤 국가적인 일로 궁전을 비웠고 그의 딸, 공주에게 그를 대신하여 스승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At the usually agreed upon time, the hermit rode on the clouds to arrive at the palace. The dutiful princess immediately bowed down. As the Indian custom of bowing has it, her knees, elbows and forehead touched the ground and she opened the palms of her hands to invite the hermit to step into them: this signifies the acceptance of the respect.

대개 약속된 시간에, 은둔자는 구름을 타고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충실한 공주는 즉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절을 하는 인도의 관습에 따라 그녀의 무릎, 팔꿈치, 이마를 땅에 대고 그녀는 은자를 안으로 모시기 위해 손바닥을 벌렸습니다: 이것은 공경스럽게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As the hermit's feet touched the beautiful princess' soft and warm hands, he also caught a whiff of her body fragrance. His mind stirred and desire rose in him.

은자의 발이 아름다운 공주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에 닿았고 그는 또한 그녀의 몸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들끓었고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Instantaneously, he lost all of his spiritual penetrations. Afterwards, he had to walk all the way back to the mountains. He moved away and never dared go near the royal palace again.

순간적으로, 그는 모든 신통을 잃었습니다. 그 후, 그는 산까지 걸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떠났고 다시는 왕궁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Until you have developed true wisdom, it is a lot safer to keep your distance from the temptation.

진정한 지혜를 기를 때까지,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Section 26:

HEAVENLY DEMONS TEMPTING THE BUDDHA

제26장. 降魔化他(항마화타) 부처님이 애욕을 제도하시다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heaven spirit offered beautiful maidens to the Buddha, hoping to destroy his resolve. The Buddha said, "What have you skin-bags full of filth come here for? Go away; I've got no use for you."

Then the heaven spirit became very respectful and asked about the meaning of the Way. The Buddha explained it for him, and he immediately attained the fruition of Srotaapanna.

한 때에 천신이 있어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축 주머니 모든 더러운 것으로 네가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가히 범상한 사람은 속일지언정 나의 청정한 뜻은 움직이기 어려울지니, 가라, 내 너를 쓰지 아니하리라.” 천신이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인하여 도의 뜻을 묻거늘 부처님께서 일일이 해석해 주시어 곧 수다원을 얻게 하시니라.

天神獻玉女於佛, 欲壞佛意, 佛言: 革囊衆穢, 爾來何爲,
천신헌옥여어불, 옥괴불의. 불언: 혁낭중예, 이래하위,
去吾不用. 天神愈敬, 因問道意. 佛爲解說, 卽得須陀洹果.
거오불용. 천신유경, 인문도의. 불위해설, 즉득수다원과.

Sutra commentary:

주석:

The final test for the Buddha was the sexual desire test.

부처님의 마지막 시험은 성욕 시험이었습니다.

The heaven spirit offered beautiful maidens to the Buddha, hoping to destroy his resolve. “*The heaven spirit*” is the demon king Mara 波旬. Just before

Shakyamuni Buddha attained Wonderful Enlightenment, the demon king sent his army to the attack. The Buddha quickly defeated them. He then sent his three daughters, the “jade women” as beautiful and refined and perfect as jade. He hopes to stir up sexual desire in the Buddha’s mind by offering his lovely daughters to the Buddha.

한 때에 천신이 있어 옥녀를 부처님께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시험하고자 하거늘 “천신”은 마왕 마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묘각을 얻기 직전에 마왕은 군대를 보내 공격했습니다. 부처님은 재빨리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후 마왕은 그의 세 딸인 옥처럼 아름답고 세련되고 완벽한 “옥녀들”을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들을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속에 성욕이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The demon king dwells at the sixth heaven of the Desire Realm. It’s the highest heaven in the Desire Realm.

마왕은 욕계의 욕옥천에 주합니다. 욕계에서 가장 높은 천입니다.

The Buddha said, “What have you skin-bags full of filth come here for?” The human body is often referred to as a “*skin-bag* 革囊” in Buddhism. Outside it may look attractive especially when you dress and make it up. However, the inside is rather ugly to look at and is filled with stuff that no one wants to see. “Skin-bag” is a reminder that our body is rather defiled. It’s also like placing beautiful flowers into a much adorned flower vase. It appears quite attractive but the water inside is quite smelly and filled with plenty of insects and bacteria.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죽 주머니 모든 더러운 것으로 네가 와서 무엇을 하려 하느냐?” 불교에서 인간의 몸을 종종 “가죽주머니”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특히 옷을 입고 화장을 할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보기에 다소 추악하고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죽주머니”는 우리 몸이 매우 더러움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또한 아름다운 꽃을 아름다운 화병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안에 있는 물은 냄새가 나고 많은 곤충과 박테리아로 가득합니다.

The original Chinese term for skin “革” also means to be discarded.

가죽에 해당하는 한자 “革”은 또한 버려짐을 의미합니다.

Go away; I’ve got no use for you. You may look attractive on the outside but

inside your mind is full of impure thoughts. What do others find so attractive about you? The Buddha used his spiritual power to fast forward time to when these gorgeous women are in their old age and lose their sex appeal.

가라, 내 너를 쓰지 아니하리라.”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속에는 불순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부처님은 그의 영적인 힘을 이용하여 시간을 앞당겨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노년에 접어들게 하여 성적 매력을 잃게 하였습니다.

That worked fine for the Buddha. What about us, what can we do against temptation?

그것은 부처님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The key is in the word “use.” It denotes the fact that we value it and cherish it. We simply are confused by its exterior and fail to look at its true substance. 열쇠는 "쓰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치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겉모습에 혼란스러워하고 진정한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If we know how to use the proper contemplation then we will no longer be confused by the exterior and our mind will not move.

만약 올바르게 관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적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Then the heaven spirit became very respectful and asked about the meaning of the Way. That impressed the Demon King. Ah hah, he probably thought to himself, he’s not as attached to sex as I am. He must know something that I don’t. Let’s inquire.

천신이 더욱 부처님을 공경하고 인하여 도의 뜻을 묻거늘 마왕은 놀랐습니다. 아하, 아마 부처님은 나만큼 성에 집착이 없는 것 같아. 그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물어보자.

The Buddha explained it for him, and he immediately attained the fruition of Srotaapanna. It pays to encounter the Buddha; it surely saves a lot of time when you have a good teacher to guide you. This section documents the fact that although the demon king is most evil, he can still be crossed over. The Buddha took the opportunity to teach him and helped him attain first stage

Arhatship.

부처님께서 일일이 해석해 주시어 곧 수다원을 얻게 하시니라.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이롭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줄 좋은 스승이 있으면 확실히 많은 시간을 절약합니다. 이 장은 마왕이 가장 악하지만, 여전히 마도 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가르칠 기회를 잡았고 그가 수다원을 달성하도록 도왔습니다.

Section 27:

ONE ATTAINS THE WAY AFTER LETTING GO OF ATTACHMENTS

제27장. 逆情順性(역정순성) 바다로 흘러가는 나무처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A person who follows the Way is like a floating piece of wood that courses along with the current. If it does not touch either shore; if people do not pluck it out; if ghosts and spirits do not obstruct it; if it is not trapped in whirlpools; and if it does not rot, I guarantee that the piece of wood will reach the sea. If students of the Way are not deluded by emotion and desire, and if they are not disturbed by the many deviant views, but are vigorous in their cultivation of the unconditioned, I guarantee that they will certainly attain the Wa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이는 나무토막이 움틀굴틀한 좁은 내를 지나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나니, 나무가 물결을 따라서 떠나가되 두 언덕에 닿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건지지도 아니하고, 귀신에게 가로막히지도 않고, 웅덩이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또한 썩지도 아니하면, 나는 이 나무가 결정코 바다에 들어가리라고 보증하노라. 도를 배우는 사람도 이 나무와 같아서 색에도 미혹하지 않고, 재물에도 미혹하지 않고, 사도에도 미혹하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함이 없는 법에 정진하여 어느 곳에든지 걸리지만 아니하면, 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고 보증하노라.”

佛言：夫爲道者，猶木在水尋流而行，不觸兩岸，
불언：부위도자，유목재수심류이행，불촉양안，
不爲人取，不爲鬼神所遮，不爲洄流所住，亦不腐敗，
불위인취，불위귀신소차，불위회류소주，역불부패，
吾保此木，決定入海。學道之人，不爲情欲所惑，
오보차목，결정입해。학도지인，불위정욕소혹，
不爲衆邪所嬈，精進無爲，吾保此人 必得道矣。
불위중사소요，정진무위，오보차인 필득도의。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begins with an analogy and then is followed by the description of the Dharma for those who study the Way.

이 장은 비유로 시작하고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에 대한 설명이 뒤따릅니다.

The Buddha said, "A person who follows the Way is like a floating piece of wood that courses along with the current. Cultivation is to learn to go with the flow, make the best out of the circumstance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이는 나무토막이 움틀굴틀한 좁은 내를 지나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나니, 수행은 흐름에 따르고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If it does not touch either shore of emotion and desire, it can flow unhindered. Cultivation involves avoiding getting caught by the two shores of emotion and desire. One shore is the shore of views and thoughts, representing attachment to birth and death. The other shore is that of emotion and desire arising from ignorance, representing attachment to Nirvana.

나무가 물결을 따라서 떠나가되 두 언덕에 닿지도 아니하고, 수행은 감정과 욕망의 두 가지 해안에 걸리는 것을 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생사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견해와 생각의 해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열반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는 무지에서 생기는 감정과 욕망의 해안입니다.

If people do not pluck it out, this represents not getting caught in the nets of deviant views. They fail to understand the law of cause and effects and therefore spin out of orbit.

사람이 건지지도 아니하고, 이는 샷된 관점의 그물에 걸리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궤도 밖으로 회전합니다.

To be plucked out means to be used for worldly pursuits.

건져진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이용됨을 의미합니다.

If ghosts and spirits do not obstruct it: if it is not hindered by the ghosts and spirits. Ghosts come from the yin world to cause trouble. Spirits come from the yang world to compete against us; they have great spiritual penetrations.

Spirits accrue blessings and virtues in a prior lifetime, ghosts in contrast, do not.

귀신에게 가로막히지도 않고, 귀鬼는 음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옵니다. 신神은 우리와 경쟁하기 위해 양계에서 옵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통이 있습니다. 신은 전생에 복덕을 쌓았지만, 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Obstruct” also carries the connotation of being covered up: by views and thought delusions.

“가로막히다”는 또한 견혹과 사혹에 의해 덮였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f it is not trapped in whirlpools, making it spin around, representing laziness: they fail to be vigorous, or if they are vigorous, they lack the proper guidance and thus spins around and don’t make progress.

웅덩이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빙글빙글 돕니다. 이는 게으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정진하지 않습니다. 정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적절한 지침이 부족하여, 따라서 빙글빙글 돌며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Whirlpool gives the illusion of making progress but actually we are simply circling in place. That’s the nature of revolving in the wheel of birth and death: one life we’re born in the heavens, the next, in the animal realm: we have no control what so ever!

소용돌이는 진전을 이룬다는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저 제자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사의 바퀴에서 회전하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 축생계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And if it does not rot, if this piece of wood can withstand the water and moisture: it won’t rot. This refers to having adequate blessings for the long journey.

또한 썩지도 아니하면, 이 나무 조각이 물과 습기를 견딜 수 있다면,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긴 여행을 위해 충분한 복이 있음을 말합니다.

Rotten wood is an analogy for people who break precepts, lack faith in the BuddhaDharma or slander the Triple Jewel. They are like rotten wood which cannot be carved.

썩은 나무는 계율을 어기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삼보를 중상하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것들은 조각할 수 없는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For the advanced cultivators, this symbolizes the ability to penetrate the

Unconditioned Dharma.

상급 수행자들에게 이는 무유법을 관통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I guarantee that the piece of wood will reach the sea: It will reach its goal of liberation. “*The sea*” symbolizes the Buddha nature that we all try to return to. The sea represents the sea of our nature; we merge into True Suchness, our original home. We have been wandering aimlessly, now we’ve returned home.

나는 이 나무가 결정코 바다에 들어가리라고 보증하노라. 그것은 해탈의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가 돌아가려고 하는 부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우리 성품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래 고향인 여래로 합쳐집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헤매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In other words, **if students of the Way are not deluded by emotion and desire, and if they are not disturbed by the many deviant views, but are vigorous in their cultivation of the unconditioned, I guarantee that they will certainly attain the Way.** The Buddhas thus compassionately pointed the pitfalls that will get us in trouble. Stay clear of them and you’ll reach Bodhi.

즉, 도를 배우는 사람도 이 나무와 같아서 색에도 미혹하지 않고, 재물에도 미혹하지 않고, 사도에도 미혹하지 않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함이 없는 법에 정진하여 어느 곳에든지 걸리지만 아니하면, 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고 보증하노라.” 그래서 부처님들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함정을 자비롭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멀리하면 보리에 도달할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that we should: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릅니다.

1. Guard against emotion and desire. They confuse us.

감정과 욕망을 다스려라. 그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2. Not harbor deviant views. They will cause havoc in our cultivation.

삿된 견해에 머물지 말라. 그것들은 우리의 수행에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3. Vigorously cultivate the Way. In particular, focus on planting non-outflow blessings with the Unconditioned Dharma.

용맹스럽게 도를 수행하라. 특히, 무유법과 무루복을 심는 데 집중하세요.

Under those conditions, He guarantees that we “will certainly attain the Way”:

we will attain the fruitions.

그 조건하에서 그는 우리가 "분명히 도를 얻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우리는 과를 맺을 것입니다.

Section 28:

DON'T INDULGE THE WILD MIND

제28장. 意馬莫縱(의마막종) 색과 만나지 말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Be careful not to believe your own mind; your mind is not to be believed. Be careful not to get involved with sex; involvement with sex leads to disaster. After you have attained Arhatship, you can believe your own mind."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네 뜻을 믿지 말라. 네가 네 뜻을 믿지 못할진대 삼가 색으로 더불어 만나지 말라. 만일 색으로 더불어 만난 즉 곧 재앙이 생기리라. 그러나 법이 강하여 모든 마군을 확실히 항복 받은 후 아라한의 마침을 얻어야만 가히 네가 네 뜻을 믿을 것이요, 비록 색을 대할지라도 재화가 나지 아니하리라.”

佛言：慎勿信汝意，汝意不可信。慎勿與色會，色會即禍生，

불언 : 신물신여의, 여의불가신. 신물여색회, 색회즉화생,

得阿羅漢已，乃可信汝意.

득아라한이, 내가신여의.

Sutra commentary:

주석:

Here the (conscious) mind is described as like a wild horse that is very difficult to tame. In fact, it cannot be trusted. Furthermore, stay clear of sex because it brings disaster. By the way, only after you've become an Arhat can you trust your mind.

여기서 (의식적인) 마음은 길들이기 매우 어려운 야생마처럼 묘사됩니다. 사실, 그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은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에 성을 멀리하세요. 아라한이 된 후에야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The Buddha said, "Be careful not to believe your own mind. For example, it is so persuasive that it can come up with a hundred of reasons that you've found the love of your life. But, if your advances are rejected, it is also very capable of quickly putting the object of your desire down mercilessly. Does this sound familiar?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네 뜻을 믿지 말라. 예를 들어, 너무 설득력있게 여러분은 인생의 사랑을 찾았다는 백 가지 이유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랑이 진전하지 못한다면, 또한 욕망의 대상을 가차없이 빠르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Few can be as persuasive as our own mind.

우리 마음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The Buddha was afraid that we don't get it, so he repeated: **your mind is not to be believed**. Can he any clearer? Do not trust your own arguments!

부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어 재차 말했습니다: **네가 네 뜻을 믿지 못할진대 더 이상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신의 주장을 믿지 마세요!

The clever conscious mind is what makes us revolve in the Wheel of Reincarnation.

영리한 의식이 우리를 윤회의 바퀴에서 돌게 만듭니다.

Another clear and present danger is sex, the source of the myriad evils. **Be careful not to get involved with sex; involvement with sex leads to disaster**. Do not go anywhere near sex: we will only get into trouble. The Chinese text is actually more intense. It says that our going near sex will surely produce "disasters."

또 다른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무수한 악의 근원인 성입니다. **삼가 색으로 더불어 만나지 말라. 만일 색으로 더불어 만난 즉 곧 재앙이 생기리라.** 성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에 연루되면 재앙이 발생합니다. 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문제만 생길 것입니다. 한문본은 사실 더 강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에 가까워지면 반드시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A man was on his death bed. His loving wife cried and asked him. "How am I going to live without your love? What about our son, who will take care of him?" The man felt very bad as he died and is reborn as a bug in his wife's nose. The wife cried in great pain. At the time, an Arhat came by to help. The

husband bug came out of his ex-wife's nose; the wife saw it and wanted by stamp it. The Arhat stopped her and told her that it's her husband's reincarnation. She asked: my husband believes in Buddhism and observes the precepts, how could he have fallen into the three evil paths? The Arhat explained, he should have been reborn into the heavens, had he not been confused by his love for his family. He spoke Dharma for the bug. At the end of the bug's life, it was reborn in the heavens.

한 남자가 임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울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랑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줄까요?" 그 남자는 죽으면서 매우 기분이 언짢았고 아내의 코에 벌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매우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그 때, 아라한이 도우러 왔습니다. 남편 벌레는 그의 전 아내의 코에서 나왔고, 아내는 그것을 보고 누르려고 하였습니다. 아라한은 그녀를 말렸고 그녀의 남편이 환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불교를 믿고 계율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가 삼악도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아라한은 그가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면 천상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벌레에게 법을 설했습니다. 벌레의 수명이 다하자 그는 천상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Sex robs us of our vital energy. Case in point: excessive sex leads to premature aging. There is a price to pay for sexual pleasure whether you want to admit or not.

성은 우리의 생명력을 빼앗습니다. 예로 과도한 성관계는 조기 노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성적 쾌락에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Does that mean that you must live like a monk or nun? No, because monk and nuns are not necessarily safe from sex. The point here is to be aware of the pitfalls and make the right choice.

스님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님들도 성으로부터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함정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After you have attained Arhatship, you can believe your own mind. The Fourth stage Arhat Fourth Stage Arhat has cut off a lot of delusions already (he's ended all the view and thought delusions of the Triple Realm) and therefore his wisdom can be trusted. He can really see through things and

put them down. In particular, he has put an end to the self and is therefore free of its unpredictability and caprices.

아라한의 마침을 얻어야만 가히 네가 네 뜻을 믿을 것이요. 아라한은 이미 많은 미혹을 끊었고(그는 삼계의 모든 견혹과 사혹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지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 사물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아를 끝냈기 때문에 그것의 예측 불가능성과 변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Regarding cultivation, Mencius said: "To study the Way has no other reason but to seek to liberate one's mind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 Basically, he advocates that we cultivate in order to be able to liberate our mind. "To liberate" is similar to the cattle herder, he can liberate the cattle: allow them to go graze where they see fit. Regardless, even without supervision, the cattle still returns to the stables. Similarly, once we've obtained fourth stage ArhatshipFourth Stage Arhatship, our mind can be liberated and we are still in control.

수행과 관련하여 맹자는 "도를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은 소를 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풀을 뜯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없이 소들은 여전히 마구간으로 돌아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라한을 얻으면 마음은 자유롭지만 우리는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Section 29:

PROPER CONTEMPLATION COUNTERACTS SEXUAL DESIRE

제29장. 正念觀女(정념관여) 어머니처럼 딸처럼 바라보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Be careful not to look at women, and do not talk with them. If you must speak with them, be properly mindful and think, 'am a Sramana living in a turbid world. I should be like the lotus flower, which is not stained by the mud.' Think of elderly women as your mothers, of those who are older than you as your elder sisters, of those who are younger as your younger sisters, and of very young girls as your daughters. Bring forth thoughts to rescue them, and put an end to evil thoughts."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여인을 보지 말라. 만일 볼지라도 보지 않은 것 같이 하여 삼가 더불어 말하지 말라. 만일 더불어 말을 하게 되면 곧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단정히 하여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도를 닦는 사람이라 비록 탁한 세상에 처하나 마땅히 연꽃과 같이하여 진흙의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 늙은 여인은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젊은 여인은 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 여자는 딸 같이 생각하여 제도하고 예로써 공경할지니라. 또는 이 몸이 필경에 공한 것과 현재에 부정한 것을 보아서 곧 그 색심을 놓을지니라.”

佛言：慎勿視女色，亦莫共言語。若與語者，正心思念；

불언：신물시여색，역막공언어，약여아자，정심사념；

我爲沙門，處於濁世，當如蓮華，不爲泥汚。想其老者如母，

아위사문，처어탁세，당여연화，불위니오。상기노자여모，

長者如姉，少者如妹，稚者如子，生度脫心，息滅惡念。

장자여자，소자여매，치자여자，생도탈심，식멸악념。

Sutra commentary: 주석:

For those of us who feel that the sex thing is just too hard to cope with, the Buddha offers som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exual buildup. Having the proper contemplation, the proper perspective will help avoid disasters.

성적인 것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은 성욕의 증가에 대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올바르게 관을 하면, 올바른 관점은 재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Be careful not to look at women, and do not talk with them. I remember when I was a novice at the City of Ten Thousand Buddhas; men do not talk to women in private. We actually avoid contact with the opposite sex when possible.

부처님께서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삼가 여인을 보지 말라. 만일 볼지라도 보지 않은 것 같이 하여 삼가 더불어 말하지 말라. 제가 만불성성에서 사미였을 때 남자들은 여자들과 사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가능하면 이성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If you don't look at them, then you won't want to talk with them.

만약 여러분이 그들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If you have to talk with, then don't look at them: this is something that Westerners seem to have a problem with. Left-home people rarely look directly into each other's eyes when they speak. They sort of prefer to look sideways in your direction.

만약 여러분이 대화를 해야 한다면, 그들을 보지 마세요: 서양인들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습니다. 출가자들은 말을 할 때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 쪽으로 결눈질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I remember talking to one of my female disciple and looked at her left shoulder. So she moved to her left so as to be in my line of sight. I then looked to her right shoulder, making her shift toward her right!

저는 한 여제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의 왼쪽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시야에 들기 위해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If you must speak with them, because sometimes one has to come into contact with them, **be properly mindful and think**, the Buddha recommends that we do two things: our mind should be proper (we should have a proper attitude) and maintain proper thoughts (do not false-think!)

만일 더불어 말을 하게 되면 때때로 누군가 그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곧 마음을 가다듬고 몸을 단정히 하여 스스로 생각하되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하고(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망상을 하지 않습니다.)

I 'am a Sramana living in a turbid world. I should be like the lotus flower, which is not stained by the mud.' Remind yourself who you are. You chose to leave the world and become a left-home person. You chose to leave defilements of the "*turbid world*." "Turbid" is analogous to putting mud into a glass of clear water and stirring it up.

'나는 도를 닦는 사람이라 비록 탁한 세상에 처하나 마땅히 연꽃과 같이하여 진흙의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 여러분이 누구인지 상기시키세요.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 출가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탁한 세상"의 더러움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탁함"은 맑은 물이 담긴 잔에 진흙을 넣고 휘젓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The superior person does not get stained by the environment he lives in.

수승한 사람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 의해 물들지 않습니다.

When getting in touch with people, be careful not to get soiled "*stained by the mud*."

사람들과 접촉할 때,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Think of elderly women as your mothers; respect them as you would your own mother. **Think of those who are older than you as your elder sisters, of those who are younger as your younger sisters.** Think of them as your sisters. Conversely, women should think of their brothers.

늙은 여인은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나이든 여성들을 여러분의 어머니로 생각하세요; **젊은 여인은 누이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여러분의 자매라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여성들은 그들의 형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And think **of very young girls as your daughters.** Treat them as your own daughters. Be careful and avoid physical contact when possible.

그리고 어린 여자는 딸 같이 생각하여 그들을 당신의 딸처럼 대하세요. 조심하고 가능하면 신체 접촉을 피하세요.

Left-home people are not supposed to get too close to young girls and boys. We are not even supposed to touch animals (like dogs or cats)!

출가자들은 어린 소녀들과 소년들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동물 (개나 고양이 같은)을 만지면 안 됩니다!

Bring forth thoughts to rescue them, to help them to end suffering and attain bliss. Instead of indulging in false-thinking (self-benefit), make the resolve to help them (benefit others).

제도하고 고통을 끝내고,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망상에 탐닉하는 대신, 그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And **put an end to evil thoughts**. If bad thoughts have arisen because of habit energies, immediately put an end to it. Stop the slide to prevent further damage.

그리고 **예로써 공경할지니라**. 습관적인 에너지 때문에 나쁜 생각이 들었다면, 즉시 그것을 끝내세요.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슬라이드를 중지하십시오.

What are "*evil thoughts*?" They simply are thoughts that are of a sexual nature.

"악의적인 생각"이란 무엇인가요? 그것들은 단순히 성적인 생각입니다.

The objective is to maintain the proper mindset and not indulge in false-thinking.

목표는 올바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망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All false-thinking that arises will naturally extinguish by itself if we are careful not to add fuel to the fire. The addition of fuel to the fire only makes it burn longer and gives it more chances of burning out of control.

불에 기름을 붓지 않도록 조심한다면 발생하는 모든 망상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불에 연료를 더하면 불이 더 오래 타고 불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We all know this. We all also fail this kind of test because we fail to maintain the proper frame of mind. That is why the Buddha explained this section.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적절한 마음의 틀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Section 30:

STAY AWAY FROM THE FIRE OF DESIRE

제30장. 欲火速斷(욕화속단) 모든 애욕을 멀리 하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People who cultivate the Way are like dry grass: it is essential to keep it away from an oncoming fire. People who cultivate the Way look upon desire as something they must stay far away from."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정욕 보기를 마른 쉼 같이 불지니 마른 쉼은 불을 만나면 곧 위험해질 것이요, 정욕이 많은 사람은 경계를 만나면 또한 위험해지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그 욕심 경계를 멀리할지니라.”

佛言：夫爲道者，如被乾草，火來須避，道人見欲，必當遠之。

불언：부위도자，여피간초，화래수피，도인견욕，필당원지。

Sutra commentary:

주석:

Stay away from the fire of desire lest you want to get burned.

화상을 입지 않도록 욕망의 불길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The Buddha said, "People who cultivate the Way are like dry grass: it is essential to keep it away from an oncoming fire. Dry grass symbolizes the six desires corresponding to the six sense organ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정욕 보기를 마른 쉼 같이 불지니 마른 쉼은 불을 만나면 마른 풀은 육근 기관에 해당하는 욕욕을 상징합니다.

The six defiling objects (dusts) are like raging fire. Where there is union, there is great potential for disaster.

더러운 6경六境(진塵)은 맹렬한 불길과 같습니다. 육경과 합하면 큰 재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When the six sense organs come into contact with the six dusts, the six desires and seven emotions arise.

육근이 육진과 접촉하면 육욕과 일곱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Emotion is the boss of right and wrong (是非), discrimination and quarrel.

감정은 옳고 그름, 차별과 다툼의 왕입니다.

The seven emotions are:

7가지 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Joy (喜; heart) 2. Anger (怒; liver) 3. Anxiety (憂; lungs) 4. Pensiveness (思; spleen) 5. Grief (悲; lungs) 6. Fear (恐; kidneys) 7. Fright (驚; kidneys)

1 희쁨(심장) 2 노怒(간) 3우憂(폐) 4 사思(비장) 5 비悲(폐) 6공恐(신장) 7 경驚(신장)

The six desires are:

육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orm desire (色欲)

색욕色欲: 색에 대한 욕망

2. Shape and feature desire (形貌欲)

형모욕形貌欲: 형태와 모양에 대한 욕망

3. Awesome comporment desire (威儀欲)

위의욕威儀欲: 위이에 대한 욕망

4. Speech, language and sound desire (言語音聲欲)

언어음성욕言語音聲欲: 언어와 음성에 대한 욕망

5. Desire for Fine and smooth things (細滑欲)

사골욕細滑欲: 정교하고 부드러운 것에 대한 욕망

6. Desire of human marks (人相欲)

인상욕人相欲: 인상에 대한 욕망

If one indulges in desires and emotions, then one is flirting with the fire danger.

만약 누군가가 욕망과 감정에 탐닉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하게 불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People who cultivate the Way look upon desire as something they must stay far away from. Keep at a safe distance. Indulging in desires only hinders the

Way.

곧 위험해 질 것이요, 정욕이 많은 사람은 경계를 만나면 또한 위험해지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먼저 그 욕심 경계를 멀리할지니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욕망의 탐닉은 도를 방해할 뿐입니다.

To put it plainly: desires harm cultivation.

쉽게 말해서, 욕망은 수행에 해를 끼칩니다.

We cultivate in order to calm our mind. The mind of ordinary people is constantly agitated by the waves of desires, thereby reducing their clarity of mind.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행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욕망의 물결에 의해 끊임없이 동요되어 마음의 명쾌함을 떨어뜨립니다.

In the Tang dynasty in China, there was a Chan master, Dhyana master Dào Lín 道林. He lived on tree tops and thus is nicknamed as Eagle Nest Monk 鳥窠禪師. The country's prime minister came for a visit and said: "the venerable one's place of abode is a bit dangerous isn't it?" The Chan master replied: "Your eminence's danger is even greater?" The prime minister said: "Disciple is a safe height, how can I be at more risk?" The Chan master said: "Dry grass and fire are close to each other, constantly chasing after emotional desire; you don't think that it's dangerous?"

중국 당나라에 도림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 꼭대기에서 머물러 지내서 독수리 등지 스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방문하러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의 거처지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명성이 더 위험하지 않소?" 총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어떻게 제가 더 위험합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마른 풀과 불은 서로 가까이 있고, 끊임없이 감정적인 욕망을 쫓아다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When we make it to First Dhyana, we no longer worry about food, sex and sleep and thus get Chan bliss.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a taste of what it's like to escape the Desire Realm. Although First Dhyana is not considered by the Chan School as having samadhi power (because it's still rather fragile and quite unstable), it is a very important milestone for cultivation. That is why we set reaching First Dhyana as a major milestone for new cultivators. Once it is reached, cultivators are well on the way.

초선에 도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음식, 성, 잠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선열을 연습니다. 처음으로 욕계를 벗어나는 맛을 봅니다. 비록 선종에서는 초선이 삼매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아직은 다소 연약하고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행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선의 도달을 새로운 수행자의 주요 이정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일단 그곳에 도달하면, 수행자들은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In general, until both the self and state are emptied out, it's safer to distance oneself from desires.

일반적으로, 자아와 경계가 모두 공할 때까지, 욕망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Section 31:

WHEN THE MIND IS STILL, DESIRE IS DISPELLED

제31장. 心寂欲除(심적욕제) 마음이 고요하면 욕심도 사라진다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There was once someone who was plagued by ceaseless sexual desire and wished to castrate himself. The Buddha said to him, 'To cut off your sexual organ would not be as good as to cut off your mind. Your mind is like a supervisor: if the supervisor stops, his employees will also quit. If the deviant mind is not stopped, what good does it do to cut off the organ?'"

The Buddha spoke a gatha for him:

Desire is born from your intentions.

Intentions are born from thoughts.

When both aspects of the mind are still,

There is neither form nor activity.

The Buddha said, "This verse was spoken by the Buddha Kashyapa."

한 사람이 색욕이 그치지 않음을 걱정하여 칼날로써 그 음(陰)을 끊으려 하거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음을 끊음이 그 마음을 끊음만 같지 못하나니, 마음은 곧 운전사라 운전만 그치면 모든 기관은 스스로 다 쉴 것이어늘, 사심은 제하지 아니하고 그 음만 끊은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설하시되, "욕심은 네 뜻에서 나오고, 뜻은 생각에서 나도다.

두 가지 마음이 각각 고요해지면 색도 아니고 또한 행도 아니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계송은 가섭부처님의 말씀이다.

佛言：有人患淫不止，欲自除陰。佛謂之曰：若斷其陰，

불언：유인환음부지，욕자제음。불위지왈：약단기음，

不如斷心，心如功曹，功曹若止，從者都息，邪心不止，斷陰何益。佛爲說偈：

불여단심，심여공조，공조약지，종자도식，사심부지，단음하익。불위설계：

欲生於汝意，意以思想生。二心各寂靜，非色亦非行。

욕생어여의，의이사상생。이심각적정，비색역비행。

佛言: 此偈是迦葉佛說.

불언: 차게시가섭불설.

Sutra commentary:

주석:

To cut off desire, we should start with the mind. Desires are born from intentions. Intentions arise from thoughts. When you investigate how thoughts are produced and get to its very origin, you'll discover that place where your mind is still.

욕망을 끊기위해 마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욕망은 의도에서 생겨납니다. 의도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근원에 다다를 때, 여러분은 마음이 고요한 그 장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There was once someone who was plagued by ceaseless sexual desire and wished to castrate himself. One exasperated cultivator thought of resorting to the extreme measure of self-castration. The body seems to have a life of its own and would not cooperate and behave itself.

한 사람이 색욕이 그치지 않음을 걱정하여 칼날로써 그 음(陰)을 끊으려 하거늘 화가 난 한 수행자는 극단적으로 거세를 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독자적으로 삶을 사는 것 같고 자신에게 협조하고 않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The Buddha said to him, 'To cut off your sexual organ would not be as good as to cut off your mind. It can be much less painful. You are better off dealing with the root cause. Worldly people tend to fail make the connection: it's the false-thinking mind which is the culprit, not the bod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음을 끊음이 그 마음을 끊음만 같지 못하니, 아픔이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연관을 잘 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인은 망상이지 몸이 아닙니다!

Your mind is like a supervisor: if the supervisor stops, his employees will also quit. The “*mind*” is actually behind it all (it is the “*supervisor*”). If the mind/supervisor ceases indulging in sexual thoughts, our body would not be engaged.

마음은 곧 운전사라 운전만 그치면 모든 기관은 스스로 다 쉴 것이어늘, "마음"은 실제로 모든 것 뒤에 있습니다(그것은 "감독관"입니다). 만약 마음/감독관이 성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의 몸은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As long as the supervisor tolerates it, the employees will continue to indulge. 감독관이 그것을 용인하는 한, 직원들은 계속 즐길 것입니다.

If the deviant mind is not stopped, what good does it do to cut off the organ?"

If the problem is not addressed at the root source, aren't we simply putting on a Band-Aid?

사심은 제하지 아니하고 그 음만 끊은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시고 근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반창고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Even without the use of the sexual organs, people still continue to false-think! 성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망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he Buddha spoke a gatha for him:

부처님께서 다시 계송으로 설하시되,

Desire is born from your intentions.

Intentions are born from thoughts.

When both aspects of the mind are still,

There is neither form nor activity.

"욕심은 네 뜻에서 나오고, 뜻은 생각에서 나도다.

두 가지 마음이 각각 고요해지면 색도 아니고 또한 향도 아니네."

"Gatha偈" is a verse. The Chinese form can be in phrases of four, five, six or seven characters which may or may not rhyme; four of these phrases form a gatha.

"계偈"는 구절입니다. 한문으로 4자, 5자, 6자 또는 7자의 구절일 수 있으며, 운을 맞출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4구절은 계송입니다.

"Desire is born from your intentions."

"욕심은 네 뜻에서 나오고"

"Intention意" refers to our sixth consciousness or also known as the conscious mind. This mind was identified in an earlier section as "cannot be trusted."

"뜻意"은 우리의 여섯 번째 의식 또는 의식적인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은 앞에서 "믿을 수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Intentions are born from thoughts."

"뜻은 생각에서 나도다."

"Thoughts 思想" give rise to "intention." According to the Consciousness Only school, "thoughts" consist of two components decision 思 and examination 想. Examination is the recognition of the sensory data (dusts) brought in by the six sense organs. Decision is the mental process of deciding what it is. A little bit was lost in the translation.

"생각"은 "뜻"을 낳습니다. 유식종에 따르면, "생각"은 사思와 상想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상想은 여섯가지 감각기관이 가져온 감각적인 자료(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思는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정신적 과정입니다. 번역 중에 약간의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When both aspects of the mind are still" refers to the two examination and decision aspects of the mind/ intention are no longer operational.

"두 가지 마음이 각각 고요해지면" 마음/의도의 사상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There is neither form nor activity."

"색도 아니고 또한 행도 아니네."

When you can still your thoughts, you are no longer confused by form or sexual desire.

생각을 고요히 하면, 더 이상 색이나 성욕에 의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The Buddha said, "This verse was spoken by the Buddha Kashyapa."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송은 가섭부처님의 말씀입니다.

"Kashyapa" Buddha is the sixth of the seven Buddhas that has so far appeared in our Worthy eon. He is the predecessor of Shakyamuni Buddha. "Kashyapa" means "drinking light 飲光": his light is so bright that it appears to drink up the light from the moon or sun.

"가섭"불은 지금까지 우리 현겁에 나타난 칠불 중 여섯 번째 부처님입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입니다. "Kashyapa"는 "빛을 마시는 飲光" 을 의미합니다: 그의 빛은 너무 밝아서 달이나 태양의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key here is to work with the mind. The Buddhist shastras say: "When the

mind moves, the myriad dharmas are born; when the mind is extinguished, the myriad dharmas are extinguished.”

여기서 핵심은 마음입니다. 불교논에 이르길 "마음이 움직이면 무수한 법이 태어나고, 마음이 소멸되면 무수한 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This actually happened. When the Buddha was at the Jeta Grove, there was a Bhikshu who sincerely wanted to cultivate the Way. He has a rather impetuous nature and has a lot sexual desire. Hearing that he needs to end sexual desire and yet he is constantly overwhelmed by his urges, he asked to borrow a knife to cut off his male organ. The Buddha spoke to him and explained Dharma to him. He attained Arhatship not too long afterward.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이 제타 숲에 있을 때, 진심으로 도를 닦고 싶어하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미가 급하고 성욕이 왕성합니다. 성욕을 끝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충동에 압도되었습니다. 남성은 성기를 잘라내기 위해 칼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에 도달했습니다.

When a thought of desire arises, be aware and do not follow it, do not indulge Every time that you indulge, you lay down more tracks to make it easier to tread the subsequent times. If you don't, you are gradually quieting your mind That's the secret! Do not allow yourself to be confused!

욕망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인지하고 따라가지 말고, 즐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즐길 때마다, 그 다음에 더 쉽게 생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차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Section 32:

EMPTYING OUT THE SELF QUELLS FEAR

제32장. 離愛忘憂(이애망우) 애욕을 떠나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People worry because of love and desire. That worry then leads to fear. If you transcend love, what worries will there be? What will be left to fear?"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근심으로 쫓아 무서움이 생기나니, 애욕이 없으면 곧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곧 무서움이 없으리라.”

佛言：人從愛欲生憂，從憂生怖，若離於愛，何憂何怖。

불언：인중애욕생우，중우생포，약리어애，하우하포。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comes from the Mahaparanirvana Sutra (Sagely conduct chapter) We worry and have fear because of love and desire. To end love and desire is to put an end to worry and fear.

이 장은 대열반경(현행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애욕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애욕을 끝내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People worry because of love and desire. That worry then leads to fear. When you chase after love and desire, you tend to worry. Worry has a way of quickly developing into fear before you know it because worry is a form of suffering and suffering brings on fear.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근심으로 쫓아 무서움이 생기나니, 애욕을 쫓을 때, 여러분은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걱정은 고통의 한 형태이고 고통은 두려움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느새 걱정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Have you ever bought a new car?

새 차를 산 적이 있습니까?

A new car brings on a lot of pleasure and pride. Isn't it fun to catch a glimpse of your neighbors' envious eyes as you drive past her? Doesn't it feel even greater when you pretend in her presence that it's nothing at all?

새 차는 많은 즐거움과 자부심을 불러옵니다. 차를 몰고 그녀를 지나갈 때 이웃들의 부러워하는 눈을 흘겨보는 것은 재미있지 않나요? 그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나요?

Then, don't you also find yourself fretting getting nicked in the parking lot when you go shopping?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한 쇼핑하러 갈 때 주차장에서 차가 긁힐까봐 초조해하지 않나요?

If you transcend love, if you are free from thoughts of love and desire, **what worries will there be? What will be left to fear?** Put down your attachments and you'll be free.

애욕이 없으면 곧 근심이 없고, 애욕에서 자유로우면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롭습니다.

People have seven kinds of worries 七種憂慮:

사람들은 일곱 가지 종류의 걱정을 합니다.

1. Body 身力: have we pampered it enough? Can we sustain its strength?

신력 身力: 우리가 충분히 몸을 돌보니까? 우리가 그것의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2. Lifespan 壽命: can we live a little bit longer?

수명 壽命: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3. Disease 疾病: weakens us physically.

질병 疾病: 신체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4. Mistakes 罪惡: weaken us morally and mentally.

죄악 罪惡: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5. Disaster 殃禍: wreaks destruction upon us.

양화 殃禍: 우리에게 파괴를 입힙니다.

6. Separation (from loved ones) 別離: we want more of those nice feelings.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별리別離: 우리는 더 많은 좋은 감정을 원합니다.

7. Death死亡: it's so final!

사망死亡: 정말 마지막입니다!

There are five kinds of fear五種 恐怖:

공포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To lose life不 活. Most of us will not admit it but this ranks amongst the top of the lists.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는 상위 목록입니다.

2. Bad reputation惡 名. We all have our insecurities. We all fear rejection.

악명. 우리는 모두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3. Stage fright大 眾 威 德.

무대 공포증

4. Death死亡. We don't know of that many people who can come back from death. We therefore have fear because it is unknown and irreversible.

사망: 우리는 죽음에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5. Fall into the evil paths墮 惡 道. I have many disciples who are quite brave. I have no problem admitting to them that this is one of my deepest fears. To fall into the three evil paths (animal realm, ghost realm and hell) would mean to have to endure suffering for eternity.

악도에 빠짐. 나의 많은 제자들은 꽤 용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것이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삼악도(축생, 아귀, 지옥)에 빠진다는 것은 영원히 고통을 견뎌야 함을 의미합니다.

Confucius says:

공자는 말합니다:

"The wise is not deluded, the humane have no worries, and the brave have no fear 智 者 不 惑 , 仁 者 不 憂 , 勇 者 不 懼."

"현명한 사람은 미혹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은 걱정이 없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智 者 不 惑 , 仁 者 不 憂 , 勇 者 不 懼

Wise people are not confused about the principles and manifestations. The

humane and kind have nothing to worry about. Brave people really have no fear at all.

현명한 사람들은 이사理事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친절한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Section 33:

WISDOM AND CLARITY DEFEAT THE DEMON

제33장. 精進破魔(정진파마) 굳세게 용감하게 나아가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People who cultivate the Way are like a soldier who goes into battle alone against ten thousand enemies. He dons his armor and goes out the gate. He may prove to be a coward; he may get halfway to the battlefield and retreat; he may be killed in combat; or he may return victorious.

"Sramanas who study the Way must make their minds resolute and be vigorous, courageous, and sharp. Not fearing what lies ahead, they should defeat the hordes of demons and obtain the fruition of the Wa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이는 비유컨대 한 사람이 만인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아서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아 문에 나가 싸우고자 할 새 혹 겁내어 달아나는 이도 있고, 혹 중도에 퇴보하는 이도 있고, 혹은 싸우다가 죽는 이도 있고, 혹은 크게 승전을 하여 큰 공을 이룬 이도 있나니, 사문이 마땅히 그 뜻을 굳게 하고 더욱 용맹심을 발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경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못 마군을 항복 받으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

佛言：夫爲道者，譬如一人與萬人戰，挂鎧出門，意或怯弱，
불언：부위도자，비여일인여만인전，괘개출문，의혹겁약，
或半路而退，或格斲而死，或得勝而還。沙門學道，
혹반로이퇴，혹격투이사，혹 득승이환。사 문학도，
應當堅持其心，精進勇銳，不畏前境，破滅衆魔，而得道果。
응당견지기심，정진용예，불외전경，파멸중마，이득도과。

Sutra commentary:

주석:

Here we learn of another reason why fearlessness is listed as one of the three forms of giving.

여기서 우리는 무외시가 보시의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나열되는 또 다른 이유를 배웁니다.

Cultivators should use the three non-outflow studies of precepts, samadhi and wisdom and advance with single-minded vigor.

수행자는 계정혜의 삼무루학을 사용하고 일심으로 정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The Buddha said, "People who cultivate the Way are like a soldier who goes into battle alone against ten thousand enemies. In cultivation, our odds are one against ten thousand. The ten thousand enemies are like the myriad delusions of views and thoughts. Cultivation ultimately boils down to learning to face your demons alone. You can't run away from them or hide your head under the sand. You're simply delaying the inevitable. You have to take the test to pass the grade. Luckily, most soldiers have gone through training and have backup.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저 도를 닦는 이는 비유컨대 한 사람이 만인으로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아서 수행에서 우리의 승산은 1만 대 1입니다. 만 명의 적은 무수한 시각과 생각의 망상과 같습니다. 수행은 결국 당신의 마와 홀로 맞서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도망가거나 모래 밑에 머리를 숨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피할 수 없는 일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군인들은 훈련을 받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He dons his armor and goes out the gate. “*Donning armor*” refers to the old times when one goes into battle, one needs to wear armor in order to protect one against harm.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아 문에 나가 싸우고자 할 새 "갑옷을 입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해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갑옷을 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It is equivalent to receiving and upholding the precepts. The better you are at

it, the stronger your personal protection. This is against the common misperception that precepts are restrictive; in contrast, they protect you against harm.

그것은 계를 받고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계를 받고 잘 지킬수록 개인적인 보호는 강화됩니다. 이것은 계가 제약을 준다는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에 반합니다. 반대로, 계는 여러분을 해침으로부터 보호합니다.

Going out the gate alludes to venturing into unknown territories to conquer new areas. A newly settled land is not unlike your mind having more control of your life.

성문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미지의 영역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을 암시합니다. 새로 정착하는 땅은 여러분의 삶을 더 잘 통제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He may prove to be a coward. "Coward" is translated from "意怯弱," literally "mind fearful and weak." This arises from the lack of precepts power戒力.

혹 겁내어 달아나는 이도 있고, 그는 겁쟁이로 판명될지도 모릅니다. "겁쟁이"는 문자 그대로 "마음이 두렵고 약하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력戒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This individual definitely needs more support!

이 사람은 확실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He may get halfway to the battlefield and retreat. That is because of a lack of faith. Faith can be built up from vigor. If you vigorously cultivate, you'll get numerous responses and thus building your faith. Like in our Chan class, we never needed to oversell the Chan benefits. In fact, we consistently undersold the benefits. The benefits and responses that were experienced a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Now you know why samadhi power is critical: it helps us not give up halfway; giving up before attaining the fruitions of the Way.

혹 중도에 퇴보하는 이도 있고, 그는 전쟁터에 반쯤 가서 퇴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믿음은 정진에서 쌓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한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감응을 얻을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쌓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의 이로움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로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경험했던 이로움과 감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삼매력이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중에

(도의 결실을 맺기 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Not retreating reflects adequate samadhi power 定力.

후퇴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삼매력(定力)을 반영합니다.

He may be killed in combat; alluding to the cultivator giving up the practice.

혹은 싸우다가 죽는 이도 있고, 수행자가 수행을 포기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Or he may return victorious. "*To return victorious*" reflects having adequate wisdom power 慧力, enabling the cultivator to attain the fruitions.

혹은 크게 승전을 하여 큰 공을 이룬 이도 있나니, 아니면 그가 승리해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은 충분한 지혜의 힘(慧力)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써 수행자는 과를 맺습니다.

Nothing is for sure. Sometimes, the enemies are just too much for you. You simply get overwhelmed and fail in your quest (you don't die per se; you could simply lose faith and give up on cultivation). However, if you persevere, chances are that you'll succeed and return triumphantly. It can be a lot of fun very blissful.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적들은 너무 벅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압도당하고 탐구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절로 죽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을 잃고 수행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인내한다면, 성공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즐겁고, 매우 행복할 수 있습니다.

Sramanas who study the Way must make their minds resolute and be vigorous, courageous, and strong.

사문이 마땅히 그 뜻을 굳게 하고 더욱 용맹심을 발하여

"Sramanas" are left-home people. They are fighting for their wisdom life.

"사문"은 출가자입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삶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Make the mind resolute" means to make one's mind firm and prepared to go for the long haul.

"그 뜻을 굳게 하고"는 마음을 굳히고 장기적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Chinese word for "*vigor*" has two characters: qing jin 精進. Qing 精 means pure, not mixed. Jin 進 means not retreat. This could be explained as to be single-minded and resolutely advance.

"정진(精進)"에서 정(精)은 섞이지 않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진(進)은 후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편단심이고 단호하게 전진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Courageous* 勇" is the lack of fear or timidity. In the past, brilliant generals have been known to destroy boats that carry the troops across the oceans. Their soldiers have no choice but bravely fight to their death. To be courageous is to not even entertain a single thought of retreat.

"용맹심勇"은 두려움이나 소심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뛰어난 장군들은 대양을 가로질러 군대를 실어 나르는 배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군인들은 용감하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후퇴에 대한 단 한 생각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Strong* 銳" also has a connotation of sharpness: can easily break through obstacles.

"銳"는 또한 날카로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It takes resolve, you have to really want it and be willing to pay the price for it. That requires real wisdom; the wisdom to discern the right direction and commit to it. Once committed, one should strive forward vigorously, overcome personal fears, and valiantly go against the odds.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분별하고 그것에 전념하는 지혜입니다. 일단 결심을 하면, 사람들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개인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Not fearing what lies ahead, cultivation is a rather long journey, fraught with many dangers. Therefore, cultivators of the Way must never fear obstacles and difficulties.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경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수행은 많은 위험으로 가득 찬 다소 긴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도의 수행자들은 장애와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A brilliant tycoon said: "Others see difficulties, I see opportunities!"

한 뛰어난 재벌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보고, 나는 기회를 봅니다!"

They should defeat the hordes of demons and obtain the fruition of the Way.

기어이 못 마군을 항복 받으면 반드시 도를 얻으리라."

"Demons" are of four kinds:

"마"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Heavenly: the beings dwell in the sixth Desire Heaven. They have tremendous spiritual powers and are very evil. They want to inflict harm and suffering upon us.

천天: 욕욕천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신력이 있고 매우 악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자 합니다.

2. Death: these types of demons bring death to wherever they go.

사死: 이런 종류의 마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3. Afflictions: they specialize in causing afflictions in us. There are anger demons, greed demons, insanity demons etc.

뇌惱: 우리를 번뇌롭게 합니다. 분노의 마, 탐욕의 마, 광기의 마 등이 있습니다.

4. Skandha: they specialize in confusing advanced cultivators. Beware!

온蘊: 그들은 특히 숙련된 수행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조심하세요!

One of the three forms of giving is the giving of fearlessness. That builds up our fearlessness account that we can draw upon when we cultivate. If we don't fall prey to fear, we'll make it to Bodhi.

세가지 종류의 보시 중 하나는 무외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외無畏를 쌓게 합니다. 우리가 공포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리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 are many "*fruits of the Way*" such as Arhatship, Bodhisattvahood, etc.

아라한과, 보살도 등 많은 '도과道果'가 있습니다.

The Buddha defeated the hordes of demons before attaining the Way (becoming a Buddha). That's why he is called the Great Hero (大雄).

부처님은 도를 얻기 전에 마의 무리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영웅大雄이라고 합니다.

Section 34:

BY STAYING IN THE MIDDLE, ONE ATTAINS THE WAY

제34장. 適中證理(적중증리) 거문고 줄 고르기

Sutra text:

경전 원문:

One evening a Sramana was reciting the *Sutra of the Teaching Bequeathed by the Buddha Kashyapa*. The sound of his voice was sad and dejected as he reflected remorsefully on his wish to retreat in cultivation. The Buddha asked him, "In the past when you were a householder, what did you do?"

He replied, "I was fond of playing the lute."

The Buddha said, "What happened when the strings were slack?"

He replied, "They didn't sound."

"What happened when they were too tight?"

He replied, "The sounds were cut short." "What happened when they were tuned just right between slack and tight?" He replied, "The sounds carried."

The Buddha said, "It is the same with a Sramana who studies the Way. If his mind is harmonious, he can attain the Way. If he is impetuous about the Way, his impetuosity will tire out his body; and if his body is tired, his mind will become afflicted. If his mind becomes afflicted, then he will retreat from his practice. If he retreats from his practice, his offenses will certainly increase. You need only be pure, peaceful, and blissful, and you will not lose the Way."

한 제자가 있어 공부를 급히 하고자 하여 밤에 경을 외울새 필경에 기운이 다하여 그 소리가 매우 가쁘고 장차 퇴보할 생각을 내거늘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물으시되, "네가 집에 있을 때에 무엇을 많이 해 보았느냐?" 대답하되, "거문고를 많이 타 보았나이다." "거문고 줄이 늦으면 어떠하더냐?" "소리가 나지 않더이다." "또 거문고 줄이 된 즉 어떠하더냐?" "소리가 끊어지더이다." "완급이 골라 맞은즉 어떠하더냐?" "그러면 모든 소리가 다 골라 맞더이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도에 대해서 너무 급한 생각을 내면 몸이 피로해지고 몸이 피로해지면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마음에 번뇌가 생기면 수행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수행이 이미 뒤로 물러서게 되면 죄만 반드시 더해지리니 오로지 마음을 맑게

하고 편안하게 해야 도를 잃어버리지 아니 할 것이다.

沙門, 夜誦迦葉佛遺教經, 其聲悲緊, 思悔欲退.

사문, 야송가섭불유교경, 기성비긴, 사회욕퇴.

佛問之曰: 汝昔在家, 曾爲何業, 對曰: 愛彈琴.

불문지왈: 여석재가, 증위하업, 대왈: 애단금.

佛言: 弦緩如何. 對曰: 不鳴矣. 弦急如何. 對曰: 聲緩矣.

불언: 현완여하. 대왈: 불명의. 현급여하. 대왈: 성절의.

急緩得中如何. 對曰: 諸音普矣. 佛言: 沙門學道亦然,

급완득중여하. 대왈: 제음보의. 불언: 사문학도역연,

心若調適, 道可得矣, 於道若暴, 暴卽身疲, 其身若疲,

심약주적, 도가득의, 어도약포, 포즉신티, 기신태피,

意卽生惱, 矣若生惱, 行卽退矣, 其行旣退, 罪必加矣,

의즉생뇌, 의약생뇌, 행즉퇴의, 기행기퇴, 죄필가의,

但清淨安樂, 道不失矣.

단청정안락, 도불실의.

Sutra commentary:

주석:

People may misunderstand and be overzealous: to study the Way, one should regulate body and mind. We should not be too lax or too intense. Don't try to be too fast (overeager) or too slow (lazy).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여 지나치게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도를 공부하려면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강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하지 마세요.

Confucius said: "Advance too rapidly, Retreat just as hastily其進銳者其退速."

공자가 말하기를, "너무 빨리 전진하면 그만큼 빨리 후퇴한다."라고 했습니다.

One evening a Sramana was reciting the *Sutra of the Teaching Bequeathed by the Buddha Kashyapa*. Many left-home people recite Sutras in the evening as part of their daily routine.

한 제자가 있어 공부를 급히 하고자 하여 밤에 경을 외울새 많은 출가자들은 일과로 저녁에 경전을 독송합니다.

Back then, sramanas eat before noon. They listen to the Dharma in the afternoon. They recited and read the scriptures in the evening (前半夜讀誦經典). They rest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中夜養息). And they practiced Chan in the early morning (後夜修禪定).

그 당시에 사문은 정오 전에 먹습니다. 그들은 오후에 법을 듣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경전을 독송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선을 수행했습니다.

When Kashyapa Buddha appeared in the world, Shakyamuni Buddha was Protecting Brightness Bodhisattva護明菩薩. Although Kashyapa Buddha's BuddhaDharma was already extinct from our Saha world, Shakyamuni Buddha can still access it and bring it to our era.

가섭불이 세상에 나왔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호명보살護明菩薩이었습니다. 비록 가섭불의 불법은 이미 우리 사바세계에서 사라졌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전히 그것을 우리 시대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Just like Kashyapa Buddha, before entering Stillness, Shakyamuni Buddha also left behind his "bequeathed teachings" as well.

가섭불처럼 적묵에 들기 전,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의 "유훈"을 남겼습니다.

The sound of his voice was sad and dejected as he reflected remorsefully on his wish to retreat in cultivation. The thought of retreat is very heavy on his mind. And his voice is very sad and tense from dejection. He feels that he can't continue to cultivate and would have to return to lay life.

필경에 기운이 다하여 그 소리가 매우 가쁘고 장차 퇴보할 생각을 내거늘 퇴보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슬펐고 낙담하여 긴장되었습니다. 그는 수행을 계속 할 수 없어서 재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Buddha knew what was on his mind (from the spiritual penetration of the knowledge of others' mind) and **asked him.**

부처님은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타심통으로) 알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In the past when you were a householder, what did you do?" He replied, "I was fond of playing the lute."

“네가 집에 있을 때에 무엇을 많이 해 보았느냐?” 대답하되, “거문고를 많이 타 보았나이다.” He used to like playing the lute.

그는 거문고를 타곤 했습니다.

The Buddha said, "What happened when the strings were slack?" He replied, "They didn't sound." "거문고 줄이 느슨하면 어떠하더냐?" "소리가 나지 않더이다."

The notes are not musical.

음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What happened when they were too tight?"

He replied, "The sounds were cut short."

“또 거문고 줄이 된 즉 어떠하더냐?” “소리가 끊어지더이다.”

The notes don't resonate as long as they are supposed to. 음은 조화롭지 않습니다.

"What happened when they were tuned just right between slack and tight?"

He replied, "The sounds carried."

“완급이 골라 맞은즉 어떠하더냐?” “그러면 모든 소리가 다 골라 맞더이다.”

The notes sound right and carried all over. Each sound is supposed to be: Do, Re, Mi, Fa, Sol, La, Si.

음은 올바르게 소리가 나고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각 음은 도레미파솔라시입니다.

The Buddha said, "It is the same with a Sramana who studies the Way. If his mind is harmonious, he can attain the Way. If he can maintain his balance he can attain the Way.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너무 급히 하지도 말고, 너무 게을리 하지도 말고, 마침내 도를 얻으리라.” 그가 균형을 유지하면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If he is impetuous about the Way, his impetuosity will tire out his body; and if his body is tired, his mind will become afflicted. If he overdoes it, his body gets tired and makes him afflicted.

도에 대해서 너무 급한 생각을 내면 몸이 피로해지고 몸이 피로해지면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그가 과하게 하면 몸은 피곤하여 마음이 번뇌롭습니다.

I met a young monk who had to go see a doctor because he bowed to the Buddha one thousand times a day. That's overdoing it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he has not been taught the proper technique for bowing.

저는 한 젊은 스님을 만났는데 그는 하루에 천배를 해서 병원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는 조금 과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그가 제대로 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때 그러합니다.

If his mind becomes afflicted, then he will retreat from his practice.

마음에 번뇌가 생기면 수행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Cultivation is no longer paying off for him, he wants to quit.

수행에 더이상 결과가 없어 그는 그만두고자 합니다.

One of the direct consequences of quitting is that you tend to be critical of cultivation. You failed because you don't know how to cultivate. And yet, you blame it on your teachers or colleagues.

그만두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중의 하나는 수행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패했지만 스승과 동료의 탓을 합니다.

If he retreats from his practice, his offenses will certainly increase. That's the inevitable consequence of retreating: your offenses will certainly increase.

수행이 이미 뒤로 물러서게 되면 죄만 반드시 더해지리니 이것이 퇴보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잘못은 분명 더해집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Left-home people observe more precepts than lay people. Sramanas therefore tend to create fewer offenses in their daily life.

출가자는 재가자보다 더 많은 계율을 지킵니다. 그래서 사문은 일상 생활에서 잘못을 적게 저지릅니다.

You need only be pure, peaceful, and blissful, and you will not lose the Way.

Keep your precepts ("*pure*"), practice meditation (calm down your mind and become "*peaceful*") and derive joy from your practice ("*blissful*") and you will make it.

오로지 마음을 맑게 하고 편안하게 해야 도를 잃어버리지 아니 할 것이다. 계율을 지키고(청정) 선을 수행하고(마음을 고요히하면 평화롭습니다.) 수행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안락합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Not too fast, not too slow and you'll get there at the right time. The key word is to stay away from extremes: excess of efforts and lack of drive to obtain liberation.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말고 올바른 때에 도달할 것입니다. 핵심은 극단(해탈을 얻기 위한 과도한 노력과 추진력의 부족)을 피하는 것입니다

Dharma Master Wonderful Admiration 妙 欽 said:

법사는 경이로워하면서 감탄했습니다.

“Leaving the home life for a year, the Buddha is in front of one’s eyes 出家一年, 佛在眼前; leaving the home life for two years, the Buddha is at mid sky 出家兩年, 佛在半天; leaving the home life for three years, the Buddha has returned to the western sky 出家三年, 佛歸西天.”

“출가 1년에는 부처님이 눈앞에 있고 出家一年, 佛在眼前 출가 2년에는 부처님이 중천에 있고 出家兩年, 佛在半天, 출가 3년에는 부처님은 서쪽 하늘로 돌아갑니다. 出家三年, 佛歸西天”

For recently ordained sramanas, they still are enthused as if the Buddha is cultivating with them. After a while (two years later), they realize how tough it can be and become more disillusioned. That’s why it’s as if the Buddha is further away in the sky. After three years, they become even more disillusioned: it’s as if the Buddha has retired to the Western Bliss world (which is ten billion worlds away from our world).

최근에 계를 받은 사문들은 부처님이 그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처럼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잠시 후 (2년 후)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고 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부처님이 하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그들은 더욱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부처님이 (우리 세계에서 100억 개의 세계 멀리 떨어져 있는) 서방극락세계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Such is the experience of many left-home people.

그것이 많은 출가자들의 경험입니다.

This Bhikshu reflected on the Buddha’s personal instructions and continued his cultivation. He later attained Arhatship. This was reported in the Agama sutras.

이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의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함경에 기록되었습니다.

Section 35:

WHEN ONE IS PURIFIED OF DEFILEMENTS, THE BRILLIANCE REMAINS

제35장. 去染即淨(거염즉정) 마음의 때를 씻어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People smelt metal by burning the dross out of it in order to make high quality implements. It is the same with people who study the Way: first they must get rid of the defilements in their minds; then their practice becomes pur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를 닦는 것은 쇠를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불에 녹이고 망치로 때려서 그 잡철을 다 빼어 버린 후에야 비로소 좋은 그릇을 이루는 것이니, 사람이 도를 배울 때에도 점점 그 마음 가운데 때를 제거하면 행실이 곧 청정하여 스스로 불과를 얻으리라."

佛言: 如人鍛鐵 去滓成器, 器即精好; 學道之人,

불언: 여인단철 거재성기, 기즉정호; 학도지인,

去心垢染, 行即清淨矣.

거심구염, 행즉청정의.

Sutra commentary:

주석:

Brilliance and defilements are mutually exclusive.

밝음과 더러움은 서로 상충됩니다.

The Buddha said, "People smelt metal by burning the dross out of it in order to make high quality implements. High quality tools require high quality metal To obtain high quality metal, you must use high heat to burn up impuritie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불에 녹이고 망치로 때려서 그 잡철을 다 빼어 버린 후에야 비로소 좋은 그릇을 이루는 것이니, 품질이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금속이 필요 합니다. 고품질의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열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Anyone sees any parallel between this and the pain when may come when you cross your legs? The special Chan training that we offer can produce very high quality raw materials very quickly.

이를 다리를 틀었을 때의 고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제공하는 특별한 선 훈련은 매우 높은 품질의 원료를 매우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It is the same with people who study the Way: first they must get rid of the defilements in their minds. The starting point of the three non-outflow studies is precepts! In this Dharma ending age, most people no longer pay much attention to precepts any more. As a result, they lack the proper foundation. It is no wonder their progress is rather slow.

사람이 도를 배울 때에도 이와 같아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때를 제거하면 삼무루학의 출발점은 계입니다! 이 말법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계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올바른 기반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진보가 다소 느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Defilements of the mind impede your progress. If your mind is full of defilements, you are not a good Dharma vessel. Don't blame your teacher for not teaching you: whatever she tells you, it goes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마음의 더러움은 여러분의 진전을 방해합니다. 마음이 더럽다면, 좋은 법기가 아닙니다. 스승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탓하지 마세요. 스승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나갑니다.

A Taoist friend come over to the house. He's half believer in Buddhism and half in Taoism: a rather common happening for Asians. We have lots of blooming flowers in the backyard, very pretty and colorful. When he heard that there was one flower that has a really strange color, that's the one that he zeroes in and did not even notice the multitude of beautiful flowers! Even though he met many virtuous monks and read many Buddhist sutras, he had many erroneous views, he consistently distorted the teachings! It just wouldn't sink in!

한 도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불교와 도교를 절반씩 믿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다소 흔한 일입니다. 뒤뜰에는 매우 예쁘고 화려한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는 정말 독특한 꽃 한 송이가 있음을 듣고, 그 꽃을 응시하고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그는 많은 덕망 있는 스님들을 만났고 많은 불교 경전을 읽었지만, 많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그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Then their practice becomes pure. First, you must do garbage dumping before you can fill up the Dharma vessel.

행실이 곧 청정하여 먼저, 여러분은 법기를 채우기 전에 쓰레기를 버려야 해야 합니다. If you are still at a low level, it does not really matter. As you progress higher, it becomes more critical to dump the erroneous views and knowledge you've picked up along the way.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낮은 단계에 있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 과정에서 습득한 잘못된 견해와 지식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hat is why I advocate quality over quantity. I am very conservative in my research and study habits. I prefer to stick to the patriarchs and sages' teachings instead of the popular and famous teachers.

그래서 나는 양보다 질을 옹호합니다. 저는 연구와 공부 습관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입니다. 저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선생님들 대신 조사들과 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Attaining the Way is achieved by purifying oneself.

도는 자신을 정화함으로써 성취됩니다.

Section 36:

THE SEQUENCE THAT LEADS TO SUCCESS

제36장. 學難再勸(거난재근) 아홉 가지 어려운 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It is difficult for one to leave the evil destinies and become a human being.

"Even if one does become a human being, it is still difficult to become a man rather than a woman.

"Even if one does become a man, it is still difficult to have the six sense organs complete and perfect.

"Even if the six sense organs are complete and perfect, it is still difficult for one to be born in a central country.

"Even if one is born in a central country, it is still difficult to be born at a time when there is a Buddha in the world.

"Even if one is born at a time when there is a Buddha in the world, it is still difficult to encounter the Way.

"Even if one does encounter the Way, it is still difficult to bring forth faith.

"Even if one brings forth faith, it is still difficult to resolve one's mind on Bodhi

"Even if one does resolve one's mind on Bodhi, it is still difficult to be beyond cultivation and attainment."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삼악도를 떠나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사람 몸을 받는 중에도 남자 되기가 어렵고, 비록 남자가 되었을지라도 육근(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 능력)이 완비하기가 어렵고, 육근이 완비하였을지라도 좋은 국토에 나기가 어렵고, 좋은 국토에 났을지라도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직접 부처님 회상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부처님 회상에 들어 왔을지라도 신심 내기가 어렵고, 신심을 내었을지라도 보리심을 발하기가 어렵고, 보리심을 발하였을지라도 무상대도의 성품을 보기가 어렵나니라.”

佛言：人離惡道，得爲人難，既得爲人，去女卽男難，
불언：인리악도, 득위인난, 기득위인, 거여즉남난,
既得爲男, 六根完具難, 六根既具, 生中國難,
기득위남, 육근완구난, 육근기구, 생중국난,
既生中國, 值佛世難, 既值佛世, 遇道者難,
기생중국, 치불세난, 기치불세, 우도자난,
既得遇道, 興信心難, 既興信心, 發菩提心難, 既發菩提心, 無修無證難.
기득우도, 흥신심난, 기흥신심, 발보리심난, 기발보리심, 무수무증난.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lists out the nine incremental difficulties. Listen and realize how difficult it is to be able to cultivate the Way.

이 장에서는 9가지 난에 대해 설명합니다. 도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세요.

The first four are worldly retributions: our past creditors are catching up with us and demanding restitution. The last five are transcendental retributions.

처음 네 가지는 세속적인 보입니다. 우리의 전생 원결들이 우리를 따라잡고 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가지는 출세간적인 보입니다.

The Buddha said, "It is difficult for one to leave the evil destinies and become a human being. The three "evil destinies" are: animal realm, hungry ghost realm and hells. Once fallen into the evil paths, one must undergo tremendous suffering for interminably long periods. Upon death, one usually is immediately reborn into the same realm for ten upon ten thousands of millions of times. Eventually, one can then make it back to the human realm.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삼악도를 떠나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삼악도"는 축생계 아귀계, 지옥입니다. 일단 악도에 빠지면, 끝없이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죽으면 대개는 천만 번 반복해서 즉시 같은 계에 다시 태어나서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The Chinese has an analogy for obtaining a human body. It's like "a blind turtle surfacing through a floating piece of wood 盲龜浮木." Turtles can live

for a very long time. Usually, they only surface every hundred years or so. Furthermore, this turtle happens to be totally blind. And yet, when it surfaces it can poke its head through a hole in a piece of wood that happens to be floating in the ocean. This is infinitely harder than winning the super lotto.

중국인들은 사람몸 얻는 것에 대해 비유를 듭니다. 그것은 마치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타고 떠다니는 장님 거북이 盲龜浮木"와 같습니다. 거북이는 매우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보통, 거북이들은 약 100년마다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게다가, 이 거북이는 우연히 완전히 장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가 표면으로 떠오를 때, 바다에 떠 있는 나무 조각의 구멍에 머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Even if one does become a human being, it is still difficult to become a man rather than a woman. Granted it might be better to be a woman in this country but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women are dependent upon men.

사람 몸을 받는 중에도 남자가 되기가 어렵고, 이 나라에서 여성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The Mahaparanirvana Sutra lists ten undesirables for women:

대열반경에는 여성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점 10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1. At birth, their parents are not happy 父 母 不 喜.

태어날 때,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2. Raising them is not that interesting 視 無 滋 味.

딸을 키우는 것을 그렇게 재미있지 않습니다.

3. Cause a lot of worries 心 常 畏 人 (a man said: to have a gorgeous daughter means that he has to learn to shoot to keep to boys away)

많이 걱정됩니다. (예쁜 딸이 있다는 것은 남자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총을 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4. Worry about marrying them off 父 母 憂 嫁.

결혼에 대해 걱정합니다.

5. They will leave you (they'll grow up and leave you) 父 母 生 離.

딸은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라서 여러분을 떠날 것입니다)

6. Afraid of husband's joy or anger 畏 夫 喜 怒.

남편의 기쁨이나 분노에 두려워 합니다.

7. Difficult pregnancy and birth懷 產 甚 難.

임신과 출산이 어렵습니다.

8. Strictly supervised by parents少 為 父 母 管 束.

부모가 엄격하게 감독합니다.

9. Controlled by husband中 為 夫 婿 禁 制.

남편이 통제합니다.

10. Older, fear offspring老 為 兒 孫 所 訶.

나이가 들면 자손을 두려워합니다.

Great men do:

위대한 사람은

1. Draw near Good Knowing Adviser
선지식에게 다가갑니다.
2. Investigate the Proper Dharma
정법을 공부합니다.
3. Contemplate its meanings/principles
의미/이치를 관합니다.
4. Cultivate accordingly
조화롭게 수행합니다.

Regardless of gender: if one can recognize the Buddha nature then it's male even though the body is female.

성별에 관계없이 불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몸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입니다.

Even if one does become a man, it is still difficult to have the six sense organs complete and perfect.

비록 남자가 되었을지라도 육근(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 능력)이 완비하기가 어렵고, "Six sense organs: eyes, ears, nose, tongue, body and mind. To have complete sense organs represents being fully endowed with all the human capacities, thus making it easier to cultivate the Way.

6가지 감각 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입니다. 완전한 감각 기관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도를 닦는 것이 더 쉽습니다.

Those beings who just came out of the lower three evil paths and make it to the human realm, tend to have incomplete sense organs.

삼악도에서 막 벗어나 인간계로 들어온 존재들은 감각 기관이 불완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Even if the six sense organs are complete and perfect, it is still difficult for one to be born in a central country. *"A central country"* refers to a place where you have plenty of resources. For example, we take so many amenities for granted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in Taiwan, whose average income approaches that of Western Europe, it was very difficult to find a library.

육근이 완비하였을지라도 좋은 국토에 나기가 어렵고, "좋은 국토"는 자원이 풍부한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의 많은 편의시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평균 수입이 서유럽에 육박하는 대만에 있을 때는 도서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More specifically, a central country is one where one can find Buddhism.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국토는 불교를 찾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Even if one is born in a central country, it is still difficult to be born at a time when there is a Buddha in the world. At that time, life was a lot better. In particular, places where the Buddha came usually thrived.

좋은 국토에 났을지라도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 당시에, 삶은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오신 곳은 주로 번성했습니다.

In particular, it's much easier to obtain the Way if you cultivate when the Buddhas are in the world, especially if it's under the Buddha's guidance.

특히 부처님이 재세시에, 특히 부처님의 지도 아래에서 수행하면 도를 얻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In contrast, we're born before or after the Buddha's time: it's one of the eight difficulties.

반면에 우리는 부처님 시대 이전이나 이후에 태어납니다: 그것은 여덟 가지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Even if one is born at a time when there is a Buddha in the world, it is still difficult to encounter the Way. During the Buddha's time, he and his disciples spent a lot of time in the city of Sravasti where he received royal patronage. In that capital city, one third saw the Buddha; one third heard of him and one

third never even heard of him.

부처님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직접 부처님 회상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스라바스티라는 도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1/3은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1/3은 부처님에 대해 들었고 1/3은 부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Even if one does encounter the Way, it is still difficult to bring forth faith. Why is faith important? Without it you wouldn't listen to instructions. If you don't follow instructions, you won't find the treasure trove. It is funny how most people seem to think that we gauge our success by how many people we convert to Buddhism. That's a myth as far as Mahayana is concerned. If you think that we are trying to convert you, think again and guard against arrogance. Let me tell you, life is lot more pleasant when we can learn to embrace all Buddhists and non-Buddhists alike. I've always maintained that Mahayana is not for everyone, there is no need to convert. People believe because it does them good. There is no need to sell.

부처님 회상에 들어 왔을지라도 신심 내기가 어렵고, 신심을 내었을지라도 보리심을 발하기가 어렵고,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 없이는 지침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보물창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속도로 개종시키는 불자의 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승에 관한 오해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을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고 자신의 오만함을 경계하세요. 모든 불자와 비불자를 똑같이 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때 삶은 훨씬 더 즐겁습니다. 나는 항상 대승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이유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이 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Two kinds of people are very difficult to bring forth the faith: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With deviant views
삳된 견해가 있는 사람
2. Intelligent and eloquent.
똑똑하고 재변이 있는 사람

Even if one brings forth faith, it is still difficult to resolve one's mind on Bodhi.

"To resolve for Bodhi" is to want to become a Buddha.

신심을 내었을지라도 보리심을 발하기가 어렵고, "보리를 발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Take the case of the Arhats, they think they've made it and thus treading the Bodhisattva path is just too much for them.

아라한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살도를 걷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힘듭니다.

Four things that is difficult to believe:

믿기 어려운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rue Suchness is the origin of all dharmas

진여는 모든 법의 기원입니다.

2. The Buddha has limitless virtues

부처님의 덕은 무한합니다.

3. The Buddhadharma has great benefits

불법은 크게 이롭습니다.

4. The Sangha can be trusted.

승가는 믿을 수 있습니다.

Even if one does resolve one's mind on Bodhi, it is still difficult to be beyond cultivation and attainment.

보리심을 발하였을지라도 무상대도의 성품을 보기가 어렵나니라."

The "*Bodhi*" mind (Bringing forth the faith shastra; 起信論) has three components:

"보리" 심(기신론起信論)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Direct mind 직심(곧은 마음)

2. Deep mind 심심(깊은 마음)

3. Compassionate mind. 자심(자비로운 마음)

The four great vows for Bodhi:

보리를 위한 네 가지 위대한 서원입니다.

1. LBs are limitless; I vow to cross them over.

중생은 무한합니다; 중생을 제도할 것을 서원합니다.

2. Afflictions are inexhaustible; I vow to cut them off.

번뇌는 끝이 없습니다. 번뇌를 끊을 것을 서원합니다.

3. Dharma Doors are immeasurable, I vow to learn them.

법문은 한량없습니다. 법문을 배울 것을 서원합니다.

4. The Buddha Way is unsurpassed, I vow to realize it.

불도는 위없습니다. 불도를 깨달을 것을 서원합니다.

"To be beyond cultivation and attainment" refers to understanding the true principles. This is enlightenment.

"무상대도의 성품"은 참된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These individuals cultivate and yet do not see it as cultivation. In contrast, common mortals like us constantly cringe and grimace at the thought of cultivation.

이 사람들은 수행하지만 그것을 수행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수행에 대해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움츠리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Furthermore, the enlightened ones got there because they no longer see that there is anything to be attained. That includes the Buddha fruition. This is not just rhetoric, that's how they think!

게다가, 깨달은 사람들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에는 불과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단지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Section 37:

STAYING MINDFUL OF MORAL PRECEPTS BRINGS US CLOSE TO THE WAY

제37장. 持戒得果(지계득과) 나의 계율을 항상 기억하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My disciples may be several thousand miles away from me, but if they remember my moral precepts, they will certainly attain the fruition of the Way. "If those who are by my side do not follow my moral precepts, they may see me constantly, but in the end they will not attain the Way."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나서 수천 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준 계문을 잘 지켜서 계행을 청정히 하면 이는 곧 나를 가까이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요, 비록 나의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보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계행이 바르지 못하면 이는 곧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라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하리라."

佛言：佛子離吾數千里，憶念吾戒，必得道果；

불언 : 불자리오수천리, 억념오계, 필득도과；

在吾左右，雖常見吾，不順吾戒，終不得道。

재오좌우, 수상견오, 불순오계, 종불득도.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section explains that when the mind is close to the Buddha, that's what matters. It doesn't matter how far the body is. In particular, to be mindful of precepts is to really believe in Him.

이 장에서는 마음이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몸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My disciples may be several thousand miles away from me,

but if they remember my moral precepts, they will certainly attain the fruition of the Way. This is the Buddhist secret, by strictly cultivating the precepts, one can attain sagehood. In particular, the person who can purely observe the Five Precepts will become a sag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나서 수천 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준 계문을 잘 지켜서 계행을 청정히 하면 이는 곧 나를 가까이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요, 이것이 불교의 비밀입니다. 엄격히 계율을 수행하면 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계를 청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현자가 될 것입니다.

If those who are by my side do not follow my moral precepts, they may see me constantly, but in the end they will not attain the Way. Physical proximity to a Good Knowing Adviser (GKA) does not allow one for making excuses for not following the teachings.

비록 나의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보고 같이 있다 할지라도 계행이 바르지 못하면 이는 곧 나를 멀리하는 사람이라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하리라.” 선지식과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으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When you strictly observe the precepts, your three karmas of body, mouth and mind are purified and great things happen.

계를 엄격히 지키면 신구의 3업이 정화되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There is a very famous anecdote in the Vinaya.

율장에 매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There were two monks who decided to go on a pilgrimage to visit Shakyamuni Buddha.

두 명의 스님이 석가모니불을 친견하기 위해 순례를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They had to cross over a desert. Along the way, they ran out of water. They stumbled into a human skull in which there were bugs living inside.

그들은 사막을 지났는데 도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두개골에 걸려 넘어졌고 두개골 안에는 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One monk decided to take a drink to survive. The other chose not to drink and died of thirst.

한 스님은 살기 위해 물을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마시지 않기로 선택했고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His surviving colleague made it to see Shakyamuni Buddha and recounted his experience to the Buddha.

살아남은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러 갔고, 부처님께 그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He said that unfortunately, his Dharma brother did not make it because he stubbornly refused to drink that water that was full of bugs as decreed by the Buddhist Vinaya.

불교의 율에 의해 따라 법형은 벌레로 가득 찬 그 물을 마시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는 올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Buddha immediately scolded the monk and informed him that he broke precepts. His Dharma brother did die of thirst in the desert. However because of his virtues, he was immediately born onto the Trayastrimsa Heaven. He then came to pay the Buddha a visit and already left.

부처님은 즉시 스님을 꾸짖었고, 스님이 계율을 어겼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법형은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덕으로 그는 즉시 도리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부처님을 찾아뵙고 떠났습니다.

"Do not be lax. Cultivate vigorously. Guard your sense organs. Even though you are far from me, I'm constantly mindful of you: you are really next to me."

"방일하지 마세요. 용맹하게 수행하세요. 감각 기관을 보호하세요. 비록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옆에 있습니다."

Shurangama Sutra: "To guard your mind is precepts. Keeping precepts give rise to samadhi. From samadhi, wisdom unfolds."

능엄경(능엄경) :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삼매를 낳습니다 삼매로부터 지혜가 펼쳐집니다."

In Mahayana, we don't really keep quotas for disciples for the above-mentioned reason. Those who call themselves Buddhists and even were transmitted the precepts are not real Buddhists (close to their GKA) if they keep on breaking precepts, whereas the people who are not even Buddhists and yet are able to maintain their mouth, body and mind karmas purely, are real Buddhists. What's in a name?

대승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제자의 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불자라고 하고 심지어 계율까지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율을 어긴다면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반면, 불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친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불자입니다. 달리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Section 38:

BIRTH LEADS TO DEATH

제38장. 無常迅速(무사이속) 한 호흡 사이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asked a Sramana, "How long is the human life span?" He replied, "A few days." The Buddha said, "You have not yet understood the Way." He asked another Sramana, "How long is the human life span?" The reply was, "The space of a meal." The Buddha said, "You have not yet understood the Way." He asked another Sramana, "How long is the human life span?" He replied, "The length of a single breath." The Buddha said, "Excellent. You have understood the Way."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물으시되,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느냐?”

한 제자 대답하되, “수일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도가 능하지 못하다.”

다시 다른 제자에게 물으시니 그 제자 대답하되, “밥 먹는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도 도가 능하지 못하다.”

다시 다른 제자에게 물으시니 그 제자 대답하되,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네가 도를 알았도다.”

佛問沙門：人命在幾間。對曰：數日間。

佛問沙門：人命在幾間。對曰：數日間。

佛言：子未知道。復問一沙門，人命在幾間。對曰：飯食間。

佛言：子未知道。復問一沙門，人命在幾間。對曰：飯食間。

佛言：子未知道。復問一沙門，人命在幾間。對曰：呼吸間。

佛言：子未知道。復問一沙門，人命在幾間。對曰：呼吸間。

佛言：善哉，子知道矣。

佛言：善哉，子知道矣。

Sutra commentary:

주석:

Human life is impermanent. Death can be so imminent.

인간의 삶은 무상합니다. 죽음이 임박할 수 있습니다.

The Buddha asked a Sramana, "How long is the human life span?" He replied, "A few days." The Buddha said, "You have not yet understood the Way." "A few days" indicates that this "*sramana*" understands that human life is very short indeed. Unfortunately, the Buddha declared that he has not yet "*understood the Way.*"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물으시되,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느냐?" 한 제자 대답하되, "수일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도가 능하지 못하다." "수일"은 이 "사문"은 인간의 삶이 정말로 매우 짧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안타깝게도, 부처님은 그가 아직 "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In Mahayana, the "*life span*" begins when the Alaya consciousness, also called the eighth consciousness arrives. When it leaves, that's what is considered to be death.

대승에서는 팔식이라고 하는 아뢰야식이 도래하면서 "수명"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떠나면, 죽음으로 간주됩니다.

The Buddha had a cousin: a royal prince who was a real playboy. The Buddha sent one of his Bhikshus to the cousin to tell him that the Buddha ordered him to leave the home life because he only had a week left live. What would you do if you knew that you only have a week to go? This guy said, "OK, tell my cousin that I'm grateful for the advance warning, I'll do as ordered." What do you think he did? Being so clever, he decided to party for six days before joining the Buddhist order! Because he cultivated for one day, he was born onto the heavens instead of falling to the lower realms.

부처님에게는 진짜 바람둥이인 사촌 왕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한 비구를 사촌에게 보내어 그에게 수명이 일주일밖에 남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명한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네, 사촌에게 미리 경고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명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영리했기

때문에, 그는 불교 교단에 들어가기 전에 6일 동안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수행했기 때문에, 낮은 계로 떨어지는 대신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He asked another Sramana, "How long is the human life span?" The reply was, "The space of a meal." The Buddha said, "You have not yet understood the Way." "*The space of a meal*" is short indeed. It alludes to how the pleasures (such as eating) in life are so short lived.

다시 다른 제자에게 물으시니 그 제자 대답하되,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네가 도를 알았도다." "숨 한 번 쉬는 사이"는 매우 짧습니다. 그것은 삶의 즐거움이 얼마나 짧은지를 나타냅니다.

Unfortunately, he has not yet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Way either.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Ven. Xuan Hua Xuan Hua told an excellent story that illustrates the wisdom behind being mindful of life's impermanence.

선화 상인은 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무상을 인식하는 이면의 지혜를 잘 나타내었습니다.

There were three old men who got together.

세 명의 노인이 함께 모였습니다.

The sixty year old man said: "I am so happy that we can get together. Who knows whether or not all three of us can do next year?"

60세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셋이서 내년엔 함께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The seventy year old retorted: "I can't even plan that far. You know, at my age every night when I go to bed, I'm not even sure that I can wake up the following day!"

70세 노인이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계획할 수조차 없습니다. 알다시피, 내 나이에,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다음날 일어날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The eighty year old man lamented: "You guys! For me, after I exhale, I'm not even sure I can still be alive to inhale the next breath!"

80세의 노인은 탄식했습니다. "이놈들아! 나는 숨을 내쉬고 나서 다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The length of a single breath*" is very short. What it alludes to is the fragility of life. Our life hangs on to each and every single breath. This sramana has

"understood the Way" because he truly understands life's impermanence and feels pressed for time.

"한숨의 길이"는 매우 짧습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삶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숨 한 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문은 인생의 부조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도를 이해"했습니다.

Confucius said:

공자가 말했습니다.

"Hearing of the Way in the morning, I don't mind dying in the evening 朝聞道, 夕死可矣." If he can hear of the true principles and then die, he feels that his life has been worth it. What is the meaning of your life?

"아침에 도를 들으니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朝聞道, 夕死可矣." 진리를 듣고 죽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The Chinese have a saying:

중국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Born in a stupor and dying as if in a dream 醉生夢死."

"마치 몽롱하게 태어나서 꿈에서처럼 죽는다. 醉生夢死"

It beautifully describes the human condition: we don't know how we got here and eventually die as if the whole thing is but a dream!

그것은 인간의 상태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모르고 결국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죽습니다!

Section 39:

THE BUDDHA'S INSTRUCTIONS ARE NOT BIASED

제39장. 依教無差(의교무차) 모든 경전을 믿고 따르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Students of the Buddha's Way should believe in and accord with everything that the Buddha teaches. When you eat honey, it is sweet on the surface and sweet in the center; it is the same with my sutra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배우는 이는 나의 말하는 바를 다 믿고 순종하라.

비유컨대 꿀을 먹음에 가운데나 가(邊)나 그 맛이 다 단 것과 같아서

나의 말도 또한 그러 하나니라.”

佛言：學佛道者，佛所言說，皆應信順，譬如食蜜，中邊皆恬 吾經亦爾。

불언：학불도자. 불소언설. 개응신순. 비여식밀, 중변개첩 오경역이.

Sutra commentary:

주석:

One should believe and follow all the Buddhist teachings and not discriminate between Mahayana and Hinayana, Chan versus Pure Land, Provisional teaching versus Actual teaching, etc.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하며, 대승과 소승, 선과 정토, 권교와 실교 등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The Buddha said, "Students of the Buddha's Way should believe in and accord with everything that the Buddha teaches. Don't discriminat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배우는 이는 나의 말하는 바를 다 믿고 순종하라. 분별하지 마세요!

The four teachings: provisional, actual, sudden and gradual.

네 가지 가르침은 권교, 실교, 돈교, 점교입니다.

The Store teaching: production extinction of true self emptiness (emptiness contemplation 空觀; Arhat and PratyekaBuddha); the Connective teaching: unborn of true self emptiness (emptiness contemplation 空觀; non-birth three Vehicles fruitions); the Separate teaching: limitless dharmas are all empty (mundane contemplation 假觀; three worthies and ground bodhisattvas); the Perfect teaching: Middle Way (The Primary Principle 第一諦; non-action fruitions of the Faith positions, Equal Enlightenment ...).

장교: 진정한 아공의 생멸(공관空觀; 아라한, 벽지불)

부교: 진아공에서 생하지 않음(공관; 무생삼승과)

별교: 무한한 법은 모두 공합니다(가관假觀; 삼현과 지보살)

원교: 중도(제일제第一諦, 신위의 무행과, 등각...)입니다.

Key words: to "believe in信" to not doubt. To "accord with順" is to not contradict.

키워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르다順"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The Buddha brought his Dharma to the Saha world in order to help us. We can believe that! His teachings are for the purpose of lighting up the many dark corners of our mind.

부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그의 법을 사바세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많은 어두운 구석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Quite often, we cannot possibly understand everything that he teaches. That is what good teachers are supposed to do! They bring up things that are hard to swallow but will do us a lot of good. We should believe that! People with a lot of blessings can easily bring forth the faith. They listen to the Dharma and somehow it has a true ring to them.

종종,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스승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들으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정한 울림이 있습니다.

If we really believe, then we should learn to accord with the teachings. If we can carry out the Buddha's instructions, then we can see that he certainly did not fool us at all.

만약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가르침에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의 지침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전혀 속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is is a real problem for the teachers who are trying to teach the truth. Unless they are truthful, their students eventually will figure it out!

이것은 진실을 가르치려는 스승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이 진실하지 않은 한, 그들의 제자들은 결국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As far as I know, no Arhat or PratyekaBuddha or Bodhisattva ever complained that the Buddha misled them in any way!

제가 아는 한 어떤 아라한, 벽지불, 보살도 부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잘못 인도했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When you eat honey, it is sweet on the surface and sweet in the center; it is the same with my sutras.

비유컨대 꿀을 먹음에 가운데나 가(邊)나 그 맛이 다 단 것과 같아서 나의 말도 또한 그러 하나니라.”

“*On the surface*” alludes to the provisional teaching (for Arhats and PratyekaBuddhas). At the initial level (Provisional Dharma), the BuddhaDharma is so sweet to the taste.

“가(邊)”는 (아라한과 벽지불에게) 권교를 암시합니다. 초기 단계(권법)에서 불법은 매우 달콤합니다.

Remember that the Buddha’s first five disciples were accomplished cultivators of the external paths. When they began practicing the Two Vehicles, it was wonderful beyond description.

부처님의 첫 다섯 제자는 외도의 뛰어난 수행자였음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이승을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In the center*” refers to the actual teaching (for Bodhisattvas). When they graduated to the Bodhisattva Vehicle, they discovered that cultivation is even more wonderful.

“가운데”는 (보살을 위한) 실교를 말합니다. 그들이 보살승을 졸업했을 때, 그들은 수행이 훨씬 더 묘함을 발견했습니다.

They realize that the Two Vehicles are just like the transformation city. If they move on then they get so much more.

그들은 이승이 화현하여 생긴 도시와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계속 나아간다면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All the teachings were made for a purpose: the provisional teaching gradually leads to the actual teaching. Each teaching was suitable for the individual cases.

모든 가르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권교는 점차 실교로 이어집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개개인에 따라 적합했습니다.

Section 40:

THE WAY IS PRACTICED IN THE MIND

제40장. 修行在心(수행재심) 마음 닦기만 행하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A Sramana who practices the Way should not be like an ox turning a millstone. Such as one walks the Way with his body, but his mind is not on the Way. If the mind is concentrated on the Way, what further need is there to practic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를 행할진대 맷돌 돌리는 소같이 하지 말지니, 소가 사람에게 이끌려 몸은 비록 돌기는 하나 마음에는 조금도 이해가 없는 것 같이, 몸은 비록 도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의 도는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의 참 도를 행하면 따로 도를 행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佛言：沙門行道，無如磨牛，身雖行道，心道不行。

불언：사문행도，무여마우. 신수행도，심도불행.

心道若行，何用行道。

심도약행，하용행도。

Sutra commentary:

주석:

Cultivation centers on the mind, not at external things.

수행은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 중심을 둡니다.

The Buddha said, "A Sramana who practices the Way should not be like an ox turning a millstone. An "ox turning a millstone" does it grudgingly. Who's forcing you to cultivate?"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를 행할진대 맷돌 돌리는 소같이 하지 말지니, "맷돌을 돌리는 황소"는 마지못해 그것을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수행을 강요합니까?"

Some Westerners misunderstand left-home people. They feel that we are parasites of society. That is so far from the truth.

일부 서양인들은 출가자들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What are we producing that is of value?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I submit to you that religious people contribute goodness to society. We bring that energy of kindness and compassion to the world.

나는 종교인들이 사회에 선을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애와 자비의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As you get older, you will see more spiritual need in your life. Religion can bring meaning to people's lives.

나이가 들에 따라, 여러분은 삶에서 더 많은 영적인 필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Please do not wait until your body is almost broken up from your struggles to make ends meet or to conquer the world before you try to understand why you came to this world.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몸을 혹사합니다. 몸이 거의 부서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때에는 너무 늦습니다.

Such as one walks the Way with his body, but his mind is not on the Way. His mind is somewhere else even though his body is close to the Way.

몸은 비록 도를 행하고 있더라도 마음의 도는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몸은 도와 가깝지만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There are some left-home people who only leave the home life with their body, not with their mind. They take on left-home people appearance but entertain mostly worldly thoughts and devote a lot of their time to worldly pursuits.

출가를 정신이 아닌 몸으로만 하는 출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출가자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세속적인 생각을 즐기고 세속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입니까?

They are those who are pursuing fame and profit.

그들은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If the mind is concentrated on the Way, what further need is there to practice

If you can reach the state of being constantly mindful of the Way, you've made it. You have no more false-thinking. You've accomplished the Way. There is no further need to practice it.

마음의 참 도를 행하면 따로 도를 행하려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에 마음을 둘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도를 완성했습니다.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Hinduism used to stress ceremonies and religious protocols.

힌두교는 의식과 종교적 의례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The Way is not all those external things like the ceremonies, etiquette, sutra books, temples, statues etc... Those are only external things that point to the mind..

도는 의식, 예절, 경전, 사찰, 상 등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음을 가리키는 외부적인 것들뿐입니다.

Section 41:

A STRAIGHT MIND GETS RID OF DESIRE

제41장. 直心出塵(직심출진) 오로지 곧은 마음으로 나아가라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One who practices the Way is like an ox pulling a heavy load through deep mud. The ox is so extremely exhausted that it dares not glance to the left or right. Only when it gets out of the mud can it rest. The Sramana should regard emotion and desire as being worse than deep mud; and with an undeviating mind, he should be mindful of the Way. Then he can avoid suffering."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 가운데를 밟아 가는 것과 같이할지니,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진흙 가운데를 밟아 가매, 극히 고되고 가빠서 능히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그 진흙을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숨을 내 쉬나니라. 우리도 도를 닦을진대 인간의 모든 세욕을 저 진흙보다 더 심한 줄 알아서 조금도 그 세욕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써 정진하면 가히 고통을 면하리라.”

佛言：夫爲道者，如牛負重 行深泥中，疲極不敢 左右顧視；

불언：부위도자，여우각중 행심니중，피극불감 좌우고시；

出離淤泥 乃可蘇息，沙門當觀情欲，甚於淤泥，直心念道，可免苦矣。

출리어니 내가소식，사문당관정욕，심어어니，직심념도，가면고의。

Sutra commentary:

주석:

Cultivate a straight mind that is intent on keeping defilements away.

더러움을 멀리하고자 하는 직심을 기르세요.

The Buddha said, "One who practices the Way is like an ox pulling a heavy load through deep mud. It's certainly not like going to the beach! Cultivation

is like ploughing in mud. "An ox" is supposed to do what it's told. So do cultivators: they should do what their Good Knowing Adviser tells them.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도를 닦는 이는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 가운데를 밟아 가는 것과 같이할지니, 그것은 확실히 해변에 놀러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수행은 진흙 속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황소"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지식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A heady load": alludes to the heavy burden we need to pull. Cultivators have three kinds of burden:

무거운 짐: 우리가 끌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암시합니다. 수행자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1. Afflictions (before ending birth and death).

번뇌(생사를 끝내기 전에)

2. Living beings (vow to save all living beings).

중생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고 서원합니다.)

3. The teachings (vow to understand the teachings).

가르침(가르침을 이해할 것을 서원합니다.)

"Deep mud" symbolizes the sea of birth and death that we ceaseless wander in.

"깊은 진흙"은 우리가 끊임없이 떠도는 생사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The ox is so extremely exhausted that it dares not glance to the left or right.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진흙 가운데를 밟아 가매, 극히 고되고 가빠서 능히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Extremely exhausted": we need to give it our all.

"극히 고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It dares not glance to the left or right":

"가빠서 능히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It has a sense of urgency and does not let itself become distracted.

그것은 긴박감이 있어 스스로 산만해지지 않게 합니다.

Success cultivators are those who have a sense of urgency. Cultivation is real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them. For example, Chan practitioners

are taught to hang imaginary “death 死” characters in front of their eyes.

성공한 수행자는 긴박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행은 그들에게 진정 생사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선 수행자들은 그들의 눈 앞에 상상으로 “죽음 사死” 자를 걸어두는 법을 배웁니다.

Only when it gets out of the mud can it rest. If you are aware of the danger you’re in, you wouldn’t go about it casually, would you? “*To get out*” means to end birth and death.

그 진흙을 벗어난 뒤에야 비로소 숨을 내쉬나니라. 만약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벗어난 뒤”는 생사를 끝냄을 의미합니다.

Here again, the Buddha starts off with an analogy to make the point.

여기서 다시, 부처님은 요점을 밝히기 위해 비유로 시작합니다.

The Sramana should regard emotion and desire as being worse than deep mud; and with an undeviating mind, he should be mindful of the Way. “*Emotion and desire*” are very dangerous. Do not indulge in them. They make you fall.

우리도 도를 닦을진대 인간의 모든 세욕을 저 진흙보다 더 심한 줄 알아서 조금도 그 세욕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일심으로써 정진하면 “감정과 욕망”은 매우 위험합니다. 빠져들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넘어뜨립니다.

Cultivate with single-minded determination “*undeviating mind.*” Be mindful of birth and death: we’re born, create karmas, die and are reborn to undergo the retributions of past karmas (“revolve in the wheel”). Do not get distracted by emotion and desire.

일심으로 수행합니다. 생사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나고, 업을 만들고, 죽고, 과거의 업 보를 겪기 위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감정과 욕망에 의해 산만해지지 마세요

Then he can avoid suffering; you can then end suffering.

가히 고통을 면하리라. 여러분은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Suffering*” has two kinds: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Share section birth and death suffering: we are physically born and die. 분단생사分段生死: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나고 죽습니다.

2. Change section birth and death suffering: our mind ceaseless changes

one thought chases another

변역생사變易生死: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쫓습니다.

Why did the Buddha introduce fear in the equation? Fear of the ultimate loss. Fear can motivate us to cultivate and obtain liberation.

부처님은 왜 두려움을 언급했을까요? 궁극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 해탈을 얻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There was an old man who was married to a beautiful and much younger wife He fell head over heel for her and dutifully did what she asked of him.

한 노인이 아름답고 매우 젊은 아내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꼭 빠졌고 아내가 그에게 부탁한 것을 충실히 들어주었습니다.

One day the king of a neighboring country marched his huge army over to try to conquer the old man's smaller country.

어느 날 이웃 나라의 왕은 노인의 작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그의 거대한 군대를 몰고 쳐들어 왔습니다.

So the old man enlisted into the army to fight the invading army.

그래서 그 노인은 침략군과 싸우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Before he left for battle, his wife gave him a large bucket of rice so that he can eat while away from home. She told him not to lose the rice bucket if he wanted to see her again. (I guess some women have different priorities than men.)

그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그에게 집을 떠나있는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쌀이 담긴 큰 통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쌀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과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The old man dutifully put the bucket of rice on his head and rode off to the battlefield.

노인은 쌀통을 머리에 이고 말을 타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The invading army proved to be too much for the smaller country: its army was soundly defeated and dispersed throughout the battlefield.

작은 나라는 침략군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고 전장 전체에 분산되었습니다.

The old man was separated from his army. As he was running for his life, he saw a camp. Thinking that it was his army's he rushed his horse toward it in full gallop with his rice bucket on top of his head.

그 노인은 그의 군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을 때, 그는 캠프를 보았습니다. 자기 군대인 줄 알고 그는 쌀통을 머리 위에 얹고 전속력으로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The enemy army was totally taken by surprise. They tried to grab the bucket perched on top of the old man's head. This only made him fight even more valiantly.

적군은 완전히 기습당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쌀통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그를 더욱 용감하게 싸우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His fellow soldiers who were dispersed in the neighboring hills saw him. They thought that he was on the attack. Impressed by his bravery, they too sounded the charge and also rushed the enemy's camp.

이웃 언덕에 흩어진 그의 동료 병사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용맹함에 감명을 받은 그들 역시 돌격의 소리를 내며 적의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As a result, the enemy was in total disarray and had to run for their lives.

그 결과, 적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The old man could then safely come home to his wife with the rice bucket.

노인은 안전하게 쌀통을 들고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Moral of the story: it pays to be afraid of your wife.

이야기의 교훈: 아내를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Section 42:

UNDERSTAND THAT THE WORLD IS ILLUSORY

제42장. 一切如幻(일체여환) 부처님의 눈

Sutra text:

경전 원문:

The Buddha said, "I look upon royalty and high positions as upon the dust that floats through a crack. I look upon treasures of gold and jade as upon broken tiles. I look upon fine silk clothing as upon cheap cotton. I look upon a great thousand-world as upon a small nut kernel. I look upon the waters of the Anavatapta Lake as upon oil used to anoint the feet. I look upon the door of expedient means as upon a cluster of jewels created by transformation. I look upon the Unsurpassed Vehicle as upon a dream of gold and riches. I look upon the Buddha Way as upon flowers before my eyes. I look upon Dhyana samadhi as upon the pillar of Mount Sumeru. I look upon Nirvana as upon being awake day and night. I look upon inversion and uprightness as upon six dancing dragons. I look upon impartiality as upon the one true ground. I look upon the flourishing of the teaching as upon a tree blooming during four season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왕후의 지위 보기를 틈을 지나가는 티끌로 보며, 금옥의 보배 보기를 기와 자갈 같이 보며, 좋은 비단 보기를 헌 걸레 같이 보며, 대천세계를 하나의 겨자씨 같이 보며, 큰 연못(아녹지)의 물을 발에 바르는 기름 같이 보며, 방편의 문을 화보취(여의주) 같이 보며, 무상승(無上乘, 無相道, 대승)을 꿈 속의 금과 비단 같이 보며, 불도를 눈 앞의 꽃(허공 꽃) 같이 보며, 선정을 수미산의 기둥 같이 보며, 열반(적멸)을 아침 저녁으로 깨어난 것 같이 보며, 도정(도에 합일)을 육룡(六龍)이 춤추는 것 같이 보며, 평등을 일진지(一眞地, 眞如) 같이 보며, 교화 일으킴(흥화, 興化, 우주변화)을 사계절의 나무(사시목, 四時木, 宇宙理法이 운행됨으로 초목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같이 보노라 하시니라.”

모든 대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설한 바를 듣고 환희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佛言: 吾視王侯之位, 如過隙塵; 視金玉之寶, 如瓦礫;
불언: 오시왕후지위, 여과극진; 시금옥지보, 여와력;
視紈素之服, 如敝帛; 視大千界, 如一詞子; 視阿耨池水,
시환소지복, 여폐백; 시대천계, 여일가자; 시아녹지수,
如塗足油; 視方便門, 如化寶聚; 視無上乘, 如夢金帛;
여도족유; 시방편문, 여화보취; 시무상승, 여몽금백;
視佛道, 如眼前華; 視禪定, 如須彌柱; 視涅槃, 如晝夕寤;
시불도, 여안전화; 시선정, 여수미주; 시열반, 여주석오;
視倒正, 如六龍舞; 視平等, 如一眞地; 視興化, 如四時木.
시도정, 여육용무; 시평등, 여일진지; 시흥화, 여사시목.

諸大比丘 聞佛所說 歡喜奉行
제대비구 문불소설 환희奉行

Sutra commentary:

주석:

This final section is to help break living beings' attachment to dharmas.
이 마지막 장은 중생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집착을 깨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The Buddha said, "I look upon royalty and high positions as upon the dust that floats through a crack. Looking at status and power like insignificant achievements. "*Dust that floats through a crack*": ordinary people prize royalty and titles; they are but insignificant dust that can be seen through the cracks.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왕후의 지위 보기를 틈을 지나가는 티끌로 보며, 지위와 권력을 대수롭지 않은 성과처럼 봅니다. "틈을 지나가는 티끌": 보통 사람들은 인세와 지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들은 틈을 지나가는 하찮은 티끌일 뿐입니다.

Life is too short: we spend a lifetime to chase after fame and in the end, it can't help us the birth and death problem. We undergo death and are reborn again, again and again.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명성을 쫓는데 평생을 소비하지만, 결국, 그것은 생사 문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고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Position and power have no meaning to the Buddha.

지위와 권력은 부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I look upon treasures of gold and jade as upon broken tiles. Precious jewels and treasure are worthless (as “*broken tiles*”) to Him as well. In the land of Ultimate Bliss, the ground is gold. It’s as worthless as dirt here in the Saha world.

금옥의 보배 보기를 기와 자갈 같이 보며, 귀중한 보석과 보물은 그에게도 가치가 없습니다. 극락세계의 땅은 금입니다. 여기 사바 세계에서의 흠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The truly rich are not impressed by gold and gems.

진정한 부자들은 금과 보석들에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I look upon fine silk clothing as upon cheap cotton. Unlike many of us, he’s not attached to fine clothing either. There is nothing like the feel of fine silk or fabric against your skin is there?

좋은 비단 보기를 헨 걸레 같이보며, 대부분의 우리와 달리, 그는 좋은 옷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살에 닿는 고운 실크나 천의 느낌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The Buddha is does not value that fine feeling that nice clothing can provide.

부처님은 좋은 옷이 주는 좋은 느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I look upon a great thousand-world as upon a small nut kernel. If you have spiritual powers, opened you Heavenly Eyes, you can see the various worlds. He’s not impressed either.

대천세계를 하나의 겨자씨 같이 보며, 신력으로 천안을 열면,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도 감탄하지 않습니다.

I look upon the waters of the Anavatapta Lake as upon oil used to anoint the feet. All that water (of very big lake in India) seems so little to him.

큰 연못(아녹지)의 물을 발에 바르는 기름 같이 보며, (인도에 있는 매우 큰 호수의) 그 모든 물은 그에게 너무 작아 보입니다.

He’s not attached to little or much.

그는 크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Now for those who are more advanced.

이제 좀 더 단계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합니다.

I look upon the door of expedient means as upon a cluster of jewels created

by transformation. The Three Vehicles (Arhat, Pratyekabuddha and Bodhisattva Vehicles) are merely created for temporary use (provisional teaching). There is no need to be attached to them: don't think they are superior to anything else.

방편의 문을 확보취(여의주) 같이 보며, 삼승(성문, 연각, 보살)은 권교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Lay people value ways to get rich. Cultivators value Dharma Doors that help them quickly attain the fruitions.

재가자들은 부자가 되는 법을 중요시합니다. 수행자들은 빨리 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법문을 소중히 여깁니다.

The Buddha is not attached to Dharma Doors at all. All Dharma Doors are truly level and equal.

부처님은 법문에 전혀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문은 진정 평등합니다.

I look upon the Unsurpassed Vehicle as upon a dream of gold and riches.

The actual teaching itself is also merely a dream of riches and gold. Break the attachment to the superiority of the actual teaching.

무상승(無上乘, 無相道, 대승)을 꿈 속의 금과 비단 같이 보며, 실교 그 자체도 부와 금의 꿈에 불과합니다. 실교의 우월성에 대한 집착을 깨세요.

Living beings are already replete with the priceless Buddha nature. The Unsurpassed Vehicle is but a means to recover what we already have in the first place.

중생은 이미 귀중한 불성을 구족하였습니다. 위없는 승은 애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I look upon the Buddha Way as upon flowers before my eyes. Mahayana is merely like a vision of flowers. They won't last forever.

불도를 눈 앞의 꽃(허공 꽃) 같이 보며, 대승은 단지 꽃의 환영과 같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Mahayana itself is to help all living beings. By itself there is nothing worth taking about. Whatever is known as the Buddha Way is merely a vision of flowers. You should not be attached to it.

대승 그 자체는 모든 중생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취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불도라고 알려진 것은 단지 꽃에 대한 환영일 뿐입니다.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I look upon Dhyana samadhi as upon the pillar of Mount Sumeru. Mount Sumeru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Desire realm. It towers over everything and is immovable. Samadhi power is quite awesome and yet He looks at it as a thing that can be topped.

선정을 수미산의 기둥 같이 보며, 수미산은 욕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 위에 우뚝 솟아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매력은 꽤 대단하지만 그는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봅니다.

One should not be attached to samadhi power because like Mount Sumeru, it does not last forever.

수미산처럼 삼매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삼매력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I look upon Nirvana as upon being awake day and night. You are constantly aware and clear-headed. That's all Nirvana means to him.

열반(적멸)을 아침 저녁으로 깨어난 것 같이 보며, 여러분은 항상 자각하고 머리가 맑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열반이 의미하는 전부입니다.

It's probably to remind the Two Vehicle practitioners: do not be that attached to Nirvana!

아마도 이승 수행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열반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I look upon inversion and uprightness as upon six dancing dragons. When they dance, one can no longer tell one from another.

도정(도에 합일)을 육룡(六龍)이 춤추는 것 같이 보며, 그들이 춤을 출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Six dancing dragons represent the six organs. They can be as captivating as six dancing dragons. That's the nature of being upside-down or right-side-up. He does not even discriminate between proper or deviant.

여섯 마리의 춤추는 용은 여섯 개의 기관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춤추는 여섯 마리의 용만큼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혹은 좌우로 전도되는 성질입니다.

I look upon impartiality as upon the one true ground, of truth, of True Suchness where there is no duality.

평등을 일진지(一眞地, 眞如) 같이 보며, 진여에는 이분성이 없습니다.

When we discover the truth and merge with it, we then can become

"impartial": we no longer discriminate.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과 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별하지 않는 "평등"이 될 수 있습니다.

The Buddha is no longer attached to marks.

부처님은 더 이상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I look upon the flourishing of the teaching as upon a tree blooming during four seasons, with its cycles and lows and highs. That's the nature of the Buddhadharma.

교화 일으킴(흥화, 興化, 우주변화)을 사계절의 나무(사시목, 四時木, 宇宙理法이 운행됨으로 초목에게서 일어나는 변화) 같이 보노라 하시니라."그것이 불법의 성질입니다.

"Look": using the Buddha's eyes.

"보노라": 불안을 사용합니다.

Whoever who are, wherever you are: don't be attached. As a cultivator of the Way, it's shocking to hear that someone can look at Nirvana as like being awake. But coming from someone who is already there, you've got to pay attention: He knows. Once you get there, there is nothing to be attached to. You can't get there unless you let go of even the notion of making it, even the idea of liberating yourself!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착하지 마세요. '도'의 수행자로서, 누군가가 깨어 있는 것처럼 열반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에 간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루겠다는 생각, 심지어 자신을 해탈시키려는 생각조차 내려놓지 않는 한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Ultimately, free yourself of all attachments!

궁극적으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Story of the cloth bag carrying monk: he encounters the prime minister who asks about Mahayana. "What is the highest teaching?" The official asks.

붓짐을 든 스님의 이야기: 힌 관료가 스님에게 대승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관료가 묻습니다.

The beggar monk immediately drops his cloth bag, his only possessions.

탁발하는 스님은 그의 유일한 소지품인 붓짐을 즉시 떨어뜨립니다.

"Really, is there anything higher than that?" Pressed the prime minister.

"정말,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수상이 재차 물었습니다.

The monk picks up the bag and walks away until he disappears from sight.

There is nothing in the ultimate teaching.

스님은 봇짐을 들고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걸어갔습니다.

There is no mark (nor is there no no mark).

궁극적인 가르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이 없습니다(무상도 없습니다).

This section is a very good reference: very powerful dharmas that are being discussed here.

이 장은 매우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Emptiness contemplation (空 觀):

공관空觀:

1 Fame 2 Wealth 3 Food and clothing 4 World 5 Rivers and ocean

1 명성, 2 재산, 3 음식과 옷, 4 세계, 5 강과 바다입니다.

Mundane contemplation (假 觀):

가관假觀:

1 Expedients 2 Big Vehicle 3 Buddha Way 4 Samadhi 5 Nirvana

1 방편 2 대승 3 불도 4 삼매 5 열반

Middle contemplation (中 觀):

중관中觀:

1 Inversion/proper 2 Impartiality 3 Flourishing of the teaching.

1 정정 2 평등 3 가르침의 번영

- End -

- 42장경(四十二章經) 마침 -



BODHI LIGHT
INTERNATIONAL, INC.